Red Data Book 7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곤충 I

Red Data Book of Endangered Insects in Korea I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Red Data Book 7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곤 충 I

Red Data Book of Endangered Insects in Korea I

발간사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대는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범지구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UN은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 Conserva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채택했고, 2010년 5월에는 '제3차 세계 생물다양성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조류 1만여 종, 양서류 6만여 종, 포유류 5천여 종이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생물의 멸종 속도는 이전보다 1,000배 정도 빨라졌다고 경고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일어나며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서식지가 파괴되었으며, 화석연료의 급격한 사용량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는 수많은 야생동식물을 사라지게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식물의 멸종 즉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단순히 동식물만의 감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물다양성은 예로부터 우리의 의식주를 해결해주었고 지금도 유용한 자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다양성 감소는 의식주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건강성을 무너뜨려 인류의 생존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UN은 2010년을 생물다양성의 해로 정했고, 2011년부터 2020년을 생물다양성 10년으로 선포했습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CBD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은 국제 사회에서 생물자원의 경제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주고 있습니다.

올해 9월에는 세계자연보전연총회(WCC: World Convention Congress)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WCC는 IUCN에서 자연보전,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4년마다 개최하는 자연, 환경분야의 올림픽입니다. 이번 IUCN에서는 '자연의 회복력'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자연의 활용' 및 '자연에 대한 가치평가와 자연보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과 세계가 함께 자연을 지켜나가는 방법에 관한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총회에 맞춰 지역적색목록 범주에 준한 우리나라의 적색자료집 발간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는 야생생물의 멸종을 방지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멸종위험이 높은 생물을 선정하고 이들 종의 분포 · 서식 현황을 수록한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1966년 처음 발간한 자료집의 표지가 위기를 나타내는 붉은색이어서 'Red Data Book(적색자료집)'이라고 부르며, 일본,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IUCN의 권고에 따라 자국의 적색목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1년 처음으로 '조류', '양서 · 파충류', '어류'에 대한 적색자료집을 발간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관속식물', '포유류'를 발간했으며, 이어 '곤충I'과 '연체동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곤충I'과 '연체동물' 적색자료집이 발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인천대학교 배양섭 교수님, 강원대학교 이준상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나라 모든 생물에 대한 적색자료집이 조속히 완성되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야생생물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장
이상팔

차례

1. IUCN 적색목록 범주와 지역적색목록 범주 | 7 |
1.1. 전 세계적 범주와 기준 | 7 |
1.2. 지역 적색목록 범주와 기준, 평가 | 9 |

2. 우리나라 곤충강(5개 분류군) 연구 현황 | 11 |

3. 적색목록 선정과정 | 12 |
3.1 IUCN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한국 적색목록 선정 | 12 |

4. 적색목록 | 15 |
4.1. 개요 | 15 |
4.2. 범주별 종명세서 | 19 |

5. 연구진 | 164 |
5.1. 참여 연구진 | 164 |
5.2. 자문진 | 164 |
5.3. 집필진 | 165 |

6. 적색목록 분류체계 | 166 |

7. 참고문헌 | 169 |
7.1 적색목록집 집필 참고문헌 | 169 |
7.2 적색목록 선정 참고문헌 | 170 |

8. 찾아보기 | 177 |
8.1. 국명 찾아보기 | 177 |
8.2. 학명 찾아보기 | 178 |

RED DATA BOOK OF

ENDANGERED

INS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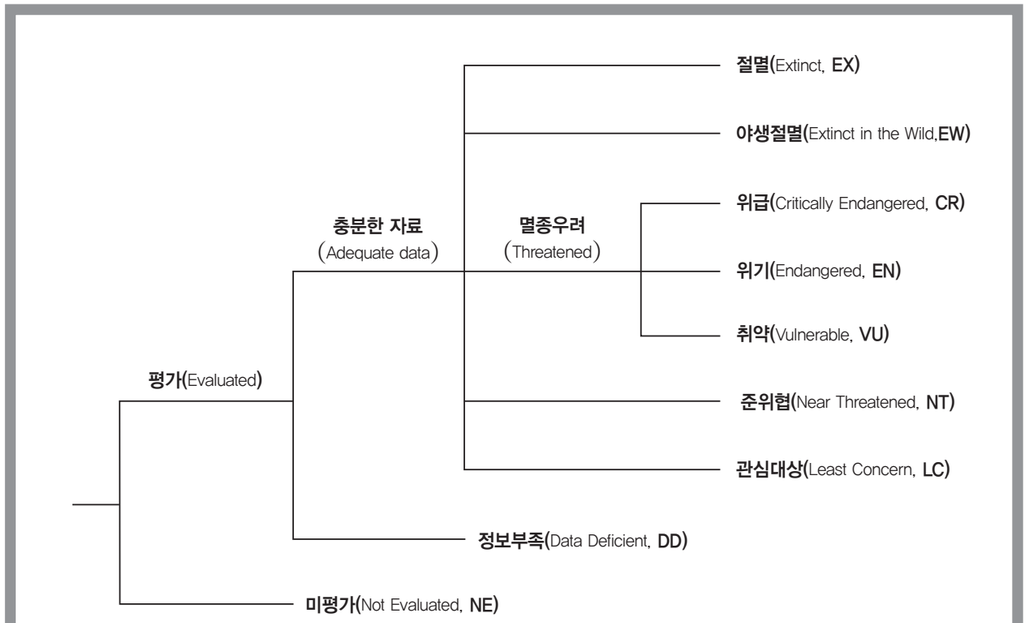
IN KOREA I

1. IUCN 적색목록 범주와 지역적색목록 범주

1.1 전 세계적 범주와 기준

전 세계적 IUCN 적색목록 범주와 기준은 6년간에 걸친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해진 뒤 1994년 처음 발행되었다. 1994년판 IUCN 범주와 기준은 종의 보전 상태를 평가할 때 객관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고자 개발되었고, 따라서 사용자들의 일관성과 이해를 증진하고자 했다. 그리고 1996년도판 적색목록 작성을 위해 많은 종을 대상으로 범주와 기준에 맞추어 평가해 문제점을 검토하고, 1998년부터 1999년에 걸쳐 검토가 진행되어 IUCN 적색목록 범주와 기준 3.1판(2001년)이 새롭게 발표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전 세계에 분포하는 분류군(미생물은 제외)을 9개 범주로 규정하도록 했다(그림 1). **절멸(Extinct, EX)**은 마지막 개체가 죽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야생절멸(Extinct in the wild, EW)**은 분류군이 자연 서식지에서는 절멸한 상태이나, 동물원이나 식물원 등지에서 생육 또는 재배하는 개체만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위급(Critically Endangered, CR)**은 가장 유효한 증거가 위급에 해당하는 기준 A부터 E까지의 (표 1) 그 어떤 하나와 일치한 상태로, 위급으로 평가된 분류군은 야생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기(Endangered, EN)**는 가장 유효한 증거가 위기에 해당하는 기준 A부터 E까지의 그 어떤 하나와 일치한 상태로, 야생에서 매우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한다. **취약(Vulnerable, VU)**은 가장 유효한 증거가 취약에 해당하는 기준 A부터 E까지의 그 어떤 하나와 일치한 상태로, 야생에서 높은 절멸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간주한다. 위급, 위기, 그리고 취약 범주를 합해 **멸종우려(Threatened)**라 하나, 멸종우려는 IUCN 적색목록 범주는 아니다.



〈그림 1〉 IUCN 적색목록 범주

준위협(Near Threatened, NT)은 기준에 따라 평가했으나, 현재에는 위급, 위기 그리고 취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 상태로, 가까운 장래에 멸종우려 범주 중 하나에 근접하거나 멸종우려 범주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는 상태이다. **관심대상(Least Concern; LC)**은 기준에 따라 평가했으나, 위급, 위기 그리고 취약 또는 준위협에 해당하지 않은 상태로, 널리 퍼져 있고, 개체수도 많은 분류군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정보부족(Data Deficient, DD)**은 확실한 상태 평가를 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분류군을 강조하기 위한 범주이다. 그리고 **미평가(Not Evaluated, NE)**는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아직 평가하지 않은 분류군에 적용하는 범주이다. 정보부족과 미평가 범주는 분류군의 위협 정도를 반영하지 않는다.

〈표 1〉 분류군이 속한 위협 범주(위급, 위기 또는 취약)를 평가하는데 사용하는 5종류 기준(A–E)에 대한 요약

사용가능한 기준 A–E	위급(CR)	위기(EN)	취약(VU)
A. 개체군 축소	지난 10년 또는 3세대에 걸쳐 측정된 하락		
A1	〉90%	〉70%	〉50%
A2, A3 & A4	〉80%	〉50%	〉30%

A1. 축소 원인들이 아래 사유 중 어떤 한 가지에 근거하거나 특정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역전되고, 이해되며, 중단되는 지난 과거에 관찰된, 추정된, 추리된 또는 추측된 개체군 축소;
(a) 직접 관찰
(b) 분류군에 적합한 풍부도 지수
(c) 점유면적(AOO), 출현범위(EOO) 그리고/또는 서식지 질의 하락
(d) 남획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수준
(e) 도입 분류군, 잡종화, 질병원, 오염원, 경쟁자나 기생자의 영향

A2. 축소 원인들이 A1에 따른 (a)에서 (e)까지의 사유 중 어떤 한 가지에 근거해 중단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역전되지 않는 지난 과거에 관찰된, 추정된, 추리된 또는 추측된 개체군 축소

A3. 미래에(최대 100년까지) 기준 A1에 따른 (a)에서 (e)까지의 사유 중 어떤 한 가지와 부합된 투영되거나 추측된 개체군 축소

A4. 축소 원인들이 기준 A1에 따른 (a)에서 (e)까지의 사유 중 어떤 한 가지에 근거해 중단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또는 역전되지 않으며, 시간 간격에 과거와 미래를 반드시 포함한(최대 100년간), 관찰된, 추정된, 추리된, 투영된 또는 추측된 개체군 축소

B. B1(출현범위) 또는 B2(점유면적) 중 한 가지 유형의 지리적 영역			
B1. 출현범위	〈 100km^2	〈 5,000 km^2	〈 20,000 km^2
B2. 점유면적	〈 10 km^2	〈 500 km^2	〈 2,000 km^2
그리고 다음 3가지 중 2에 해당			
(a) 심각한 조각화 또는 지역 수	= 1	≤ 5	≤ 10
(b) (i) 출현범위, (ii) 점유면적, (iii) 서식지 면적 그리고/또는 질, (iv) 지역 수 또는 아개개체군, (v) 성숙한 개체수의 지속적인 하락 (c) (i) 출현범위, (ii) 점유면적, (iii) 서식지 면적 그리고/또는 질, (iv) 지역 수 또는 아개개체군, (v) 성숙한 개체수의 극단적인 변동			
C. 소개체군 크기와 하락			
성숙한 개체수와 C1과 C2 중 하나	〈 250	〈 2,500	〈 10,000
C1. 최대 100년간 과거의 추정된 지속적인 하락	3년간 또는 1세대에 25%	5년간 또는 2세대에 20%	10년간 또는 3세대에 10%
C2. (a) 그리고/또는 (b)의 지속적인 하락			
(a i) 가장 큰 아개체군의 성숙한 개체수	〈 50	〈 250	〈 1,000
(a ii) 한 아개체군에 있는 성숙한 개체수 % =	90–100%	95–100%	100%
(b) 성숙한 개체수의 극단적인 변동			
D. 극소 또는 제한된 개체군			
(1) 성숙한 개체수 또는	〈 50	〈 250	〈 1,000
(2) 제한된 점유면적	na	na	전형적으로: AOO 〈 20km^2 또는 지역 수 ≤ 5
E. 정량 분석			
최소한으로 일어날 야생에서 절멸 확률을 나타냄	10년 또는 3세대 내에 (최대 100년간) 50%	20년 또는 5세대 내에 (최대 100년간) 20%	100년에 10%

1.2 지역적색목록 범주와 기준, 평가

IUCN 적색목록 범주와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절멸 위험에 처한 종들을 분류하기 위해, 즉 전 세계적 수준에서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따라서 일부 지역이나 국가 또는 지방에 분포하는 분류군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적색목록 범주와 기준 그리고 평가 방법이 개발되어 지침으로 보급되었다. 여기에서 지역이란 준 세계적인 지리적으로 규정된 면적으로, 대륙, 나라, 주 또는 주보다 작은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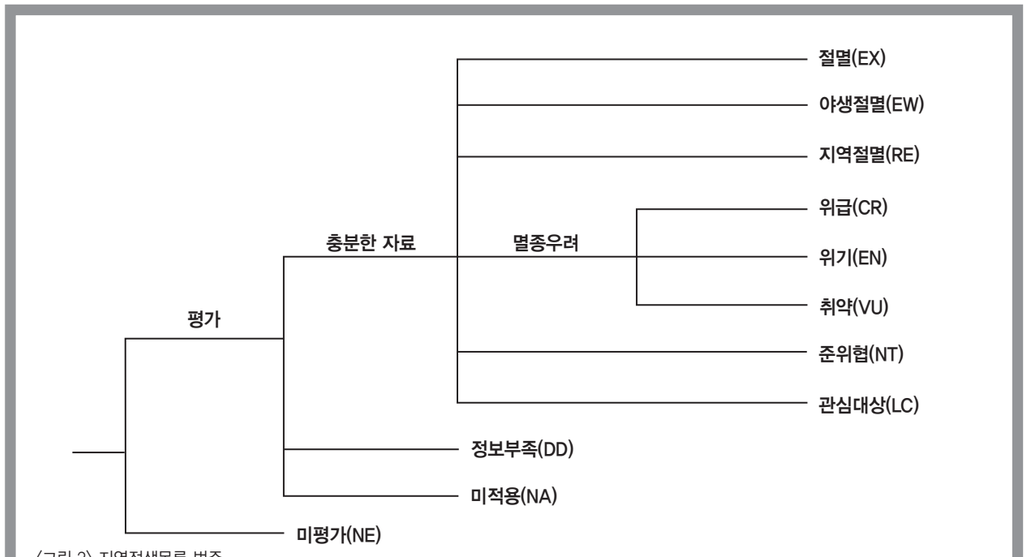
지역적색목록 범주와 기준 적용은 자연 영역 내에 있는 야생 개체군과 현지외 도입 결과 형성된 개체군의 평가로 한정해야만 한다. 지역의 주변부에만 분포하는 분류군은 평가 대상이나, 지역 내에서 좋은 환경 조건에서만 드물게 번식하나 주기적으로(지역적으로) 절멸하는 분류군은 평가 대상이 아니다. 또한, 현재 지역 바깥까지 분포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분류군과 지역 내에서 정착 단계를 보이는 분류군은 지역 내에서 몇 년 동안(전형적으로는 적어도 연속해서 10년간) 번식하기 전까지 지역적색목록 평가에서 고려하면 안 된다. 그러나 과거에 지역절멸(RE)로 고려되었으나, 자연적으로 지역에 다시 정착한 분류군은 번식이 일어난 첫 해 다음부터 평가할 수 있다.

이전에 지역절멸로 평가되었으나, 재도입된 분류군은 적어도 개체군 일부라도 직접적인 도움 없이 성공적으로 번식하고 자손이 생존 가능성을 보이는 순간 평가할 수 있다. 방문자 분류군은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나, 방랑자 분류군은 평가해서는 안 된다. 교배 또는 방문자 분류군을 지역적색목록 범주와 기준으로 평가할 때에는 전 세계 또는 대륙 개체군 비율에 대한 미리 조정된 역치값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개체군의 1% 미만으로 지역 내에서 지난 100년 이내에 나타났거나 현재 나타나는 종을 평가할 수도 있고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역치값을 명확하게 기록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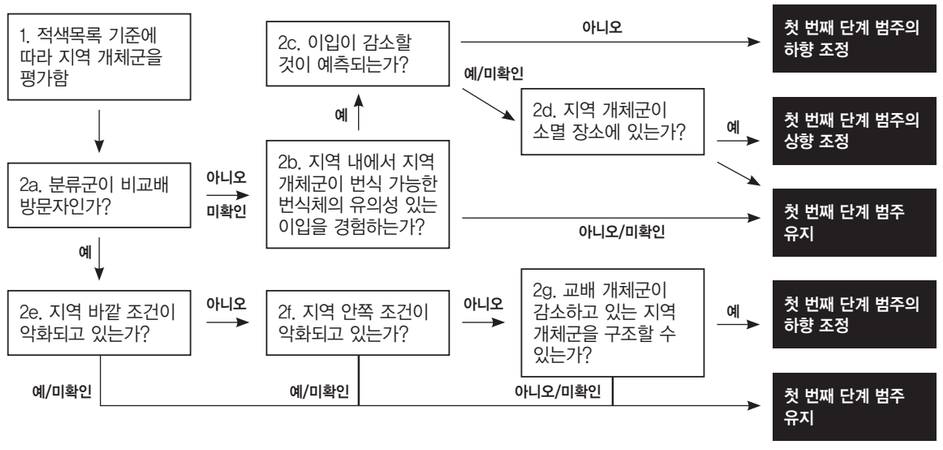
지역적색목록 범주에는 전 세계 적색목록에는 없는 지역절멸(RE)과 미적용(NA) 범주가 있는데, 전 세계 적색목록 범주를 그대로 사용한다(그림 2). **지역절멸(Regionally Extinct, RE)**은 지역 내에서 잠재적인 번식 능력을 가진 마지막 개체가 죽거나 지역 내 야생 상태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점에 대해 의심할 이유가 없을 경우, 또는 만일 이전에는 방문자 분류군이었으나 지역 내 야생 상태에서 마지막 개체가 죽거나 사라진 분류군에 적용된다. 지역절멸로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한계는 일반적으로 서기 1,500년 이후이다. 지역적색목록 범주는 반드시 지역을 포함해 자연 영역 전체에 걸쳐 야생에서 절멸된 분류군에만 적용되어야 하나, 과거 영역 이외의 곳에서 재배, 사육 또는 귀화 개체군(또는 개체군들)은 생존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만일 한 분류군이 전 세계적으로 절멸하였으나, 지역 내에 하나의 귀화 개체군으로 생존한다면, 지역 개체군은 반드시 현지외 도입 결과로 처리되어야만 하며, 결과적으로 적색목록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미적용(Not Applicable, NA)은 지역 수준에서 평가하기가 부적절한 것으로 간주되는 분류군에 해당하는 범주이다. 분류군이 야생 개체군이 아니거나 또는 지역 내 자연 영역에 속하지 않을 때 또는 지역의 방랑자일 때 미적용으로 평가된다. 이밖에 지역 내에 극도로 적은 개체가 존재하거나(즉, 평가 이전에 지역적색목록 평가에 사용된 역치값으로 분류군을 배제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또는 분류군의 분류학적 수준이 종 또는 아종보다 낮은 분류군일 경우에도 미적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적색목록 범주는 전 세계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데, 지역 내에서 교배하는 개체군과 교배하지 않는 비교배 개체군을 약간 달리 해 두 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그림 3). 교배 개체군의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는 IUCN 적색목록 기준을 분류군의 지역 개체군에 적용해 예비 범주로 평가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 내 절멸 위험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지역 바깥에 있는 동종 개체군의 존재와 상태에 따라 평가한다. 만일 분류군이 지역의 고유종이거나 또는 지역 개체군이 격리되어 있다면, 기준에 따라 정의된 적색목록 범주는 변경하지 않고 수용한다. 이와는 반대로, 만일 지역 바깥에 있는 동종의 개체군이 지역 절멸 위험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면, 평가된 예비 범주를 조정해야만 한다. 대부분 경우, 첫 번째 단계에서 평가된 범주를 하향 조정하게 되는데, 지역 내에 있는 개체군들은 지역 바깥에 있는 개체군들로부터 '구조 효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 바깥에서 지역 안으로 개체들이 유입됨으로써 절멸 위험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림 2〉 지역적색목록 범주



〈그림 3〉 지역 수준에서 IUCN 적색목록 범주 평가 과정을 보여주는 개념 체계도. 첫 번째 단계에서는 전 세계 개체군이 아닌 지역 개체군에서 추출한 자료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2. 우리나라 곤충강(5개 분류군) 연구 현황

2.1 나비목 곤충 주요 연구 현황

나비목[Lepidoptera: lepidos (=scale)와 pteros (=wing)에서 유래]은 나비류(Rhopalocera)와 나방류(Heterocera)를 포함한다.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종(種)수는 약 200,000종으로 총 동물계(動物界)의 약 20%에 달해 곤충강(昆蟲綱)중에서도 딱정벌레목, 벌목과 함께 가장 많은 종이 알려진 목(目)이다. 《한국곤충명집》(1994)에 나비목 곤충 2,760종에서 현재에는 73과 3702종이 기록되어 있다(백 등, 2010). 최근 《경제곤충시리즈》 2권, 《한국의 곤충시리즈》 9권이 나비목 곤충을 다루고 있는 등 국내 곤충류 중에서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인 분류군이다.

가. 나방류 Heterocera: Moths

나방류는 편의상 대시류(Macrolepidoptera)와 미소나방류(Microlepidoptera)로 구분, 취급되고 있다. 나방류는 모두 70여개과로 구분되고 있으며, 그 중 전자에는 박각시, 산누에나방과, 솔나방과, 밤나방과, 자나방과, 재주나방과, 불나방과, 독나방과등이 포함되며, 후자인 미소나방류에는 원시나방류를 비롯해 굴나방과, 뿔나방과, 잎말이나방과, 명나방과 등이 이들 그룹에 포함된다.

나. 나비류 Rhopalocera: Butterflies

나비류는 2상과 5과 23아과 124속 280종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는 나방류로 불리는 곤충이다. 분류체계상 나비목의 2개 상과(上科)로 구분 취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학자에 따라서는 1아목(Suborder)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자연보전협회(1981)는 24종의 나비류를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에 포함했으며, 한국자연보전협회(1989)는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도감》에서 19종을 제시했다. 신(1990)은 '희귀종' 19종을 제시했고, 김과 홍(1990)은 개체군의 크기가 줄어드는 채집금지 요망종'이라는 항목으로 9종을 선별했다. 환경처(1994)에서는 10종을 희귀종으로 2종을 감소추세종으로 기록했고, 환경부(2000)에서는 2종을 멸종위기종으로, 4종을 보호종으로 지정했다. 김(2002)은 5종을 멸종위기종으로, 5종을 희귀종으로 제시했다. 환경부(2004-2012)에서는 멸종위기종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급으로, 보호종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으로 지정한 바 있다. 최근 연구보고서(환경부, 2011)에서는 23종의 나비를 멸종위기종으로 선정한 사례가 있다.

2.2 집게벌레목 곤충 연구 현황

국내 5과 21종이 기록되어 있다(백 등 2010). 큰 집게모양의 미모(cerci)를 갖고 있는 곤충으로 성충은 전구식의 입틀을 가지고 있고, 보통 4개의 날개가 있으며, 앞날개는 짧고, 뒷날개는 막상이며 반원형이다. 주로 야행성(夜行性)이며 낮에는 틈바구니, 껍질이나 바위 밑과 같은 장소에 숨어 있으며, 주로 동물질을 먹고 살며 일부는 초식생활을 하는 것도 있다. 알은 땅속의 굴 안에 산란하는데 부화할 때까지 암컷이 조심스럽게 보호하며 성충태(成蟲態)로 월동한다.

분류학적 연구는 Moon and Kim(1985), Moon(1993)등의 학자에 의해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국내에 연구가 미진한 분류군이다. 전 세계에 1,500여종 기록되어 있다. 일본의 Red Data Book에는 집게벌레목에 속하는 1종이

DD(자료부족)으로 기록되어 있다.

2.3 밑들이목 곤충 현황

국내 2과 11종이 기록되어 있다(백 등 2010). 주로 습한 곳에 서식하는 밑들이목은 초본식물이나 관목, 키가 큰 풀 등에 서식한다. 파리, 나방, 벌, 여러 가지 유충, 거미 등 곤충류를 섭식하기도 하고 식물의 즙을 먹기도 하는데, 수컷에게 있어서 먹이는 특히 중요하다. 교미 전에 암컷에게 먹이를 선물 하는 교미행동을 하므로 수컷은 먹이를 찾으러 돌아다닌다. 국내에는 밑들이과에 9종, 각다귀붙이과에 2종이 알려져 있다. 일본의 《Red Data Book》에는 밑들이목에 속하는 6종이 DD(자료부족)으로 기록되어 있다.

2.4 바퀴목 곤충 현황

국내 바퀴목에는 바퀴아목, 흰개미아목, 사마귀아목 등 3개의 아목으로 구분되어 있다(백 등, 2010). 가주성바퀴와 흰개미의 경우 해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림성 바퀴류에 대한 생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국내에 바퀴아목은 8종이 알려져 있고, 흰개미아목은 1종이 기록되어 있다.

사마귀아목은 중형 또는 대형의 포식성 곤충으로서 머리는 작고 삼각형이며 여러 방향으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 전 세계에 약 1,800여 종이 기록되어 있고 400여 속으로 나뉜다. 이미 알려진 종의 90%가 열대와 아열대구에 분포하며, 우리 나라에서 분류학적 연구는 최근 Jeon et al.(1999)에 의해 진행되었고 7종이 기록되어 있다.

2.5 풀잠자리목 곤충 현황

풀잠자리목(目)은 신시군(neoptera) 내시류(endopterygota)에 속하고 대부분 익충으로 수서종은 담수어의 좋은 먹이가 되며, 육서종은 진딧물, 개미, 미소 곤충들을 포식하는 천적이다. 일반적으로 풀잠자리아목(Neuroptera), 광시아목(Megaloptera), 약대벌레아목(Raphidiodea) 등 3개 아목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각각 별개의 목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전 세계적으로 4,500 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40종이 알려져 있다.

3. 적색목록 선정 과정

곤충강에 속하는 5개분류군(나비목, 집게벌레목, 밑들이목, 바퀴목, 풀잠자리목)을 대상으로 총 140여개의 분류학적 정보가 수록된 문헌을 검색했다. IUCN에서 제시한 평가대상종의 정의가 '지역내에 번식하는 종'이므로 남한에 기록된 모든 종을 평가대상종으로 했으며, 적색목록 평가를 위해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발표된 각종 논문들(석박사 학위 논문 포함)과 보고서, 모노그래프 등을 참고했으며, 일부 표본 자료도 검토했다.

3.1 IUCN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및 한국 적색목록 선정

가. 위협 3범주(CR, EN, VU)와 준위협(NT)에 해당하는 종 선정기준

한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국산 곤충류의 위협범주 평가를 위한 수정된 분류기준(A–E)'을 작성했다. IUCN 지역적색목록 범주 및 기준의 활용지침(IUCN, 2003)에 제시된 아래 항목을 근거로 해 분포범위와 초기선별 등의 일부분을 수정했다.

- –평가지침의 세세한 정의 및 활용은 지역적색목록 담당자가 판단(예: 자연분포의 범위와 추출, 분류군 초기선별 등)
- –IUCN 점검표와 동일한 분류점검표를 따를 것을 권장, 그러나 다른 분류집단, 편차에 대한 차이점은 명확하게 선정

〈표 3〉 한국산 곤충류의 위협범주 평가를 위한 수정된 분류기준(A–E)

사용가능한 기준 A–E	위급(CR)	위기(EN)	취약(VU)	준위협(NT)
A. 개체군 축소	지난 10년 또는 3세대에 걸쳐 측정된 하락			
A1	≥90%	≥70%	≥50%	≥25%
A2, A3 & A4	≥80%	≥50%	≥30%	≥15%
A1. 축소 원인들이 아래 사유 중 어떤 한 가지에 근거하거나 특정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역전되며, 이해되며, 중단되는 지난 과거에 관찰된, 추정된, 추리된 또는 추측된 개체군 축소;				
(a) 직접 관찰				
(b) 분류군에 적합한 풍부도 지수				
(c) 점유면적(AOO), 출현범위(EOO) 그리고/또는 서식지 질의 하락				
(d) 남획의 실질적 또는 잠재적 수준				
(e) 도입 분류군, 잡종화, 질병원, 오염원, 경쟁자나 기생자의 영향				
A2. 축소 원인들이 **A1**에따른 (a)에서 (e)까지의 사유 중 어떤 한 가지에 근거해 중단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역전되지 않는 지난 과거에 관찰된, 추정된, 추리된 또는 추측된 개체군 축소.				
A3. 미래에(최대100년까지) 기준 A1에 따른 (a)에서 (e)까지의 사유 중 어떤 한 가지와 부합된 투영되거나 추측된 개체군 축소.				
A4. 축소 원인들이 기준 **A1**에 따른 (a)에서 (e)까지의 사유 중 어떤 한 가지에 근거해 중단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거나, 또는 역전되지 않으며, 시간 간격에 과거와 미래를 반드시 포함한, (최대100년간) 관찰된, 추정된, 추리된, 투영된 또는 추측된 개체군 축소.				
B. **B1**(출현범위) 또는 **B2**(점유면적) 중 한 가지 유형의 지리적 영역				
B1.출현범위 또는	〈500 ㎢	〈2,000 ㎢	〈10,000 ㎢	〈20,000 ㎢
B2.점유면적	〈10 ㎢	〈500 ㎢	〈2,000 ㎢	〈10,000 ㎢
그리고 다음 3가지 중 2에 해당				
(a) 심각한 조각화 또는 지역수	=1	≤5	≤10	≤20
(b) (i) 출현범위, (ii) 점유면적, (iii) 서식지 면적 그리고/또는 질, (iv)지역수 또는 아개개체군, 그리고 (v)성숙한 개체수의 지속적인 하락.				
(c) (i) 출현범위, (ii) 점유면적, (iii) 서식지 면적 그리고/또는 질, (iv) 지역 수 또는 아개개체군, 그리고 (v) 성숙한 개체 수의 극단적인 변동				
C. 소개체군 크기와 하락				
성숙한 개체수와 C1과 C2 중 하나	〈100	〈500	〈1,500	〈5,000
C1. 최대 100년간 과거의 추정된 지속적인 하락	3년간 또는 1세대에 25%	5년간 또는 2세대에 20%	10년간 또는 3세대에 10%	–
C2. (a) 그리고/또는 (b)의 지속적인 하락				
(a i) 가장 큰 아개체군의 성숙한 개체수	〈50	〈250	〈1,000	〈2,500
(a ii) 한 아개체군에 있는 성숙한 개체수 %	90–100%	95–100%	100%	
(b) 성숙한 개체수의 극단적인 변동				
D. 극소 또는 제한된 개체군				
(1) 성숙한 개체수	〈100	〈500	〈1,500	〈5,000
(2) 제한된 점유면적 또는 가까운 미래에 아주 짧은 기간 안에 CR, EN범주로 이동될 위협이 있는 위치의 수			전형적으로: AOO〈20㎢또는 지역 수 ≤5	지역 수 ≤10
E. 정량 분석				
최소한으로 일어날 야생에서 절멸 확률을 나타냄	10년 또는 3세대 내에 (최대 100년간) ≥50%	20년 또는 5세대 내에 (최대 100년간) ≥20%	100년에 ≥10%	–

나. 관심대상(LC)에 해당하는 종 선정기준

- IUCN 지역적색목록 범주 및 기준의 활용지침(IUCN, 2003)에 준해 선정(위급, 위기, 취약, 준위협에 해당하지 않는 종)
- 분류학적 출판물에서 희귀종으로 명시되어 있는 종
- 국지적 분포종, 표본정보가 희귀한 종
- 국외반출승인대상종(국립생물자원관, 2012) 중에서 출현범위, 점유면적, 개체군 크기 등의 정보가 확인되는 종
- 한국고유생물종(국립생물자원관, 2011) 중에서 출현범위, 점유면적, 개체군 크기 등의 정보가 확인되는 종

다. 정보부족(DD)에 해당하는 종 선정기준

- IUCN 지역적색목록 범주 및 기준의 활용지침(IUCN, 2003)에 준해 선정
- 분류학 출판물에서 표본이 거의 없는 종(1-2개체 표본만 확인된 종)
- 분류학 출판물에서 표본이 확인되지 않은 종
- 분류학 출판물에서 채집지가 확인되지 않은 종
- 분류학 출판물에서 기타 과거기록이 불분명한 종

라. 미적용(NA)에 해당하는 종 선정기준

- IUCN 지역적색목록 범주 및 기준의 활용지침(IUCN, 2003)에 준해 선정
- 국내에서 번식하지 않는 종
- 방문하는 종(미접 등)

마. 미평가(NE) 에 해당하는 종 선정기준

- 해충으로 분류, 기록되어 있는 종
- 전국분포 등 광역적으로 서식하는 종
- 개체군 규모 및 발생 밀도가 높은 종
- 북한에만 기록된 종
- 분류학적 출판물 중 최근 10년 안에 미기록, 신종으로 기록된 종 중에서 개체군에 대한 정보가 없는 종
- 분포기록, 개체군 규모에 대한 정보가 없는 종

바. 절멸3범주(EX, EW, RE)에 해당하는 종 선정 기준

IUCN 지역적색목록 범주 및 기준의 활용지침(IUCN, 2003)에 준했으나, 절멸 3범주로 평가된 종은 없었다.

4. 적색목록

4.1 개요

한국산 곤충강에 속하는 5개분류군(나비목, 바퀴목, 집게벌레목, 풀잠자리목, 밑들이목)을 대상으로 한국 지역 적색목록 선정 연구를 수행한 결과, 3,703종 중에서 위급(CR)범주 6종, 위기(EN)범주 15종, 취약(VU)범주 41종, 준위협(NT)범주 10종, LC(관심대상)범주 78종, 정보부족(DD)범주 230종, 미적용(NA)범주 20종, 미평가(NE)범주 3,303종으로 분류되었다.

〈표 4〉 분류군별 IUCN 범주

구분	CR (위급)	EN (위기)	VU (취약)	NT (준위협)	LC (관심대상)	DD (정보부족)	NA (미적용)	NE (미평가)
Lepidoptera 나비목	6	15	41	10	60	228	20	3237
Blattaria 바퀴목	0	0	0	0	5	0	0	11
Dermaptera 집게벌레목	0	0	0	0	4	2	0	13
Neuroptera 풀잠자리목	0	0	0	0	7	0	0	33
Mecoptera 밑들이목	0	0	0	0	2	0	0	9
소계	6	15	41	10	78	230	20	3,303
3,703	72				308		3,323	

4.2. 적색목록

위급 (Critically Endangered, CR) 6종

큰수리팔랑나비	*Burara striata* (Hewitson)
북방점박이푸른부전나비	*Maculinea kurentzovi* Sibatani Saigusa et Hirowatari
산부전나비	*Plebejus subsolanus* (Eversmann)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Shijimaeoides divina* (Fixsen)
봄어리표범나비	*Melitaea britomartis* Assmann
상제나비	*Aporia crataegi* (Linnaeus)

위기 (Endangered, EN) 15종

참알락팔랑나비	*Carterocephalus dieckmanni* Graeser
은줄팔랑나비	*Leptalina unicolor* (Bremer et Grey)
남방남색꼬리부전나비	*Arhopala bazalus* (Hewitson)
남방남색부전나비	*Arhopala japonica* (Murray)
우리녹색부전나비	*Favonius koreanus* Kim
산꼬마부전나비	*Plebejus argus* (Linnaeus)

북방까마귀부전나비	*Satyrium latior* (Fixsen)
민무늬귤빛부전나비	*Shirozua jonasi* (Janson)
풀표범나비	*Argynnis aglaja* (Linnaeus)
산꼬마표범나비	*Boloria thore* (Hübner)
산굴뚝나비	*Hipparchia autonoe* (Esper)
여름어리표범나비	*Melitaea ambigua* Ménétriès
담색어리표범나비	*Melitaea protomedia* Ménétriès
암어리표범나비	*Melitaea scotosia* Butler
홍줄나비	*Seokia pratti* (Leech)

취약 (Vulnerable, VU) 41종

꽃팔랑나비	*Hesperia florinda* (Butler)
돈무늬팔랑나비	*Heteropterus morpheus* (Pallas)
산수풀떠들썩팔랑나비	*Ochlodes similis* (Leech)
수풀떠들썩팔랑나비	*Ochlodes venatus* (Bremer et Grey)
흰점팔랑나비	*Pyrgus maculatus* (Bremer et Grey)
꼬마흰점팔랑나비	*Pyrgus malvae* (Linnaeus)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	*Maculinea teleius* (Bergsträsser)
작은녹색부전나비	*Neozephyrus japonicus* (Murray)
깊은산부전나비	*Protantigius superans* (Oberthür)
까마귀부전나비	*Satyrium w-album* (Knoch)
쌍꼬리부전나비	*Spindasis takanonis* (Matsumura)
암고운부전나비	*Thecla betulae* (Linnaeus)
쐐기풀나비	*Aglais urticae* (Linnaeus)
오색나비	*Apatura ilia* (Denis et Schiffermüller)
가락지나비	*Aphantopus hyperantus* (Linnaeus)
왕은점표범나비	*Argynnis nerippe* C. et R. Felder
은점표범나비	*Argynnis niobe* (Linnaeus)
큰은점선표범나비	*Boloria oscarus* (Eversmann)
작은은점선표범나비	*Boloria perryi* (Butler)
큰표범나비	*Brenthis daphne* (Bergsträsser)
시골처녀나비	*Coenonympha amaryllis* (Stoll)
도시처녀나비	*Coenonympha hero* (Linnaeus)
봄처녀나비	*Coenonympha oedippus* (Fabricius)
외눈이지옥나비	*Erebia cyclopius* (Eversmann)
외눈이지옥사촌나비	*Erebia wanga* Bremer
금빛어리표범나비	*Euphydryas davidi* (Oberthür)
공작나비	*Inachis io* (Linnaeus)
제삼줄나비	*Limenitis homeyeri* Tancré
왕줄나비	*Limenitis populi* (Linnaeus)
흰뱀눈나비	*Melanargia halimede* (Ménétriès)
밤오색나비	*Mimathyma nycteis* (Ménétriès)
중국황세줄나비	*Neptis tshetvericovi* Kurentzov
신선나비	*Nymphalis antiopa* (Linnaeus)
갈구리신선나비	*Nymphalis l-album* (Esper)
들신선나비	*Nymphalis xanthomelas* (Esper)
참산뱀눈나비	*Oeneis mongolica* (Oberthür)
함경산뱀눈나비	*Oeneis urda* (Eversmann)
붉은점모시나비	*Parnassius bremeri* (Felder)
꼬리명주나비	*Sericinus montela* Gray
멧노랑나비	*Gonepteryx maxima* Butler
기생나비	*Leptidea amurensis* (Ménétriès)

준위협 (Near Threatened, NT) 10종

큰주홍부전나비	*Lycaena dispar* (Haworth)
큰점박이푸른부전나비	*Maculinea arionides* (Staudinger)
담흑부전나비	*Niphanda fusca* (Bremer et Grey)
조흰뱀눈나비	*Melanargia epimede* (Staudinger)
개마별박이세줄나비	*Neptis andetria* Fruhstorfer
각시멧노랑나비	*Gonepteryx aspasia* (Ménétriès)
풀흰나비	*Pontia daplidice* (Linnaeus)
부엉이산누에나방	*Eriogyna pyretorum* (Westwood)
멋쟁이박각시	*Hyles gallii* (Rottemburg)
털보꼬리박각시	*Sphecodima caudata* (Bremer et Grey)

4.2. 범주별 종명세서

큰수리팔랑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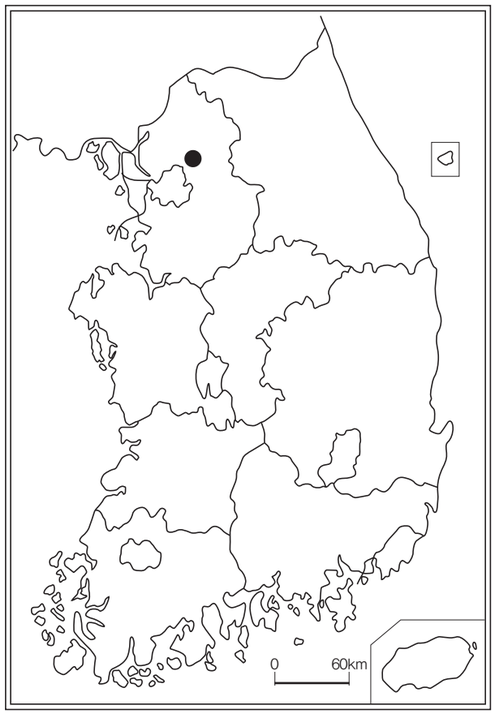
Burara striata (Hewitson, 1867)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팔랑나비과 (Hesperidae)

영명: –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IUCN 범주: –

● 요약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광릉에만 분포한다. 그동안 이 종의 관찰기록이 적어 아직 생태적 습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최근 5년간 관찰기록이 매우 적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43–47㎜이다. 생김새는 독수리팔랑나비와 닮았으나 훨씬 크고, 날개 아랫면의 바탕에 청록색 기가 두드러진다. 날개 윗면은 갈색인데, 날개의 기반부에 황갈색 비늘가루가 많아 조금 밝다. 수컷은 제1b, 2, 3실에 굵고 짧은 가로 선이 나타나는데, 암컷에게는 없다. 아랫입술수염은 눈에 띄게 황갈색을 띤다.

● 생태학적 특징

우리나라 유일한 서식지인 광릉수목원은 낙엽활엽수림이 많은 곳으로 잘 보존된 산림 생태계에서 사는 것으로 보인다. 한낮에는 거의 모습을 볼 수 없으나 해뜨기 전과 해가 질 무렵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재빨리 날아다니면서 참나무 진을 찾는다. 이때 수컷은 일정 공간을 날아다니는 텃세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워낙 개체수가 적어서 이 밖의 생태 자료가 없으나 낮 2시경 수목원 내에 있는 산림박물관 벽에 붙으려고 날아온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이는 독수리팔랑나비처럼 낮에 물기를 찾으러 날아온 것으로 보인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기도 포천시 광릉수목원에서만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남획이나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CR A1(a, d); B1ab(i); C2a(i)

남한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포천시 광릉수목원에 분포했는데, 최근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CR A1(a, d); B1ab(i); C2a(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Burara striata is found only in Gwangneung of Gyeonggi-do in Korea. Only few sightings have been made, and its ecological features are not identified yet. The number of observations of it are extremely low over the past 5 year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북방점박이푸른부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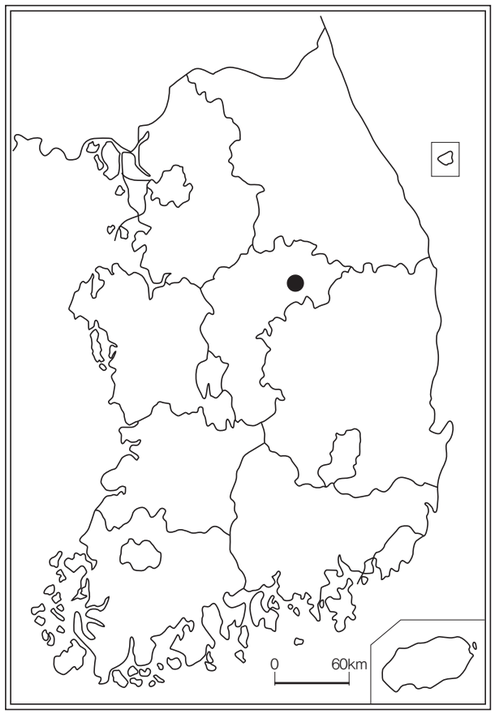
Maculinea kurentzovi Sibatani Saigusa et Hirowatari, 1994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부전나비과 (Lycaen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최근까지 강원도와 충북의 일부 낮은 산지에만 분포했지만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종은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와 생태적 공통점이 거의 같으나 이 종이 더 건조한 초지에 적응한 것이 다르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1–36㎜이다.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와 매우 닮았으나 그보다 조금 작고, 날개 윗면의 색이 대체로 더 검다. 또 날개의 아랫면의 검은 점무늬가 개체가 작음에도 더 크다. 특히 외횡대의 검은 점무늬 중에서 제2실의 검은 점이 기부 쪽에 더 가깝다.

● 생태학적 특징

건조한 관목림 주변에 사는데, 나무가 적은 양지바른 풀밭에서 산다. 수컷은 활발하게 날아다니나 암컷은 덜 활발하다. 암수가 오이풀, 솔체꽃, 엉겅퀴 등의 꽃에서 꿀을 빤다. 암컷은 먹이식물의 꽃봉오리 속 깊이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최근까지 강원도 영월, 충북 단양 등지에서 확인되었지만, 현재 이 지역에서 보이지 않는다.

● 위협 요인

무분별한 표적 채집으로 인한 남획과 서식지의 환경 변화 때문에 개미와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CR A1(a, d); C2a(i)

무분별한 채집과 초지의 축소 때문에 서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현재 확인된 개체군 수는 2개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CR A1(a, d); C2a(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Maculinea kurentzovi was resident of low-lying grasslands of Gangwon-do and Chungcheongbuk-do until recently, but sightings are no longer reported. Though having a lot of ecological similarities with *Maculinea teleius*, this species has evolved an adaptation to dry grassland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산부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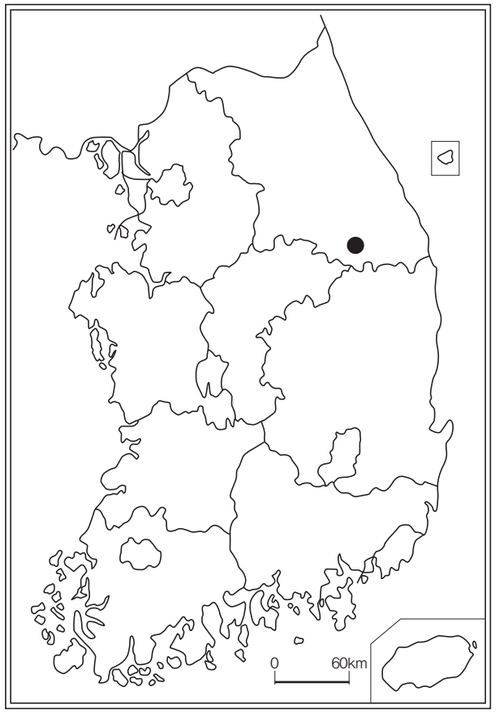
Plebejus subsolanus (Eversmann, 1851)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부전나비과 (Lycaen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남한에서 유일하게 강원도 태백산에서만 보이는데, 최근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서식지가 주차장으로 변하고, 등산로로 넓혀지는 등의 파괴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28–33㎜이다. 산꼬마부전나비와 매우 닮았으나 대체로 크고, 날개색이 군청색에 가까워 밝은 청색인 산꼬마부전나비와 다르다. 외연의 흰색 털은 산꼬부전나비 쪽에서 발달한다.

● 생태학적 특징

북한의 한랭한 지역에서는 강가 주변의 습한 풀밭에서 살지만 남한에서는 높은 산지의 계곡 주변 풀밭에서 산다. 수컷은 활발하게 날면서 암컷을 탐색하러 다닌다. 암수가 기린초, 개망초, 엉겅퀴, 갈퀴나물, 꼬리풀 등 여러 꽃에서 꿀을 빤다. 암컷은 먹이식물 뿌리 근처의 마른 잎이나 줄기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최근까지 강원도 태백산에서 확인되었을 뿐이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무분별한 표적 채집으로 인한 남획과 서식지의 급속한 환경 변화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CR A1(a, d); C2a(i)

남한에서 유일하게 경기도 포천시 광릉수목원에 분포했는데, 최근 발견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CR A1(a, d); B1ab(i); C2a(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Plebejus subsolanus has been seen only at Mt. Taebaek of Gangwon-do in South Korea, but has not been reported lately. The construction of parking lots and expansion of hiking trails are presumed to blame for destruction of its habitat.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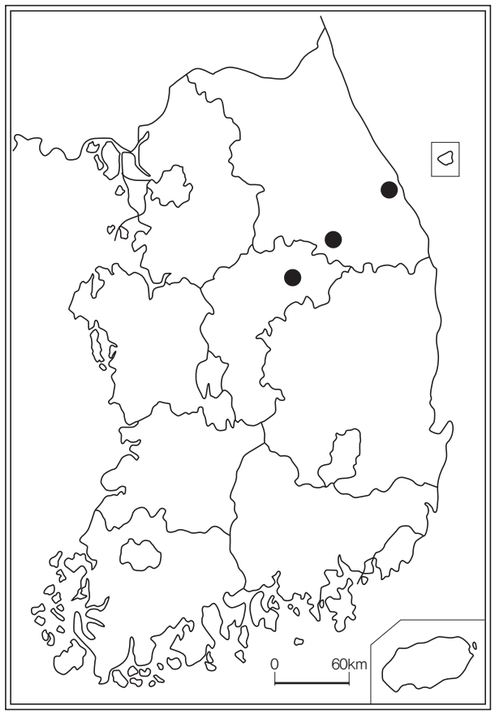
Shijimaeoides divina (Fixsen, 1887)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부전나비과 (Lycaenidae)

영명: –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
IUCN 범주: –

● 요약

남한에서 강원도 삼척 등 일부 지역에만 분포한다. 과거에는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북도 등 분포역이 넓었으나 최근 초지의 축소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1–36㎜이다. 날개 윗면은 회청색, 아랫면은 회백색 바탕이다. 날개 아랫면에는 검은 점무늬들이 발달하는데, 대체로 외연과 나란하게 앞날개에서 2열, 뒷날개에서 3열로 나타난다. 때때로 이 점무늬가 가로로 길어지는 변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뒷날개 바탕에는 회청색 무늬가 조금 나타나며, 아외연부에 붉은색 무늬가 이어진다. 암컷은 수컷보다 조금 크고, 앞날개 윗면 중실과 외횡선을 따라 검은 점이 각 방에 하나씩 나타난다.

● 생태학적 특징

야산과 경작지 주변의 묘지와 같은 풀밭에서 산다. 수컷은 오전에 빠르게 날아다니는데, 푸른부전나비와 회령푸른부전나비에 비해 더 빠르고 직선적이며, 무더운 낮에는 그늘진 곳에서 쉬고, 오후 3시부터 천천히 날면서 꽃 꿀을 빨거나 암컷을 찾아다닌다. 암컷은 비교적 천천히 날지만 더운 한낮에는 그늘에서 쉰다. 암수가 개망초, 엉컹귀, 고삼, 딸기류, 토끼풀, 꿀풀 등에서 꽃 꿀을 빤다. 오후에 짝짓기하며, 암컷은 꽃봉오리에 알을 하나씩 낳는데, 활짝 핀 꽃에는 거의 낳지 않는다. 고삼은 5월 말에서 6월까지 꽃이 피는데, 이 시기에 애벌레 기간을 보내고 곧바로 번데기가 되기 때문에 벌초시기를 무사히 피할 수 있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 삼척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무분별한 표적 채집으로 인한 남획과 서식지의 산림화에 따른 환경 변화 때문에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CR A1(a, d); C2a(i)

무분별한 채집과 초지의 축소 때문에 서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현재 확인된 개체군 수는 2–3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CR A1(a, d); C2a(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Shijimaeoides divina occurs only in limited areas, such as Samcheok of Gangwon-do. Previously, its distribution covered a vast range, including Gyeonggi-do, Choongcheong-do, and Gyeongsangbuk-do. Nowadays, its range has been drastically diminished because of disappearing grassland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봄어리표범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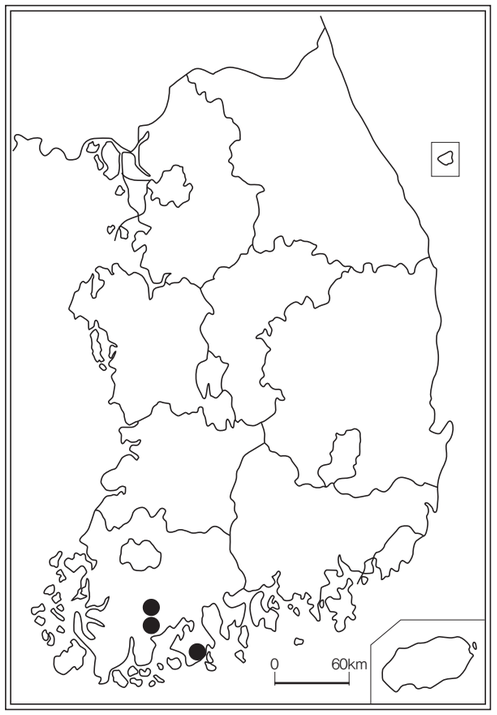
Melitaea britomartis (Assmann, 1847)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Assmann's Fritillary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여름어리표범나비처럼 전국에 흔했으나 여름어리표범나비의 경우처럼 개체수가 급감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4–40㎜이다. 생김새나 무늬의 패턴은 여름어리표범나비와 닮았으나 조금 작고, 대체로 바탕색이 더 짙고 날개의 흑갈색 무늬가 넓어 전체가 어두워 보인다. 특히 날개 윗면의 기반부가 거의 검게 보인다. 또 뒷날개 외연부의 반원 모양의 노란 무늬는 이 종이 크기가 작음에도 더 크다. 이따금 날개의 흑갈색 무늬가 뭉쳐져 거의 검은 개체변이가 나타난다. 암컷은 수컷보다 날개가 크고, 외연이 둥글다.

● 생태학적 특징

낮은 산이나 들 주위의 숲 가장자리 풀밭이나 묵밭 주위에서 산다. 풀밭을 낮게 날면서 개망초, 엉겅퀴, 토끼풀, 큰까치수염 등의 여러 꽃에서 꿀을 빤다. 수컷은 물가에 잘 앉으며, 쉴 새 없이 빠르게 날면서 암컷을 탐색하러 다닌다. 맑은 날에는 트인 곳의 잎 위에 앉아 텃세를 부리기도 한다. 암컷은 천천히 날면서 풀잎 위에서 날개를 폈다 접었다 한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최근까지 전라남도 화순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CR A1(a, d); C2a(i)

전라남도 화순 등지의 초지에 국지적으로 분포했으나 최근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산지의 산림화로 초지가 축소되어 서식지의 질적인 저하가 나타나고, 기후변화가 한랭성인 이 종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현 범위(3개소 이하)가 좁다. 따라서 CR A1(a, d); C2a(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Melitaea britomartis was a common species nationwide as the other species like *Melitaea ambigua*, and has suffered rapid decline for the same reason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상제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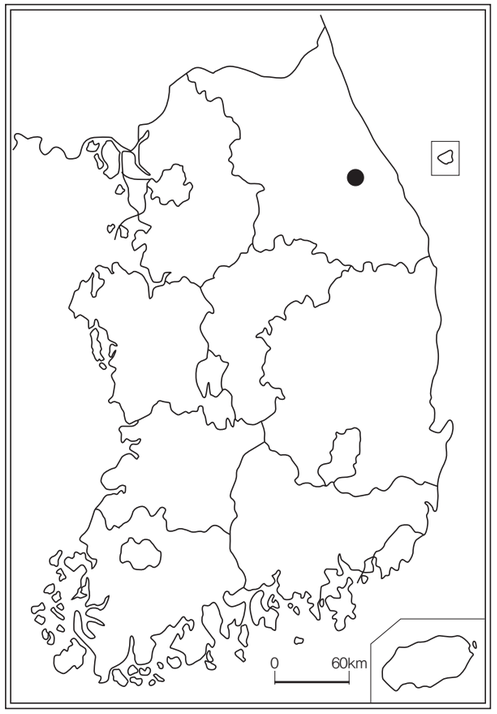
Aporia crataegi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흰나비과 (Pieridae)

영명: Black-veined White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급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의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국지적으로 확인된다. 차가운 기후대의 관목림에 살며, 애벌레는 사과나무 등의 과수의 잎을 먹는다. 최근까지 강원도 영월군 쌍룡 지역에 적은 개체군이 남아 있었으나 현재 거의 절멸 상태로 보인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급이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52-59㎜이다. 날개는 순백색으로 맥이 검고, 외연부가 검다. 특히 앞날개의 횡맥이 짙고 뚜렷하다. 수컷은 외연의 검은색이 세모꼴로 나타난다. 암컷도 이 부분이 수컷과 같은 생김새이나 검은 비늘가루가 많아 바탕색이 수컷보다 덜 대비되어 보인다.

● 생태학적 특징

농경지와 가까운 산지에서 보이는데, 강원도 영월의 석회암 지역과 삼척 일대의 밝은 관목림에서 산다. 수컷은 물가에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남한에서 이런 행동을 관찰한 예는 아직 없다. 암수 모두 엉겅퀴, 조뱅이, 토끼풀 등에서 꿀을 빤다. 남한에서는 개체군의 크기가 작아 어른벌레가 무리 지어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하기 어려우나 북부의 추운 지역에서는 가능하다. 1990년 6월 초에 느릅나무 잎 위에서 짝짓기 하는 것을 관찰한 적이 있다. 암컷은 먹이식물의 새싹에 5-60개의 알을 덩어리로 촘촘하게 낳아 붙인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현재 강원도 삼척 지역에서 몇 차례만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식지의 파괴와 남획이 개체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나비의 최대 서식지였던 강원도 영월군 창원3리에는 현재 발견되는 개체는 없다.

● 평가 결과: CR A1(a, d); C2a(i)

남한 내 서식지가 2-3군데에 불과하고, 개체수가 너무 적어 유전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며, 산지의 산림화에 따라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R A1(a, d); C2a(i)로 평가했다.

● 보존 현황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으로 지정 ·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Aporia crataegi resides in shrubby areas with cold temperatures. Its larva feeds on the leaves of the Rosaceae family trees. This species seems to be almost extinct, the though a very few populations continue to persist until recently in the Ssangryong area of Yeongwol-gun, Gangwon-do.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참알락팔랑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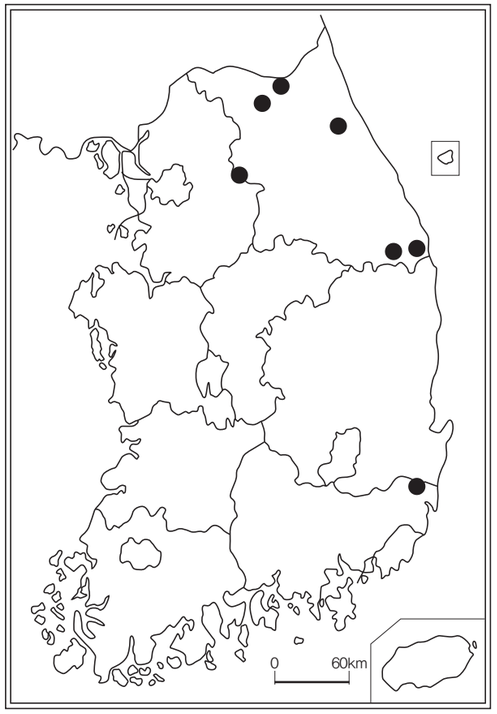
Carterocephalus dieckmanni Graeser, 1888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팔랑나비과 (Hesper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경기도와 강원도의 높은 산지에 분포한다. 서식지는 산지의 풀밭인데, 최근 산지의 산림화가 가속화되면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26–32㎜이다. 날개 윗면은 검은 바탕에 앞날개에 7–8개, 뒷날개에 2개의 흰 점무늬가 있다. 연모는 흰색과 검은색 털로 되어 있는데, 날개끝에는 흰 무늬만 나타난다. 날개 아랫면은 앞날개가 흑갈색, 뒷날개가 적갈색 바탕에 은색 점들이 윗면보다 훨씬 많이 나타난다. 특별히 앞날개 전연 중앙이 함몰되어 곡선을 이룬다. 암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암컷의 날개 외연이 둥글어지고, 배가 통통해 차이가 난다.

● 생태학적 특징

높은 산지 숲 가장자리 풀밭에서 사는데, 양지바른 산길에서 발견된다. 쥐오줌풀, 개망초, 꿀풀 등의 꽃에 잘 날아온다. 수컷은 새똥이나 축축한 땅바닥에 잘 앉으며, 산길 주변의 양지바른 길가에서 벼과식물의 잎 끝에 앉아 텃세를 부린다. 암컷은 먹이식물의 잎 뒤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상남도, 경기도, 강원도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비교적 관찰이 쉬운 편에 속한다.

● 위협 요인

산지의 급격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의 감소가 큰 위협 요인이다.

● 평가 결과: EN A1(a, d)

산지의 지속적인 산림화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의 감소는 물론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N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Carterocephalus dieckmanni is distributed in high altitude areas of mountains in Gyeonggi-do and Gangwon-do. This species inhabits the grasslands in mountainous regions, but is on a decline with the overgrowth of mountain forest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은줄팔랑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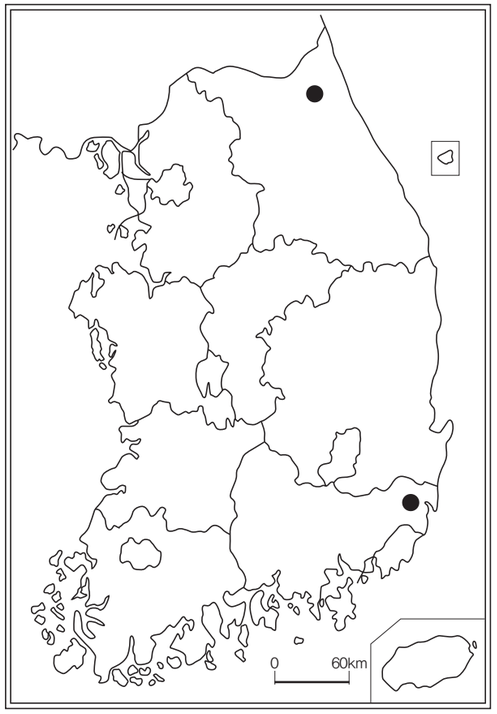
Leptalina unicolor (Bremer et Grey. 1853)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팔랑나비과 (Hesper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분포한다. 서식지는 개울가 키 높은 초지인데, 최근 인위적인 하천 정비가 빈번해지면서 서식지가 줄어들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1–35㎜이다. 날개의 생김새는 돈무늬팔랑나비와 닮았다. 앞날개 윗면은 아무 무늬가 없어 조금 다르지만 날개 아랫면은 무늬가 매우 다르다. 특히 뒷날개 아랫면에는 황갈색 바탕 중앙에 은백색 줄무늬가 가로로 길게 나타나는데, 봄형에서는 뚜렷하지만 여름형은 이 부분이 엷은 황갈색으로 변해 바탕색과 거의 같아진다. 암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암컷의 날개 외연이 둥글어지고, 배가 통통해 차이가 난다.

● 생태학적 특징

강가, 철도 주변, 습지, 산 계곡 주변의 풀밭에서 산다. 돈무늬팔랑나비처럼 날면서 토끼풀, 매화발발도리, 개망초 등의 흰 꽃에 잘 앉는다. 수컷은 헤집듯이 키 높은 풀밭 사이를 누비면서 암컷을 탐색하는데, 가끔 물가의 축축한 장소에 앉는다. 암컷은 풀에 앉아 잘 날지 않으며, 먹이식물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소수의 개체군이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EN A1(a, d); B1ab(i); C2a(i)

산지의 지속적인 산림화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의 감소는 물론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점유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출현범위가 5개 지역 이하다. 따라서 EN A1(a, d); B1ab(i); C2a(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Leptalina unicolor is distributed locally in Gangwon-do and Gyeongsangbuk-do. Its habitat is turf areas with tall grass near streams. Lately, frequent civil works on river banks caused the decrease of its habitat, which is leading to the rapid decline of this specie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남방남색꼬리부전나비

Arhopala bazalus (Hewitson, 1862)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부전나비과 (Lycaenid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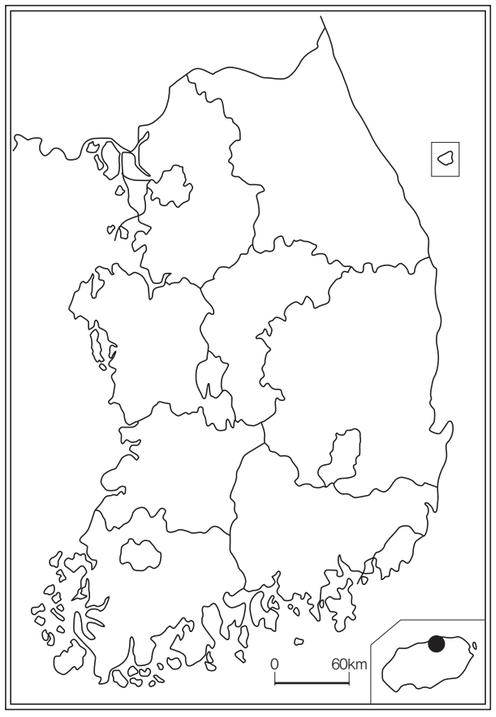
영명: Powdered Oakblue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유사종인 남방남색부전나비보다 더 희귀하며, 제주도 상록수림대에 일부의 개체군이 분포한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6㎜ 안팎이다. 전체적인 생김새는 남방남색부전나비와 거의 닮았으나 대체로 조금 큰 편이고, 뒷날개 항각에 뚜렷한 꼬리모양돌기가 있어 다르다. 또 날개의 청색 바탕색의 색이 더 짙다. 날개끝의 갈고리 모양으로 뾰족한 부분이 이 종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생태학적 특징

사는 장소는 상록의 종가시나무가 많은 남해안 일대와 제주도로 생각되나 어디에서고 발견된 일이 매우 적다. 주(2002)는 북제주군 조천면 선흘리에서 서식하며, 생태학적 특징은 남방남색부전나비와 거의 같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 · 서, 2012). 그러나 간혹 중부지방 및 중부 도서지방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볼 때 비례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

● 개체군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조천면 선흘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식지의 파괴가 개체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EN A1(a, d); B1ab(i)

남방남색부전나비보다 개체수가 훨씬 적은 이 종은 현재 유일하게 제주도 선흘 지역에만 분포하는데, 만약 이곳이 개발된다면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N A1(a, d); B1ab(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Arhopala bazalus is much rarer than its kindred species, *Arhophala japonica*. It occurs only in evergreen forests of Jeju-do. The number of populations has declined because of the destruction of its habitat due to encroaching urban development.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남방남색부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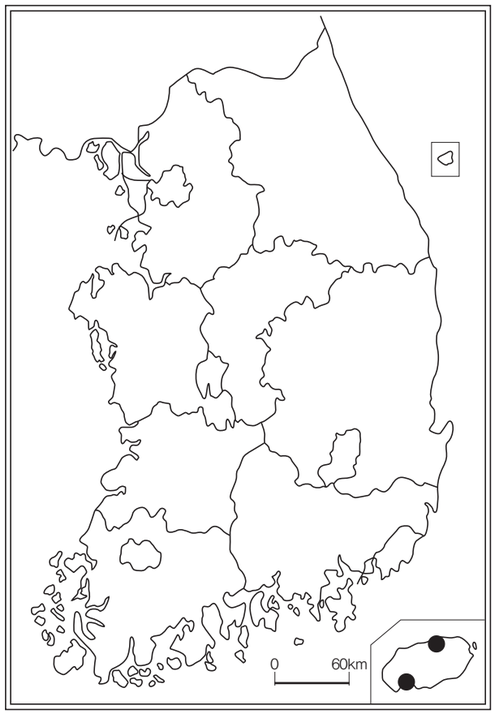
Arhopala japonica (Murray, 1875)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부전나비과 (Lycaen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선흘 지역에만 분포한다. 먹이식물 종가시나무가 풍부한 상록수림인 이 지역 주변이 골프장 등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3–38㎜이다. 날개끝은 뾰족하고 갈고리 모양이다. 날개 윗면은 외연부가 짙고 굵고 검은 테가 나타나는데, 이를 빼면 짙은 청색을 띤다. 날개 아랫면은 짙은 흑갈색 바탕에 검은 띠무늬가 중횡대와 외횡대에 점무늬가 이어진 것처럼 나타난다. 외횡대와 중횡대 사이는 조금 색이 밝다. 암컷은 수컷보다 날개 윗면 외연부의 검은 테두리 무늬가 넓으며, 앞날개에서는 중실 바깥까지 넓혀져 있다.

● 생태학적 특징

종가시나무가 군락을 이룬 상록수 숲에서 산다. 활동 영역이 좁아서인지 서식지를 벗어나는 일이 드물다. 앉는 위치는 햇빛이 잘 비치는 5–6m 높이의 나뭇잎 위이며, 그곳에서 일광욕을 하기도 하고, 수컷끼리 강하게 점유행동을 한다. 암컷은 맑은 날 정오에서 오후 2시경까지 낮은 위치의 그늘로 내려와서 알을 하나씩 낳는 경우가 많다. 11월 초에 약 20마리가 햇살이 비치는 따뜻한 장소에서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을 관찰했는데, 겨울을 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조천면 선흘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선흘 지역의 상록수림에 산다. 이들 지역에 골프장 등의 인위적 조성 및 방목지 등으로 상록수림의 면적이 감소하는 것이 위협요인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EN A1(a, d); B1ab(i)

현재 유일한 이 종의 서식지인 제주도 선흘 지역의 개발과 인위적 토지이용 등으로 상록수림이 파괴되면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서식면적이 협소하다. 따라서 EN A1(a, d); B1ab(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Arhopala japonica is distributed only in Seonheul of Jeju-do in Korea. The habitat is composed of evergreen forests, and its neighboring area is highly likely to succumb to human development, such as golf course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우리녹색부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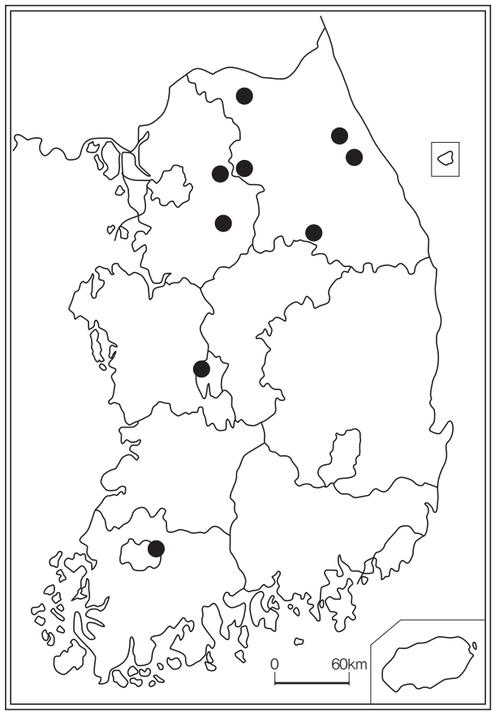
Favonius koreanus Kim. 2006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부전나비과 (Lycaen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우리나라 나비 중 유일한 고유종으로, 한반도 중부의 일부 산지에만 분포한다. 애벌레의 먹이식물은 굴참나무인데, 산림의 천이가 진행됨에 따라 이 종의 분포가 차츰 축소하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0–34㎜이다. 날개의 색과 무늬는 넓은띠녹색부전나비와 닮았으나 수컷의 날개 외연의 검은 테두리가 두드러지게 굵다. 또 날개의 바탕색도 더 짙어 다르다. 암컷은 날개 윗면이 흑갈색이고, 횡선 부근이 조금 엷어 보인다. 날개 아랫면은 짙은 갈색 바탕이고, 항강에 검은 점과 붉은 무늬가 나타나며, 꼬리모양돌기가 있다.

● 생태학적 특징

참나무가 많은 활엽수림 산지에 산다. 수컷은 계곡이나 참나무가 많은 장소의 정상에서 볼 수 있다. 수컷의 점유행동은 깊은산녹색부전나비와 암붉은점녹색부전나비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데, 암붉은점녹색부전나비는 나무로 둘러싸인 더 넓고 움푹한 곳을 선호하고, 이 종과 깊은산녹색부전나비는 밝게 트인 곳을 좋아한다. 다만 깊은산녹색부전나비가 나무의 상층을 점유한다면 이 나비는 중간 이하를 점유한다. 암컷이나 유생기에 대한 정보는 아직 없다. 그동안 이 나비가 채집되지 않았던 이유가 아직 명확하지 않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서식지 범위가 매우 협소하고 개체수가 많지 않음에도 무분별한 남획과 서식지를 마구 훼손함 따라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EN A1(a, d)

서식지가 감소하고, 우리나라 고유종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남획 등의 우려가 매우 높다. 또 점유면적이 500㎢ 이하이며, 10개 이하의 지역에 분포하므로 EN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Favonius koreanus is the only butterfly species endemic to Korea, and is distributed in some mountains of the central sec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Its foodplant is *Quercus variabilis* (Fagaceae). With the succession of forest habitats, the distribution range of this species is on a decline.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산꼬마부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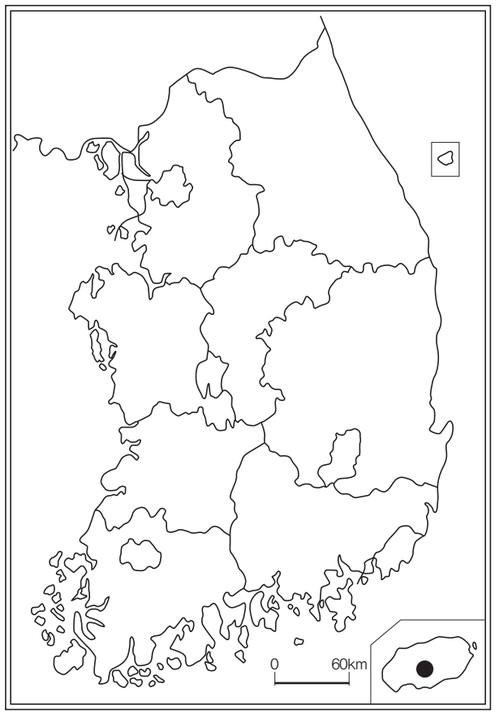
Plebejus argus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부전나비과 (Lycaenidae)

영명: Silver-studded Blue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제주도 한라산 해발고도 1,700m의 화산암이 많고 축축한 지역에만 산다. 최근 개체수가 조금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2-40㎜이다. 수컷의 날개 윗면은 밝은 청색, 암컷은 흑갈색으로 다르지만 아랫면은 암수 모두 밝은 은회색이다. 날개 아랫면 기부를 중심으로 하늘색 비늘가루가 많아져 이 부분이 조금 파랗게 보인다. 암컷은 수컷과 달리 아랫면의 바탕색이 짙어지는데, 개체에 따라 거의 적갈색을 띠기도 한다. 한편 닮은 종인 부전나비(*Plbejus argyronomone*)가 있는데, 이 종은 뒷날개의 외연부의 검은 점들 속에 청색 무늬가 없어 이 부분에 무늬가 있는 부전나비와 차이가 난다.

● 생태학적 특징

한라산 1,500m 이상 1,700m 이하의 풀밭에 살며, 화산암이 많고 습한 장소에 많다. 수컷은 습지에 모여 물을 빨아먹는다. 토끼풀, 호장근, 금방망이, 곰취, 갈퀴덩굴, 백리향 등의 여러 꽃에 모여 꿀을 빤다. 맑은 날이면 수컷은 암컷을 찾아 낮게 날아다니다가 풀 위에서 앉아 날개를 펴고 약하게나마 점유행동을 한다. 암컷은 화산암 위나 주변 마른 풀잎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한라산 1,300m 부근의 물이 흐르는 화산암 지대에서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한라산 고산지에만 국한해 서식하고 있는데, 특별한 서식지 환경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 때문에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EN B1ab(i)

현재 제주도 한라산 1,300m의 화산암 지대에만 서식하며, 기후변화 등의 요인에 따른 개체수의 감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EN B1ab(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Plebejus argus has been seen only at Mt. Halla over 1700m of Jeju island in South Korea. Recently, population has been reduced due to climate change.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북방까마귀부전나비

Satyrium latior (Fixsen, 1887)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부전나비과 (Lycaenid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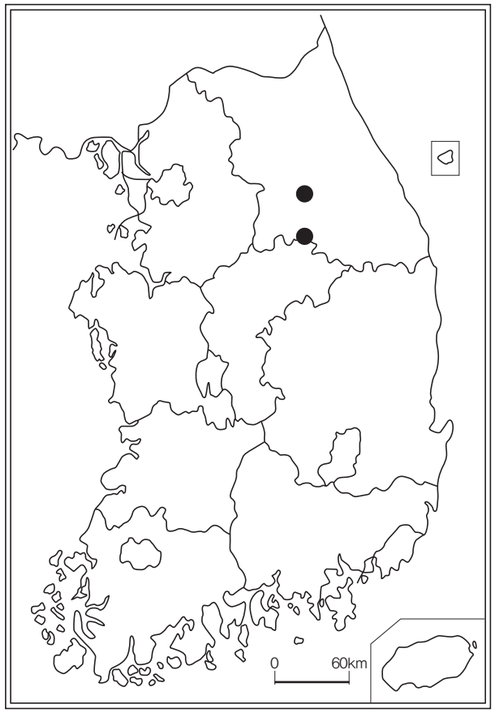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 영월과 정선 일대의 관목림에 분포한다. 기후변화, 인간의 땔감 변화와 함께 산지의 천이 과정 때문에 개체수가 차츰 감소하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27–32㎜이다. 날개 윗면은 흑갈색 바탕에 뒷날개 항각 부위에 붉은 점무늬가 나타나고, 짧은 꼬리모양돌기가 나타난다. 날개 아랫면은 적갈색 바탕에 앞날개에서는 짧게 끊어지는 외횡선이 있고, 뒷날개에서는 항각 부위에서 'W'자가 되는 앞날개와 같은 모양의 외횡선이 있다. 특히 뒷날개에서는 아외연부에 붉은색 무늬가 길게 나타나고, 항각 부위에 청색 무늬가 넓게 나타난다. 수컷은 앞날개에 중실 위 전연부에 타원형의 갈색 무늬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수컷에서만 보이는 성표라고 한다.



● 생태학적 특징

느릅나무가 많은 차가운 기후의 낙엽활엽수림 계곡이나 건조한 관목림에서 산다. 수컷은 능선이나 산길에서 점유행동을 강하게 한다. 암수 모두 개망초에서 꽃 꿀을 빤다. 암컷은 1m 이하의 먹이식물 가지나 줄기의 홈, 틈에 알을 하나 또는 수십여 개를 낳는다.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강원도 영월군 일부 지역에서는 참까마귀부전나비와 함께 산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 영월과 정선 지역에 국한해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식지의 산림화에 따른 환경 변화 때문에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EN A1(a, d)

서식지가 감소해 점유면적이 500㎢ 이하이고, 5개 이하의 지역에만 분포하므로 EN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Satyrium latior is distributed an shrubs in Yeongwol and Jeongseon of Gangwon-do. The numbers of this species are on a decrease due to climate change and a shift in fuel resources for household heating, together with the succession of forest tree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민무늬귤빛부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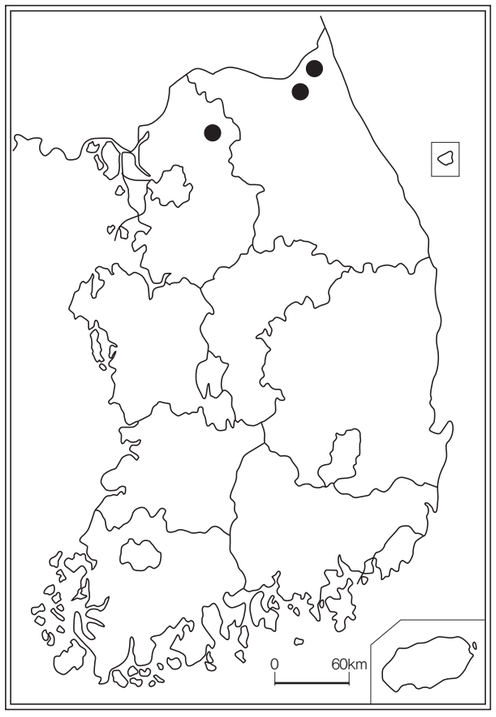
Shirozua jonasi (Janson, 1877)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부전나비과 (Lycaen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 일부 지역의 낙엽활엽수림대에 산다. 특이하게 개미와 공생 관계에 있다. 산림의 천이에 의해 개미의 감소와 함께 이 종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0–33㎜이다. 날개는 주황색 바탕에 뚜렷한 무늬가 나타나지 않는데, 날개 아랫면에서 횡맥과 외횡선에서 적갈색 띠무늬가 있으며, 횡맥 무늬는 매우 짧다. 뒷날개 항각에는 꼬리모양돌기가 가늘고 길게 나타난다. 앞날개 윗면의 날개끝에는 검은색 띠무늬가 짙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수컷보다 암컷에서 뚜렷하지만 이 무늬만으로 암수를 구별하는 것은 위험하다.

● 생태학적 특징

참나무가 극상인 숲 가장자리에 사는데, 먹이가 되는 진딧물과 개미가 사는 좁은 범위에서만 보인다. 오전 11시 이후 높은 나무 위를 힘없이 날아다니면서 능선을 가로지르거나 정상을 지나치기도 한다. 암컷은 오후 2–3시경 먹이식물 주위를 배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번 볼 수 있었던 자리에서 계속 보기 힘들어서 희귀한 종에 속하는데, 앞으로 생태학적 특징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다.

● 위협 요인

개미와 공생 관계에 있으며, 개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개체수의 감소는 기후변화 이외의 뚜렷한 징후를 찾을 수 없다.

● 평가 결과: EN A1(a, d); B1ab(i)

개미와 공생관계가 있는데, 급속한 산림화와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생태 환경이 변하고 있어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N A1(a, d); B1ab(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Shirozua jonasi is a resident of deciduous broad-leaved forests, and is known to maintain a unique mutualism with specific species of ants. The decline of these forests seems to be related to the succession cycle of forest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풀표범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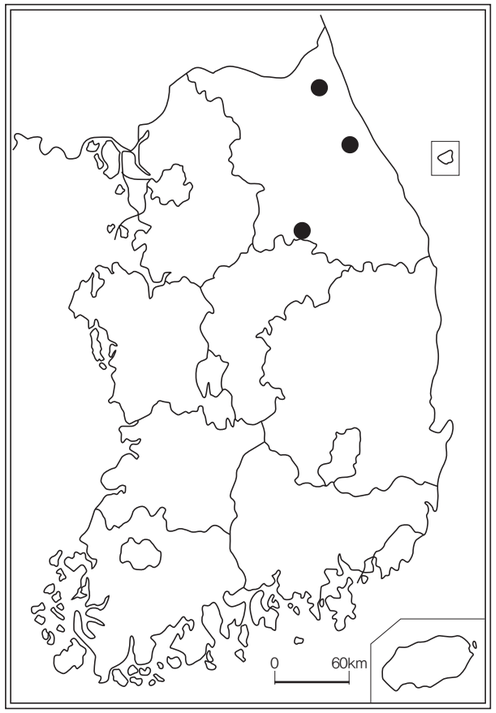
Argynnis aglaja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Dark Green Fritillary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우리나라에서 지리산 이북의 높은 산지에 있는 풀밭 환경에 분포한다. 기후변화와 산지의 초지가 감소하는 영향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49–54㎜이다. 날개 윗면은 은점표범나비, 왕은점표범나비와 큰 차이가 없으나 날개 아랫면은 조금 다르다. 특히 뒷날개 아랫면의 바탕색은 풀색을 더 짙게 띤다. 특히 은점의 형태가 다른데, 중실에 은점 무늬가 하나 더 나타나고, 아외연부 각 방에 은점이 줄지어 나타나 차이가 난다. 수컷은 날개 윗면에 굵은 성표가 나타나지 않아 암수구별이 쉽지 않으나 암컷이 수컷보다 크고, 날개 외연이 둥글어 보인다.

● 생태학적 특징

강원도 한랭한 지역의 풀밭에 사는데,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보인다. 과거에는 지리산 이북에 점점이 분포했으나 요즈음 매우 보기 힘들어졌다. 추운 지역에 사는 관계로 여름잠을 자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꼬리풀, 엉겅퀴, 꿀풀 등 여러 꽃을 즐겨 찾으며, 수컷은 물가에 잘 앉는다. 9월 초에 암컷은 먹이식물 둘레의 다른 물체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 일부 고산지에서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EN A1(a, d)

강원도 일부 고산지의 초지에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산지의 산림화로 초지가 축소되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한랭성인 이 종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현 범위(5개소 이하)가 좁다. 따라서 EN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Argynnis aglaja inhabits grasslands of high-altitude mountains north of Mt. Jiri in latitude. Both climate change and disappearance of grasslands are blamed for the rapid decline of this specie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산꼬마표범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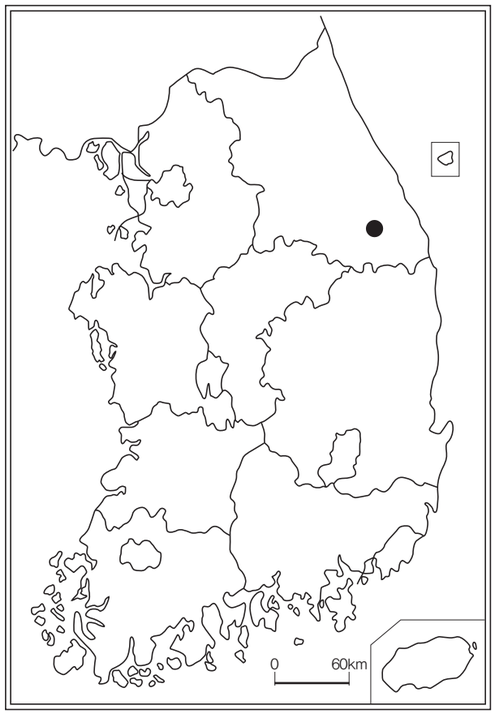
Boloria thore (Hübner, 1803)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 태백산 일부의 높은 산지에 분포한다. 서식지는 낙엽수림 가장자리의 초지로, 최근 이들 서식지가 나무가 무성해지면서 사라지고 있으며, 현재 거의 보이지 않는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0–33㎜이다. 큰은점선표범나비보다 조금 작다. 날개 윗면은 적갈색 바탕에 굵고 검은 점무늬가 퍼져 있다. 특히 기반부가 거의 검게 보인다. 날개 아랫면은 앞날개에서 날개 윗면의 무늬가 그대로 나타나지만 색이 조금 엷고, 뒷날개는 윗면과 전혀 다르게 희미한 벽돌색을 띠며, 노란 무늬와 함께 중횡대와 아외연부에 회색 무늬, 외횡대에 원 무늬들이 특징이다. 암수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암컷의 날개폭이 조금 넓고, 외연이 둥글다.

● 생태학적 특징

산지의 낙엽활엽수림 가장자리에 살며, 어수리, 민들레, 엉겅퀴 등의 꽃에 날아와 꿀을 빤다. 오전 중에는 잎 위에서 날개를 펴고 앉아 일광욕을 한다. 수컷은 계곡 길을 따라 빠르게 날아다니는데, 암컷을 만나면 배우행동을 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다. 암컷은 졸방제비꽃과 엉켜 말라죽은 고사리 잎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최근까지 강원도 오대산 지역에서 확인되었을 뿐이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EN A1(a, d)

강원도 오대산 지역에 분포하나 최근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산지의 초지가 축소되어 서식지의 질적인 저하가 나타나고, 기후변화가 한랭성인 이 종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현 범위(1개소 이하)가 좁으며, 과거에 비해 확인되는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따라서 EN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Boloria thore occurs in high altitude areas of Mt. Taebaek in Gangwon-do, inhabiting the grasslands on the edge of deciduous forests. Lately, with the overgrowth of these trees, its habitat is disappearing and this species is presumed to be almost extinct now.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산굴뚝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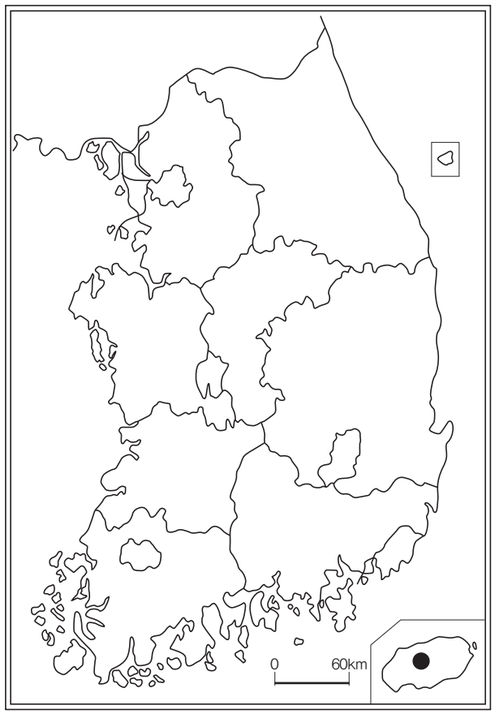
Hipparchia autonoe (Esper, 1783)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급
IUCN 범주: –

● 요약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제주도 한라산에만 분포한다. 서식지는 한라산의 키 작은 풀밭인데, 최근 조릿대의 침입으로 파괴되고 있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이고,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I급이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56–60㎜이다. 날개 윗면은 짙은 흑갈색, 아랫면은 노란색을 조금 머금은 흑갈색 바탕이다. 날개의 외횡대에 검은 뱀눈모양 무늬가 2개가 있고, 그 안쪽으로 흰 띠가 앞뒤날개에 이어진다. 날개 아랫면은 윗면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암컷은 수컷보다 더 크고, 배가 두드러지게 굵은 점만 차이가 날 뿐 수컷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생태학적 특징

남한에서는 한라산 1,300m부터 암석이 노출된 풀밭에 산다. 윗세오름(1,700m)에서 백록담에 이르는 건조한 풀밭에 많다. 수컷은 화산암 위에 앉아 쉬다가 백리향, 솔체꽃, 송이풀, 꿀풀 등에서 꿀을 빤다. 바람이 불면 멀리 나나 보통 한번 날아도 5–6m 날아가 뚝 떨어지듯이 앉는다. 암컷은 먹이식물의 잎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남한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한라산 1,300m 이상의 초지에만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서식지가 한라산 고산지로 조릿대의 급속한 팽창 때문에 벼과인 먹이식물의 분포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EN A1(a, d); B1ab(i); C2a(i)

남한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한라산 1,300m 이상의 초지에 분포한다. 제주조릿대가 번성해 먹이식물인 벼과로 이루어진 초지가 축소되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한랭성인 이 종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EN A1(a, d); B1ab(i); C2a(i)로 평가했다.

● 보존 현황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멸종위기야생동물 I급으로 지정 ·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Hipparchia autonoe is seen only on Mt. Halla of Jeju-do in South Korea, where it inhabits short-turf grasslands. Lately, its population is on a decline, as its habitat is being destroyed following the encroachment of *Sasa borealis*. This species is designated as a Natural Monument of Korea.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여름어리표범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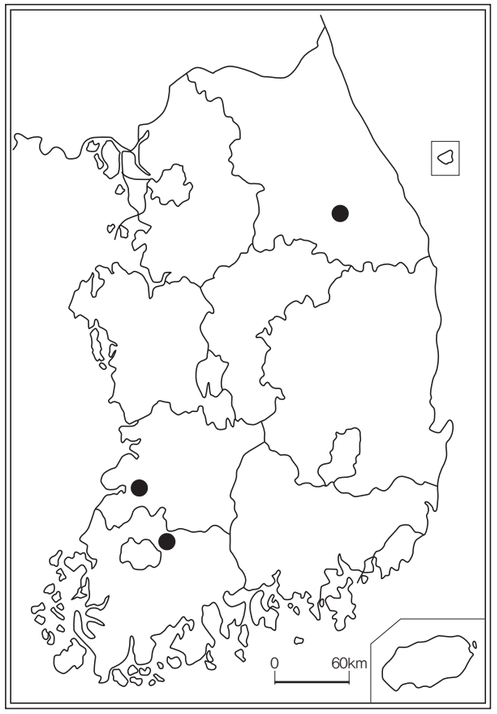
Melitaea ambigua Ménétriès, 1859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1990년대까지만 해도 한반도 내륙에 흔했으나 최근 급격하게 개체군이 줄어들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보인다. 서식지는 나무가 별로 없는 초지인데, 초지의 축소 때문에 이 종이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4–42㎜이다. 날개 윗면은 적갈색 바탕에 검은 띠무늬가 그물처럼 나타나는데, 외연에 띠 모양으로 두드러진다. 노란 연모는 각 맥에서 적갈색을 띠어 마치 붉은 점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날개 아랫면은 대체로 윗면의 바탕색보다 엷은 색인데, 뒷날개 중횡대가 넓게 노란색으로 보이고, 외연부에 반원 모양의 노란 무늬가 나타난다. 암컷은 수컷보다 날개가 크고, 외연이 둥글다.

● 생태학적 특징

산지의 숲 가장자리 풀밭이나 묵밭 주위에서 산다. 풀밭을 낮게 날면서 개망초, 엉겅퀴, 냉초, 큰까치수염 등의 꽃에서 꿀을 빤다. 수컷은 물가에 앉으며, 빠르게 날면서 암컷을 탐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암컷은 활발하지 않아 잘 볼 수 없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최근까지 전라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었을 뿐이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EN A1(a, d); C2a(i)

전라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의 초지에 국지적으로 분포했으나 최근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산지의 산림화로 초지가 축소되어 서식지의 질적인 저하가 나타나고, 기후변화가 한랭성인 이 종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현 범위(5개소 이하)가 좁다. 따라서 EN A1(a, d); C2a(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Melitaea ambigua was a common species across mainland Korea until the 1990's. Its range has sharply diminished to a few localities in Gangwon-do nowadays. This species is a resident of grasslands without tall trees, and the disappearance of grasslands seems to be responsible for the decline of this specie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담색어리표범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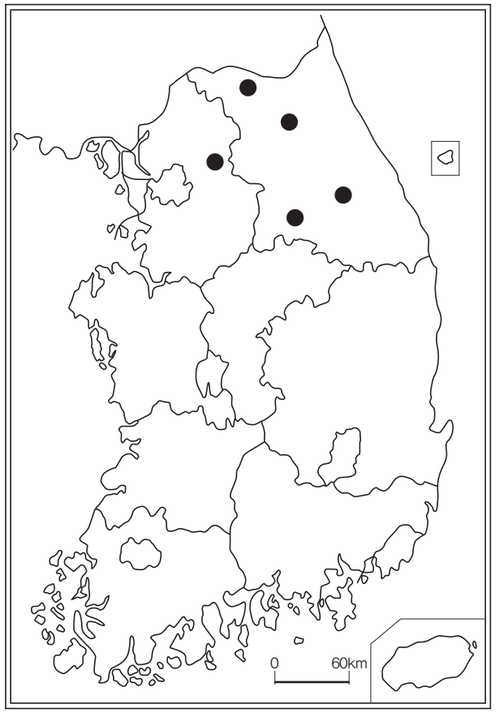
Melitaea protomedia Ménétriès, 1859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봄어리표범나비와 여름어리표범나비의 경우처럼 개체수가 급감했다. 다만 아직 이 종의 분포 면적이 봄어리표범나비와 여름어리표범나비보다 더 넓은 것이 확인된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1–38㎜이다. 여름어리표범나비와 생김새가 닮았으나 날개 윗면의 흑갈색 무늬가 더 짙다. 날개 아랫면의 바탕은 흑갈색 무늬가 많아져 더 복잡한 그물 구조를 이룬다. 특히 뒷날개 아랫면 외횡대의 제1b, 2, 3, 4실에는 검은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이 무늬는 이 종에서만 나타난다. 암컷은 수컷보다 날개가 크고, 외연이 둥글다.

● 생태학적 특징

산지의 풀밭에서 사는데, 제주도에서는 제주시 애월에 있는 산지 풀밭에서 발견되었다. 이밖에 강원도 인제 등지의 높은 산지의 풀밭에서 이따금 보인다. 풀밭 위를 재빨리 날아다니면서 큰까치수염, 엉겅퀴, 개망초, 쥐오줌풀 등의 꽃에서 꿀을 빤다. 수컷은 활발해 쉽게 관찰되며, 습기 있는 땅바닥에 잘 앉는다. 이에 비해 암컷은 활발하지 않아 잘 발견되지 않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와 제주도 애월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EN A1(a, d)

산지의 산림화로 초지가 축소되어 서식지의 질적인 저하가 나타나고, 기후변화가 한랭성인 이 종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현 범위(10개소 이하)가 좁고, 확인되는 개체수가 감소했다. 따라서 EN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Melitaea protomedia has undergone a sharp decrease just like the previous two species. However, the distribution range of this species is found to be more extensive than the previous two specie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암어리표범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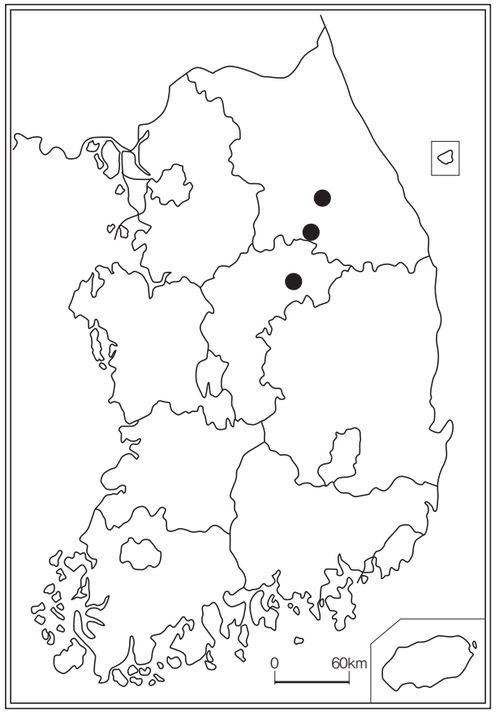
Melitaea scotosia Butler, 1878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 영월 지역의 관목림 주위 초지에 분포한다. 최근 땔감 변화에 따른 숲의 발달로 서식지의 분포 범위가 감소함에 따라 차츰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8–43㎜이다. 우리나라 어리표범나비 중에서 가장 크다. 날개는 짧고 폭이 넓은 생김새이다. 특히 뒷날개 아랫면은 적갈색과 노란 무늬가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나고 흑갈색 줄무늬가 복잡하게 나타난다. 중실에는 반달 모양의 노란 무늬가 두드러지며, 외연부의 반원 모양의 무늬는 크다. 때때로 암컷은 날개 윗면이 흑갈색기가 많아져 색이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다.

● 생태학적 특징

산지의 관목림이나 풀밭에서 사는데, 강원도 영월 지역처럼 나무가 크지 못하는 석회암 지대에 산다. 낮게 날면서 엉겅퀴, 큰까치수염, 조뱅이, 하늘나리, 개망초에 잘 날아온다. 수컷은 대형 표범나비처럼 잘 날아다닌다. 암컷은 천천히 날면서 먹이식물의 잎 뒤에 한번에 100개 이상의 알을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충청북도와 강원도 영월 등지의 몇 지점에서만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EN A1(a, d)

산지의 산림화로 초지가 축소되어 서식지의 질적인 저하가 나타나고, 기후변화가 한랭성인 이 종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현 범위(10개소 이하)가 좁고, 확인되는 개체수가 감소했다. 따라서 EN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Melitaea scotosia is distributed in shrubby areas of Yeongwol, in Gangwon-do. Lately, the shift in fuel resources for household heating and the growth of forest trees are leading to the decrease of this specie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홍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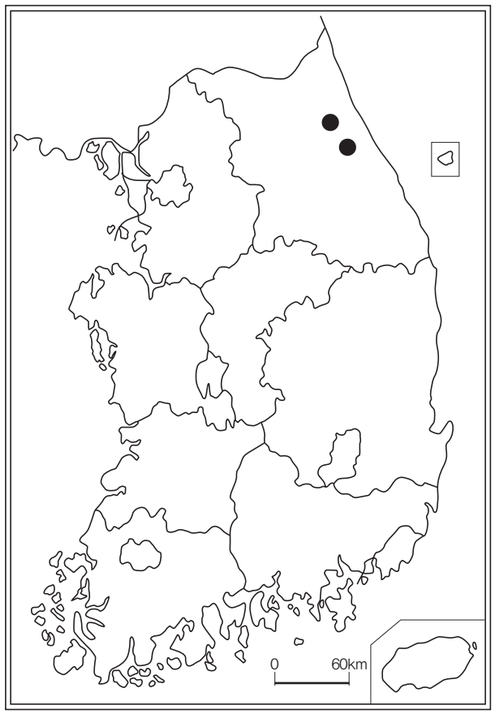
Seokia pratti (Leech, 1890)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Exceptional Admiral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현재 강원도 오대산과 설악산의 잣나무가 자라는 자연림에만 분포한다. 애벌레는 우리나라 나비 중 유일하게 침엽수인 잣나무를 먹는다. 서식지가 국립공원 내인데도 과도한 채집 때문에 수가 줄어들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57–60㎜이다. 날개 윗면은 흑갈색 바탕에 황갈색 점무늬와 홍색 줄무늬가 있다. 특히 외횡대에 있는 홍줄 무늬 때문에 이 나비의 이름이 생겼다. 날개 아랫면은 전체적으로 어두운데, 날개 윗면의 무늬와 거의 같지만 노란색 무늬가 전체적으로 많아 조금 밝게 보인다. 특히 뒷날개 기부에는 노란 바탕에 검은 점 3개가 보인다. 암컷은 수컷보다 크고, 흰 띠의 폭이 넓은데, 수컷에서는 이 부분이 노란데 비해 암컷에서는 희다.

● 생태학적 특징

설악산과 오대산의 침 · 활엽수가 모두 있는 천연림에 가까운 숲에 산다. 수컷은 오전 중 절 마당과 주차장, 도로 등에서 날개를 펴고 앉아 일광욕을 하고, 주위의 썩은 과일이나 동물의 배설물에 모인다. 10m 이상의 높은 가지 끝에서 텃세 행동을 보인다. 암컷은 축축한 도로 위에 날아오거나 개망초와 어수리의 꽃에서 꿀을 빠는데, 이런 장면은 흔하지 않다. 7월 중순에서 8월 말 사이에 알을 낳는다. 암컷은 행동이 둔해 차에 부딪쳐 상하기도 한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 오대산과 설악산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남획이나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EN A1(a, d); C2a(i)

산지의 지속적인 산림화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의 감소는 물론 서식지가 질적으로 저하되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현 범위가 매우 좁다(강원도 오대산과 설악산의 2개 지역). 따라서 EN A1(a, d); C2a(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Seokia pratti is seen only on Mt. Odae and Mt. Sorak of Gangwon-do. It is the only species in Korea which feeds on a coniferous tree. Although its habitat is located within the boundary of a national park, excessive collecting is adding to the decline of this specie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꽃팔랑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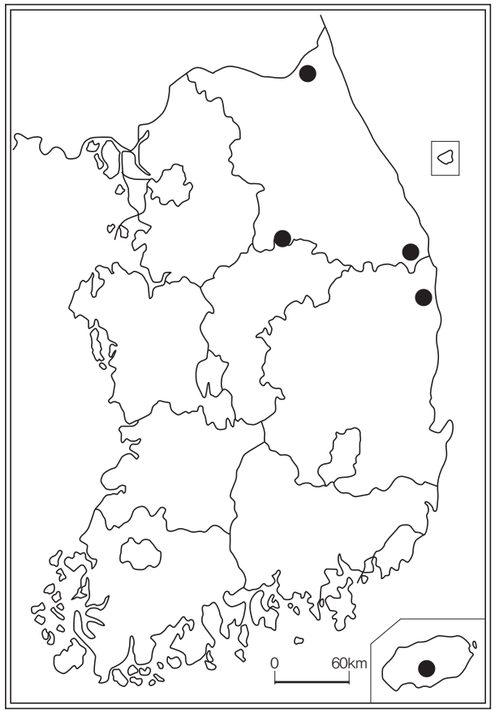
Hesperia florinda (Butler, 1878)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팔랑나비과 (Hesper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만 분포한다. 서식지는 산지의 풀밭인데, 개체수의 감소 현상도 수풀떠들썩팔랑나비와 산수풀떠들썩팔랑나비의 경우와 같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29–33㎜이다. 생김새는 산수풀떠들썩팔랑나비와 닮았으나 조금 작고, 수컷에서 중실의 성표의 안쪽에 흰 비늘가루가 두드러진다. 날개 아랫면의 바탕색은 이 종에서 녹갈색 기가 강한 적갈색이어서 차이가 나며, 뒷날개 아랫면의 흰 점무늬가 두드러지게 작다. 수컷은 중실에 굵고 검은 성표가 있는 반면 암컷은 이것이 없어 차이가 난다.

● 생태학적 특징

고도의 높은 산지의 풀밭에서 사는데, 강원도와 제주도 한라산 풀밭에서 비교적 수가 많다. 풀밭을 빠르게 날다가 개망초, 솔체꽃, 엉겅퀴, 마타리 등 여러 꽃에서 꿀을 빤다. 수컷은 축축한 땅바닥에 모이고, 오후에 풀밭에서 세차게 텃세를 부린다. 암컷은 먹이식물 뿌리 근처의 잎에 알을 낳는데, 아직 관찰 자료가 없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소수의 개체군이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산지의 지속적인 산림화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의 감소는 물론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출현범위가 10개 지역 이하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Hesperia florinda is distributed in some regions of Gangwon-do. Its habitat is grasslands in mountains. The declining status of this species is the same as the previous two specie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돈무늬팔랑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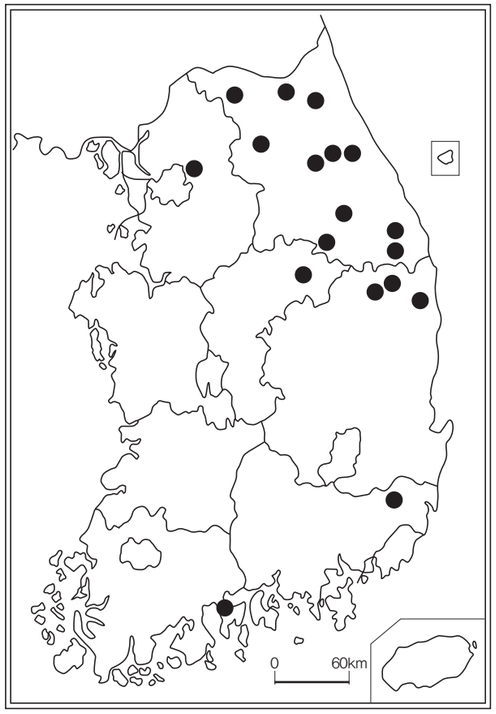
Heteropterus morpheus (Pallas, 1771)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팔랑나비과 (Hesper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지리산 이북의 산지에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서식지는 산지의 풀밭으로, 최근 산지가 급속하게 산림화 되면서 서식지가 축소하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2–37㎜이다. 날개 윗면은 짙은 흑갈색 바탕에 날개끝 전연부에 노란 점무늬가 3개 있다. 날개 아랫면은 앞날개에서 외연부가 조금 노란 무늬가 있는 외에는 날개 윗면과 거의 같다. 하지만 뒷날개는 노란 바탕에 동전 모양의 원 무늬가 빽빽해 매우 다르다. 뒷날개는 앞날개보다 폭이 넓어 보이고, 배가 가늘고 긴 느낌을 준다. 암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암컷의 날개 외연이 둥글어지고, 배가 통통해 차이가 난다.

● 생태학적 특징

산지의 확 트인 풀밭에 산다. 톡톡 튀듯 천천히 날면서 풀밭 주위의 개망초, 조뱅이, 토끼풀, 기린초 등의 꽃에 날아온다. 수컷은 활발하게 풀밭을 누비는데, 이따금 물가에 앉는다. 암컷은 천천히 날면서 잎 뒤에 알을 하나씩 낳아 붙이는데, 약간 접혀지고 잘 움직이지 않는 잎을 고르는 경향이 있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상남도, 경기도, 강원도 등지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 비교적 관찰이 쉬운 편에 속한다.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산지의 지속적인 산림화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의 감소는 물론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Heteropterus morpheus occurs locally in mountainous region north of Mt. Jiri in latitude. The habitat of this species is grasslands in mountains, which are being diminished as a result of the overgrowth of forest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산수풀떠들썩팔랑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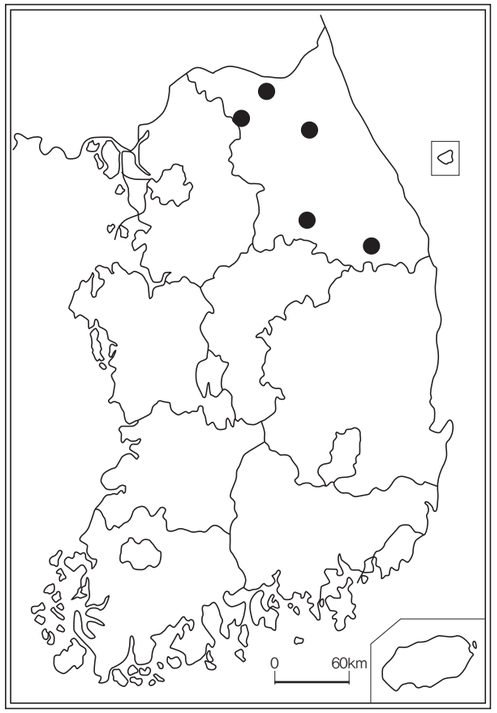
Ochlodes similis (Leech, 1893)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팔랑나비과 (Hesper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 높은 산지에 분포한다. 서식지는 산지의 풀밭인데, 최근 산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의 축소 때문에 개체수가 줄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1–35㎜이다. 날개는 윗면은 적갈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아랫면은 녹갈색기가 있는 적갈색 바탕이다. 날개 윗면 중실 기부에서 외연 쪽으로 굵고 검은 띠무늬가 나타난다. 뒷날개 윗면은 흑갈색이 짙어지고 외횡대에 5개의 적갈색 무늬가 외연과 나란하게 나타난다. 앞날개 아랫면 기부와 내연부는 흑갈색이다. 수컷은 날개 윗면이 적갈색으로 밝게 보이나 암컷은 흑갈색으로 어둡게 보이고, 날개폭이 대체로 넓다.

● 생태학적 특징

강원도의 한랭한 산지의 풀밭에서 산다. 맑은 날 풀밭에서 활발하게 날다가 큰까치수염, 개망초, 꿀풀 등의 꽃에 잘 날아온다. 수컷은 축축한 땅바닥이나 바위, 새똥에 잘 날아오며, 한동안 날아가지 않고 물을 먹는다. 또, 오후에는 확 트이고 양지바른 위치의 풀에 앉아 날개를 반쯤 편 채로 세차게 텃세를 부린다. 암컷은 주로 꽃 위에서 잘 보이는데, 굼뜨게 먹이식물 주위를 날면서 먹이식물 잎 뒤에 알을 하나씩 낳아 붙인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소수의 개체군이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산지의 지속적인 산림화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의 감소는 물론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출현범위가 10개 지역 이하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Ochlodes similis occurs in high altitude mountains of Gangwon-do, where its habitat is grasslands in mountainous regions. Lately, the overgrowth of forests resulted in the disappearance of grasslands, which led to the decline of this specie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수풀떠들썩팔랑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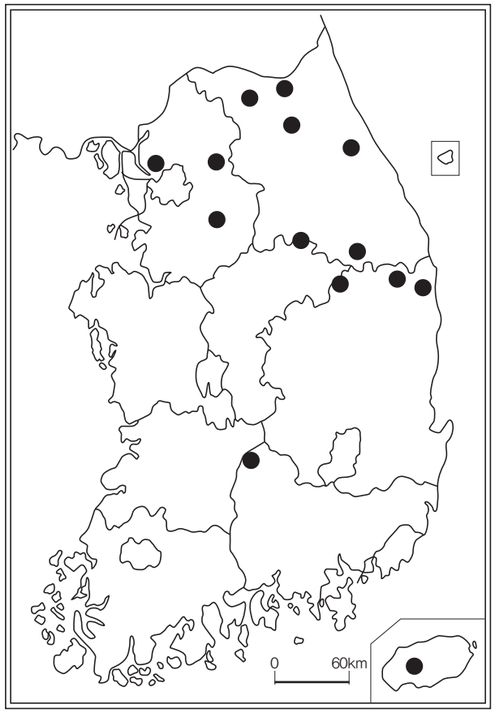
Ochlodes venatus (Bremer et Grey, 1853)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팔랑나비과 (Hesperidae)

영명: Large Skipper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제주도 산지와 내륙 산지에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산수풀떠들썩팔랑나비보다 분포 범위가 남쪽에 치우쳐 있고, 개체수가 감소하는 편이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2–36㎜이다. 생김새는 산수풀떠들썩팔랑나비보다 밝은 적갈색 바탕이다. 수컷은 중실 안의 줄무늬가 산수풀떠들썩팔랑나비보다 가늘다. 암컷은 산수풀떠들썩팔랑나비보다 훨씬 밝으나 무늬의 차이가 크지 않다.

● 생태학적 특징

산수풀떠들썩팔랑나비와 같은 환경에서 사는데, 같은 장소에서도 이따금 발견되나 대체로 고도가 낮은 곳에서 많이 발견된다. 풀밭 위를 빠르게 날다가 기린초, 꿀풀, 갈퀴나물, 큰까치수염 등의 꽃에서 꿀을 빤다. 수컷은 축축한 땅바닥이나 바위, 새똥에 잘 모이고, 풀밭에서 세차게 텃세 행동을 한다. 암컷은 먹이식물 잎 뒤에 알을 하나씩 낳아 붙인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제주도 저산지와 경기도, 강원도 일부 지역, 경남 지리산 등지에서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산지의 지속적인 산림화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의 감소는 물론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Ochlodes venatus is seen locally in mountain regions of Jeju-do and mainland Korea. However, its distribution range is shifted more toward southern latitudes than *Ochlodes similis*, thus suffering lesser decline.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흰점팔랑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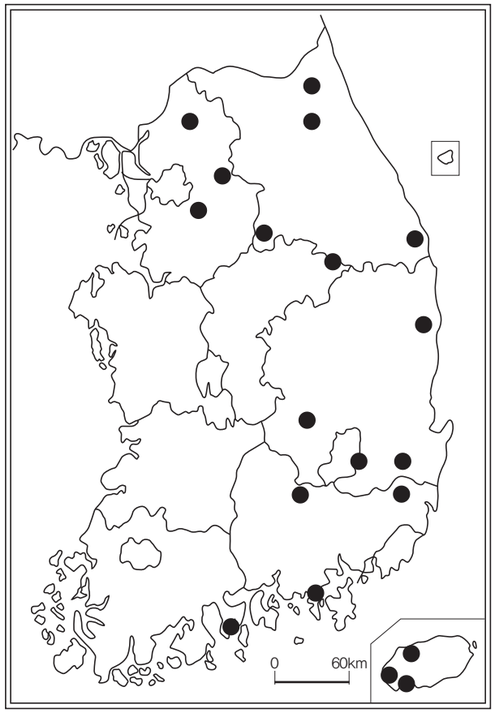
Pyrgus maculatus (Bremer et Grey, 1853)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팔랑나비과 (Hesper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과거에 전국에 걸쳐 분포했으나 최근 서식지가 많이 줄어들었다. 초지 축소가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27–34㎜이다. 날개 윗면은 짙은 흑갈색 바탕에 흰 점무늬가 외반부에 나타난다. 날개 아랫면은 봄형에서 적갈색 바탕을 하는데 비해 여름형은 흑갈색 바탕이다. 특히 제주도산 개체들은 흑갈색이 짙어진다. 봄형은 여름형보다 날개 윗면의 흰 점무늬가 작아지나 제주도산은 계절형 차이가 적다. 수컷은 앞날개 전연이 접혀 있으나 암컷은 이 부분이 없다.

● 생태학적 특징

산지나 들판의 확 트인 풀밭에서 산다. 빠르게 날다가 민들레, 솜방망이, 양지꽃, 엉겅퀴 등의 꽃에 잘 날아온다. 수컷은 땅바닥에서 날개를 펴고 일광욕을 하거나 축축한 곳에 앉는데, 약하게 텃세를 부린다. 암컷은 먹이식물의 새싹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제주도의 평지의 풀밭, 한반도 내륙 등지에 국지적으로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산지의 지속적인 산림화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의 감소는 물론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Pyrgus maculatus once occurred nationwide, but its distribution range has suffered a drastic decline lately. The reason for this range reduction seems to be the disappearance of grassland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꼬마흰점팔랑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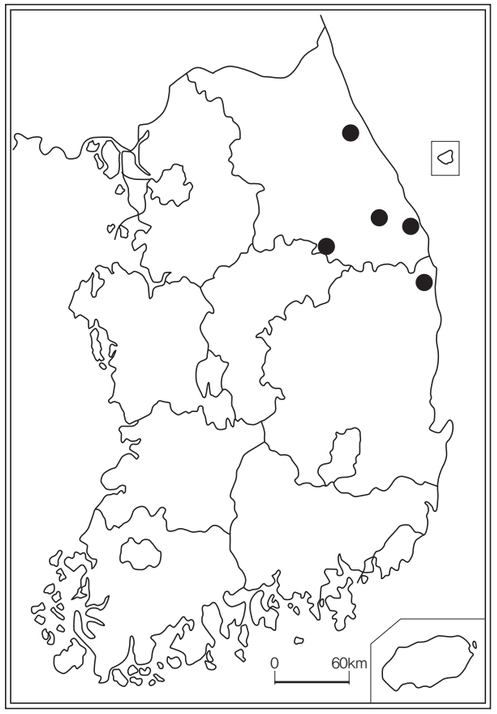
Pyrgus malvae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팔랑나비과 (Hesperidae)

영명: Grizzled Skipper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흰점팔랑나비처럼 과거에는 전국에 흔했으나 현재 강원도 일부 지역에만 분포하고 있어, 흰점팔랑나비보다 분포 범위가 더 줄어들었다. 초지의 축소 때문으로 보이며, 기후변화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19–23㎜이다. 생김새는 흰점팔랑나비와 거의 닮았으나 조금 작고, 뒷날개 아랫면이 적갈색 바탕에 작고 흰 점으로 된 반면 흰점팔랑나비는 굵고 흰 띠가 되어 차이가 난다. 1년에 1회만 발생하므로 흰점팔랑나비처럼 계절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수컷은 앞날개 전연이 접혀 있으나 암컷은 이 부분이 없다.

● 생태학적 특징

산지나 들판의 확 트인 풀밭에서 사는데, 강원도, 영월, 삼척 등지의 석회암 지대나 산불 발생 지역에 산다. 낮고 빠르게 날기 때문에 잘 눈에 띄지 않으나 민들레, 솜방망이, 양지꽃 등의 꽃에 잘 날아온다. 앉을 때에는 나방처럼 대부분 날개를 편다. 수컷은 땅바닥에 앉아 일광욕을 하거나 축축한 곳에 앉는데, 수컷끼리 다툼이 약하게 나타난다. 암컷은 먹이식물의 새싹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산지의 지속적인 산림화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의 감소는 물론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Pyrgus malvae was a common species across the country, like *Pyrgus maculatus*. Currently, its habitat is confined to a few localities in Gangwon-do, thus occupying a narrower range of distribution than *Pyrgus maculatus*. Dwindling grasslands are blamed for its decline, in addition to the factors of climate change.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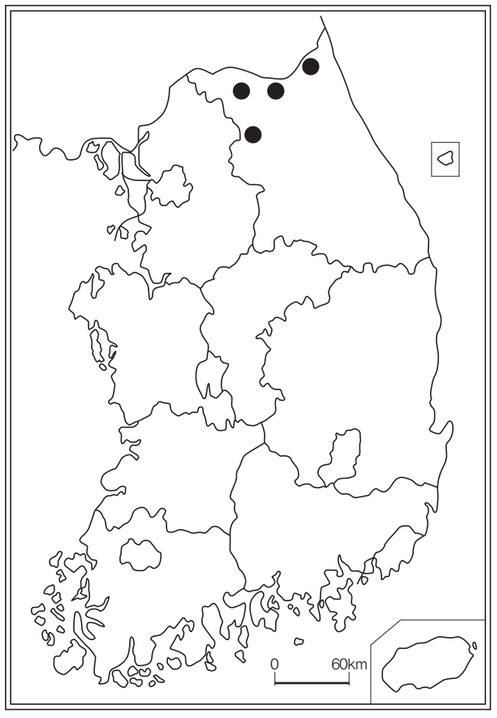
Maculinea teleius (Bergsträsser, 1779)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부전나비과 (Lycaenidae)

영명: Scarce Large Blue
지정현황: –
IUCN 범주: LR/NT

● 요약

과거에는 경기도와 강원도 등지의 낮은 산지에도 분포했으나 현재 강원도 일부 지역에만 분포한다. 애벌레는 개미와 공생관계에 있다. 최근 초지의 축소와 개미 분포 역이 줄어듦에 따라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3–38㎜이다. 대체로 큰점박이푸른부전나비와 닮았으나 조금 작고, 날개의 검은 점들이 조금 작다. 또 날개 윗면의 외연의 검은 테두리의 폭이 넓다. 일부 강원도 개체군에서는 날개 전체가 검어지기도 하는데, 햇볕이 많이 필요로 한 고산에 적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생태학적 특징

낙엽활엽수림의 숲 가장자리나 계곡의 풀밭에 살며, 묘지와 같이 양지바른 풀밭에서 산다. 수컷은 활발하게 날아다니나 암컷은 덜 활발하다. 암수가 오이풀, 엉겅퀴, 싸리 등의 꽃에서 꿀을 빤다. 암컷은 먹이식물의 꽃봉오리 속 깊이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 북부에서 국지적으로 소수가 확인된다.

● 위협 요인

무분별한 표적 채집으로 인한 남획과 서식지의 환경 변화 때문에 개미와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C2a(i)

무분별한 채집과 초지의 축소 때문에 서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현재 확인된 개체군 수는 5개 정도에 불과하며, 가장 큰 아개체군의 규모를 적용해, VU A1(a, d); C2a(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Maculinea teleius, previously occurred in low-altitude areas of Gyeonggi-do, though it is now confined to some localities of Gangwon-do. Its larva maintains a relationship of obligate myrmecophily with specific ant species. The disappearance of grasslands and dwindling distribution ranges of ants seem to be the main cause of decline.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작은녹색부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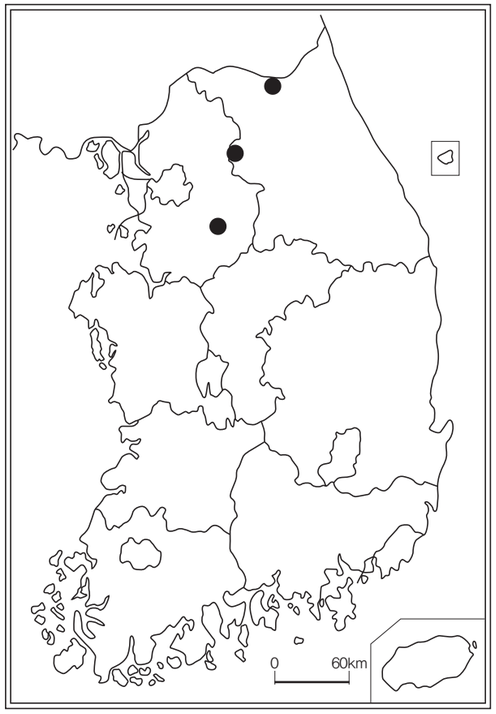
Neozephyrus japonicus (Murray, 1875)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부전나비과 (Lycaen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지리산 이북의 일부 산지의 계곡부에 분포한다. 애벌레의 먹이식물인 오리나무의 분포가 줄어드는 것과 맞물려 개체수가 차츰 줄어들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27–32㎜이다. 날개 윗면의 색은 암수가 크게 다르다. 수컷은 외연부의 가는 검은 띠 부분을 제외하고, 광택이 있는 짙은 청록색을 띠나 암컷은 흑갈색을 띤다. 다만 암컷의 앞날개 윗면 횡맥에 오렌지색 무늬가 없거나 1–3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날개 아랫면은 대체로 암컷의 바탕색이 조금 짙은데, 암수 모두 적갈색을 띤다. 또 앞날개 외횡선과 뒷날개 외횡선, 아외연선이 나타나며, 이 중 외횡선은 항각 주위에서 'W'자 모양을 하고, 2개의 아외연선은 물결모양을 한다. 가운데가 검고 주변이 붉은 항각에는 가늘고 긴 꼬리모양돌기가 나타난다.

● 생태학적 특징

산지와 가까운 마을이나 갯가의 오리나무림에서 사는데, 최근에는 개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발견하기 어렵다. 맑은 날 해질 무렵 수컷은 점유행동을 강하게 한다. 한 자리를 점유하는 성질도 강한데, 여러 수컷끼리 어울리면 뱅글뱅글 돌면서 땅위로 내려오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암컷은 먹이식물의 잔가지에서 줄기까지의 굵은 부분까지에 알을 하나에서 여러 개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다.

● 위협 요인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먹이식물의 분포 범위 축소가 개체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B1ab(i)

최근 애벌레의 먹이식물인 오리나무림의 감소와 더불어 서식지가 감소하고, 남획 등의 우려가 높다. 점유면적이 500㎢ 이하이며, 10개 이하의 지역에 분포하므로 VU A1(a, d); B1ab(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Neozephyrus japonicus is seen in some mountains north of Mt. Jiri in latitude. This species is on a gradual decrease because of dwindling distribution of its foodplant, an alder tree, *Alnus japonica* (Betulaceae).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깊은산부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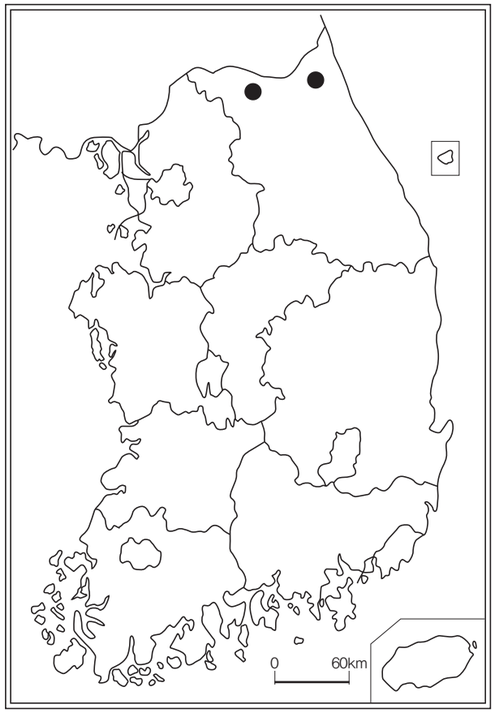
Protantigius superans (Oberthür, 1914)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부전나비과 (Lycaenidae)

영명: –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Ⅱ급
IUCN 범주: –

● 요약

경북 일부와 강원도 해발 1,000m 정도의 산지에 분포한다. 이 나비가 줄어드는 원인은 애벌레의 먹이식물 분포 범위가 줄어들거나 과도한 채집 때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Ⅱ급이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0–36㎜이다. 날개 윗면과 아랫면의 색이 대비되는데, 윗면은 흑갈색이고, 아랫면은 은색을 띤다. 날개 윗면에는 날개 외연부에 흰 점이 약하게 나타난다. 날개 아랫면은 횡맥과 외횡선이 검고 가늘게 나타난다. 뒷날개 아랫면 항각에는 붉은 점과 그 속에 검은 점이 나타나는 무늬가 2개가 있고, 꼬리모양돌기가 가늘고 길게 있다. 암수는 무늬의 차이가 없지만 암컷이 대체로 큰 편이고, 날개 외연이 둥글게 보이며, 날개 윗면의 흰 점무늬가 뚜렷하다.

● 생태학적 특징

해발 850m 이상의 낙엽활엽수림 산지에 산다. 수컷은 해뜨기 직전 잠깐과 해지기 전의 어두워져갈 때에 활발하게 활동하는데, 10m 이상의 먹이식물과 그 주변 참나무의 꼭대기 부근에서 강하게 점유행동을 한다. 특이하게 폭우나 바람이 세게 분 다음 날 아침 낮은 위치에서 발견된다. 암수 모두 완두와 큰까치수염에서 꿀을 빠는 것이 관찰되었던 적이 있으나 흔하지 않다. 암컷은 7월 중순경부터 먹이식물의 겨울눈이 될 자리 아래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 낳는 위치는 1.3m에서 10여m까지의 높이였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의 고도가 높은 산지에 매우 국지적으로 분포가 확인된다.

● 위협 요인

무분별한 채집에 따른 남획과 서식지 훼손, 기후변화의 요인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B1ab(i)

최근 서식지가 감소하고, 남획 등의 우려가 높다. 개체수 하락률은 낮은 편이다. VU A1(a, d); B1ab(i)로 평가했다.

● 보존 현황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으로 지정 ·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Protantigius superans occurs in mountain higher then 1,000m in elevation, located in Gangwon-do and some areas of Gyeongsangbuk-do. This species is on decline following the reduction in the distribution of its foodplant and excessive collecting.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김용기(생물자원환경연구소)

까마귀부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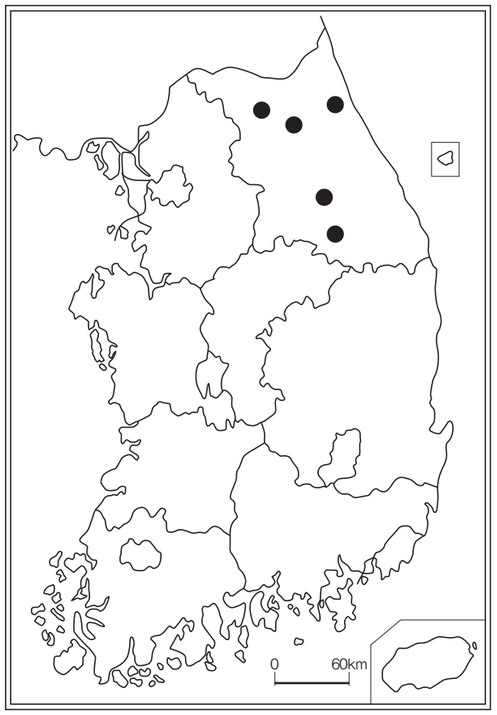
Satyrium w-album (Knoch, 1782)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부전나비과 (Lycaen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산지에 분포한다. 최근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기후변화에 따른 변화 때문인 것으로 보이나 그 원인은 뚜렷하지 않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27–30㎜이다. 전체가 북방까마귀부전나비와 닮았으나 날개 색이 더 짙고, 뒷날개 아랫면 항각 부위에 청색 무늬가 나타나지 않는다. 또 뒷날개 아랫면의 'W'자 모양의 무늬는 뚜렷하게 각이 더 진다. 뒷날개 아랫면 항각 부위에 붉은 무늬와 검은 점무늬 2개가 뚜렷하며, 꼬리모양돌기가 북방까마귀부전나비보다 가늘고 길다. 수컷은 북방까마귀부전나비의 경우처럼 앞날개 윗면에 타원형의 성표가 있다.

● 생태학적 특징

차가운 낙엽활엽수림 가장자리나 느릅나무가 많은 계곡에 산다. 햇볕을 쬐기 위해 태양을 향해 비스듬하게 몸을 기울이는 습성이 있다. 수컷은 서식지 주변의 관목 위나 빈터의 나뭇잎 위에서 점유행동을 하거나 습지에 날아와 물을 먹는다. 암수 모두 옹긋나물과 엉겅퀴, 개망초 등의 꽃에 날아와 꿀을 빠는데, 그다지 흔하지 않다. 암컷은 2m 정도 되는 먹이식물의 1, 2년 된 가지의 밑이나 사이에 알을 1–7개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 산지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후변화와 함께 서식지의 산림화에 따른 환경 변화 때문에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서식지가 감소해 점유면적이 500㎢ 이하이고, 10개 이하의 지역에만 분포하므로 VU A1(a, d)로 평가했다.

● 보존 현황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으로 지정 ·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Satyrium w-album is seen in mountains of Gyeonggi-do and some parts of Gangwon-do. Lately, this species is suffering a rapid decline in numbers for unknown reasons, though climate change may be to blame.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쌍꼬리부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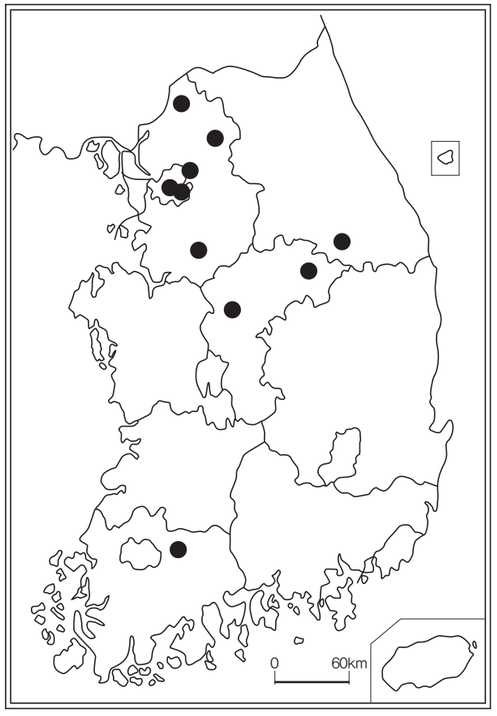
Spindasis takanonis (Matsumura, 1906)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부전나비과 (Lycaenidae)

영명: hairstreak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Ⅱ급
IUCN 범주: –

● 요약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등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으로 확인된다. 서식지가 대부분 도시림인 곳이 많아 도시의 팽창과 더불어 점점 축소되고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27–34㎜이다. 날개 윗면은 흑갈색으로 수컷에서만 햇빛에 반사되면 보랏빛 광택을 띤다. 뒷날개에는 꼬리모양돌기가 2개 있다. 아랫면은 담황색에 검정 줄무늬나 점무늬의 줄이 있고, 꼬리모양돌기가 있는 항각은 주황색 바탕에 뚜렷한 검은 점무늬가 나타난다.

● 생태학적 특징

낮은 산지의 소나무 숲을 중심으로 산다. 한낮은 서식지 주변 나뭇잎 위에 앉아 햇볕을 쬐거나 개망초와 큰까치수염, 밤나무의 꽃에 날아와 꿀을 빤다. 수컷은 해질 무렵 탁 트인 공간의 나무 끝에 앉아 점유행동을 심하게 한다. 암컷이 알 낳는 시기는 6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이며, 오후 5–6시경에 하는 것을 관찰했다. 암컷은 숙주 개미의 집이 있는 소나무와 신갈나무, 노간주나무가 죽어 있거나 또는 살아있는 나무나 바위틈에 알을 낳는데, 한번에 1–3개씩 같은 장소에 낳기도 한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기(고령산, 덕암산, 앵무봉, 보광사), 서울(반포, 관악산, 경희대, 경기 주금산), 충북 제천시, 옥천군, 강원도 영월 등지에서 확인된다.

● 위협 요인

도시 주변의 도시림에 서식하는데, 도시의 개발 압력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이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또 관상가치가 매우 높아 남획에 의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앞으로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 평가 결과: VU A1(a, d)

도시화에 따른 이 종의 서식지인 도시림이 차차 사라지고 있는 등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서식지는 10개 지역 내외다. VU A1(a, d)로 평가했다.

● 보존 현황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으로 지정 ·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Spindasis takanonis (Matsumura) was locally distributed in Korea. The number of populations has declined because of over-collecting and the destruction of habitats by the encroachment of urban development.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암고운부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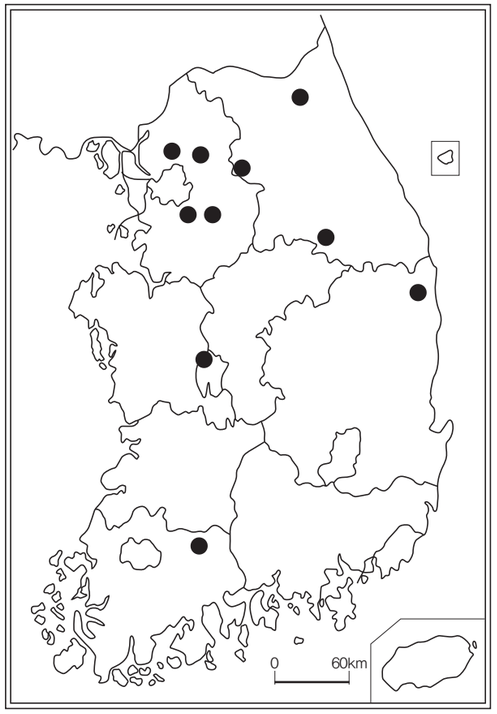
Thecla betulae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부전나비과 (Lycaenidae)

영명: Brown Hairstreak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지리산 이북의 산지에 분포한다. 애벌레는 장미과(Rosaceae) 과수의 잎을 먹는데, 과도한 농약 살포와 남획 등의 이유 때문에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5–39㎜이다. 날개의 색은 암수가 뚜렷하게 다르다. 즉 암수 모두 날개 윗면은 짙은 흑갈색 바탕이지만 암컷에서 앞날개 횡맥에서 후연까지 초승달 모양의 붉은 무늬가 넓게 나타나나 수컷은 횡맥 주위만 약하게 붉은 무늬가 나타나거나 또는 나타나지 않아 전체가 검기도 한다. 또 암컷의 날개 아랫면의 바탕색이 더 짙다. 암수 모두 뒷날개 항각 주위 붉은 무늬가 나타나며, 붉은 꼬리모양돌기가 짧게 있다.

● 생태학적 특징

낙엽활엽수림의 가장자리의 확 트인 밝은 환경을 좋아한다. 개망초에 날아와 꽃 꿀을 빠는 경우가 있으나 쉽게 발견할 수 없다. 수컷은 흔치 않지만 7월 초 중 500m 정도의 산꼭대기에서 점유행동을 하는 때가 있다. 암컷은 9월경부터 늦가을까지 먹이식물의 가지 사이나 홈 등에 알을 하나씩 낳는데, 1년생 가지에서 알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지리산 이북 산지에서 국지적으로 확인된다.

● 위협 요인

먹이식물이 복숭아나무, 매화나무, 옥매화 등 재배식물이 많아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인해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서식지가 주로 인가와 가까워 최근 농약 살포 등의 이유로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Thecla betulae, Brown Hairstreak is distributed in the mountainous areas north of Mt. Jiri in latitude. This species feeds on the leaves of Rosaceae trees, but is on a gradual decline due to excessive use of insecticide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쐐기풀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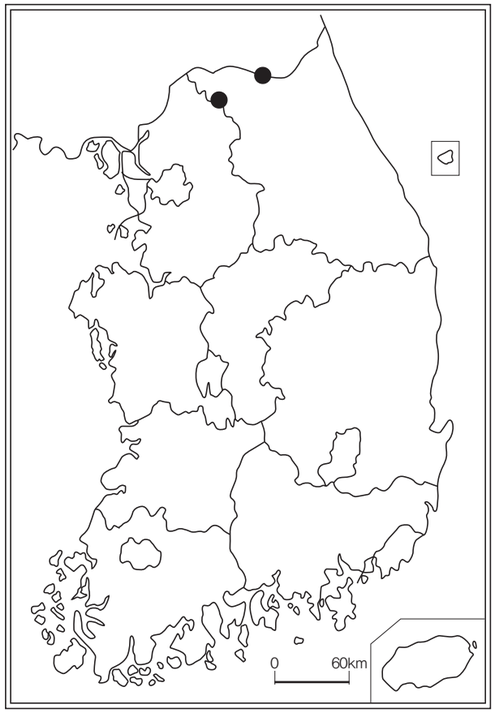
Aglais urticae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Small Tortoiseshell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 일부 지역에만 분포한다. 뚜렷한 감소 원인을 찾기 어려우나 신선나비의 경우처럼 기후변화 등의 요인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54㎜ 안팎이다. 전체적으로 들신선나비와 생김새가 닮았으나 조금 작다. 날개 윗면은 외연 테두리가 넓게 검은 바탕이며, 그 안에 파란 점무늬가 각 방에 하나씩 이어진다. 앞날개 아랫면은 윗면의 붉은색 무늬가 같은 자리에 엷게 나타난다. 외연의 돌출된 부분이 들신선나비보다 덜 심하고 밋밋하다. 암수는 특별한 무늬 차이가 없어 배 끝을 보고 판별해야 한다.

● 생태학적 특징

차가운 기후대의 산지의 계곡이나 능선 주위의 숲 가장자리에서 산다. 백리향, 벚나무, 엉겅퀴류, 루드베키아, 금계국 꽃에 날아오는데, 남한에서의 관찰기록이 거의 없다. 수컷은 축축한 땅이나 암벽에 앉는 일이 있고, 암컷은 먹이식물 잎 뒤에 무더기로 알을 낳는다. 남한 지역에서는 관찰 자료가 많지 않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e)

한랭성인 이 종이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현 범위가 매우 좁다. VU A1(a, d, e)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Aglais urticae, the small Tortoiseshell occurs locally in some areas of Gangwon-do. Like *Nymphalis antiopa*, this species is on the decline due to climate change.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오색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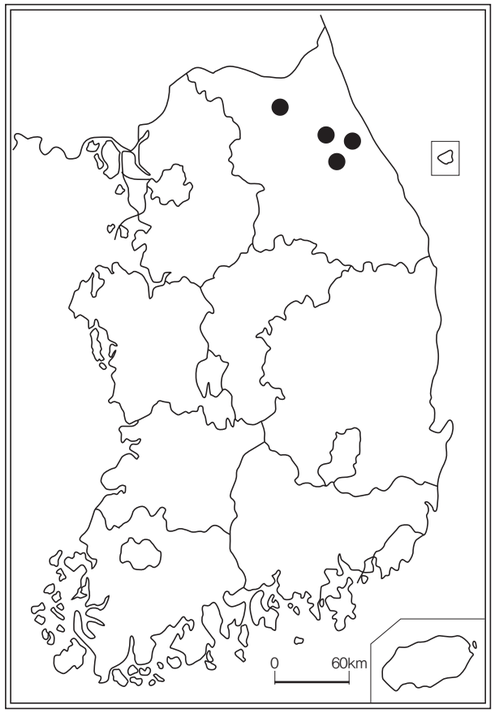
Apatura ilia (Denis et Schiffermüller, 1775)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Lesser Purple Emperor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 오대산 이북의 높은 산지에 분포한다. 서식지는 산지의 하천 주위로 버드나무가 많은 곳이다. 최근 개체수가 감소하는데, 남획 외에도 기후변화 등의 환경 요인 때문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64–71㎜이다. 날개의 바탕은 황갈색과 짙은 흑갈색의 두 가지 형이 있다. 수컷의 날개 윗면은 대부분 보라색 광택이 각도에 따라 보이는데, 이 색은 암컷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날개 외연이 잘린 듯 각이 지는데, 암컷은 이 부분이 둔해 조금 둥글게 보인다. 뒷날개에 있는 흰 띠는 곧게 뻗친다. '오색' 이라는 이름은 '날개의 색이 5가지가 있다.' 라는 뜻이다.

● 생태학적 특징

낙엽활엽수림 주변의 계곡에 살며, 꽃에 오지 않고 참나무, 느릅나무, 버드나무의 즙을 빨아먹는다. 수컷은 계곡 주변의 3–4m의 나뭇잎 위에서 텃세 행동을 하는데, 한 자리를 고수한다. 오전 중에는 바위나 물가의 축축한 곳에 앉아 물을 빨아먹는다. 암컷은 먹이식물이 많은 계곡 주변의 높은 나무 위에서 쉬는 일이 많고, 그 주위를 배회하다가 먹이식물의 잎 위나 뒤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남획이나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e)

한랭성이라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 감소는 물론 서식지가 질적으로 저하되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현 범위가 좁다(10개 지역 이하). 따라서 VU A1(a, d, e)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Apatura ilia occurs mostly in high altitude mountains north of Mt. Odae of Gangwon-do in latitude. This species inhabits the spaces around the streams in the mountains, where willow trees, *Salix koreensis* (Salicaceae) are plentiful. Nowadays, its population are on a decline, probably due to over collecting and climate change, etc.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가락지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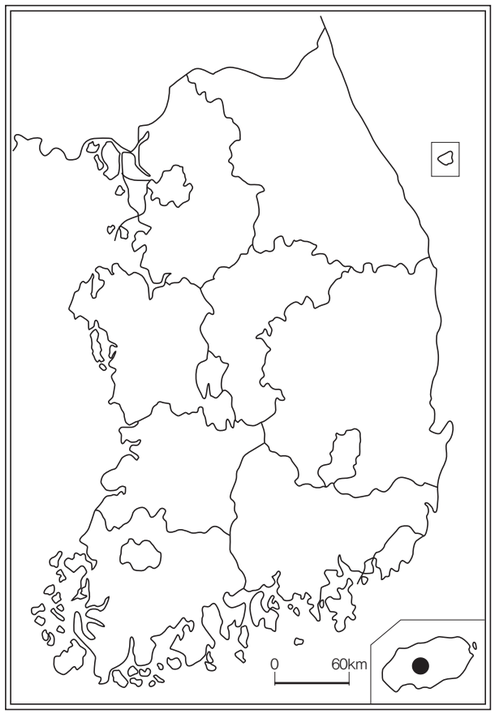
Aphantopus hyperantus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Ringlet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남한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한라산 해발 1,300m에서 정상까지 분포한다. 글쓴이의 모니터링 결과, 최근 5년간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감소 현상으로 보이나 뚜렷한 이유라고는 할 수 없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44–50㎜이다. 크기는 처녀나비류보다 조금 크고, 날개 모양도 조금 길어 보인다. 날개 윗면과 아랫면 모두 짙은 흑갈색으로, 날개 아랫면이 조금 밝은 편이고, 수컷보다 암컷의 바탕색이 조금 밝은 편이다. 날개 외횡대에 매우 작은 뱀눈모양 무늬가 나타나는데, 바탕색과 거의 같은 색이어서 두드러지지 않는다.

● 생태학적 특징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한라산의 1,300m부터 백록담까지의 건조한 풀밭에 사는데, 산굴뚝나비와 같은 장소에서 보인다. 풀과 풀 사이를 낮게 날아다니다가 금방망이, 곰취, 백리향, 호장근, 갈퀴덩굴, 오이풀 등의 꽃에서 꿀을 빤다. 유럽에서는 이 나비의 암컷이 굴뚝나비처럼 알을 아무렇게나 낳아 땅위에 떨어뜨리는 습성이 있고, 1령애벌레로 겨울을 나며, 이듬해 봄에 먹이식물에 올라가 새싹을 먹는다고 한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현재 한라산 1,300m에서 정상까지의 초지에서만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서식지가 한라산 고산지로 조릿대의 급속한 팽창 때문에 벼과인 먹이식물의 분포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현재 한라산 1,300m에서 정상까지의 초지에만 분포하고 있는데, 제주조릿대의 면적이 넓혀지면서 초지가 축소하고 있다. 이 원인으로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Aphantopus hyperantus occurs only an Mt. Halla of Jeju-do, where its habitat is found from 1,300m to the top in altitude. According to the author's monitoring report, this species is on a steady decline for no definite reason, though climate change is suspected.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왕은점표범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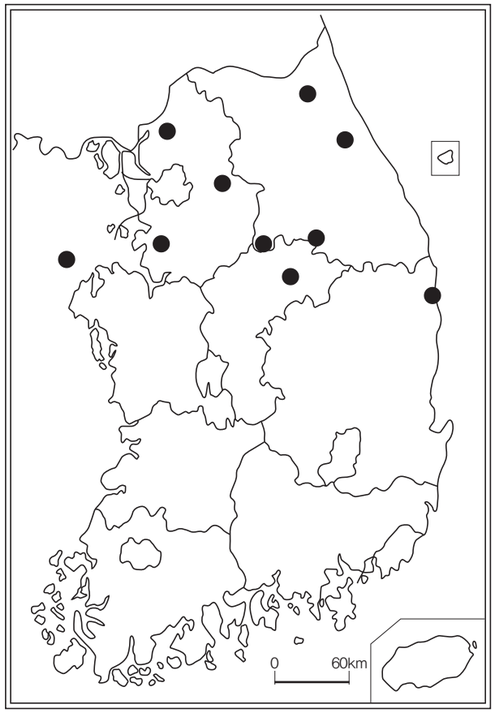
Argynnis nerippe C. et R. Felder, 1862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Ⅱ급
IUCN 범주: –

● 요약

과거에 전국에 분포하는 흔한 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초지가 축소하는 바람에 개체수가 급감했다. 여름에 하면하는 습성이 있으므로, 키 큰 억새와 키 낮은 초지가 공존하는 서식지에서 산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53–68㎜이다. 은점표범나비와 닮았으나 조금 큰 편이다. 다만 뒷날개 아외연 각 방에 있는 'M'자 무늬가 뚜렷하고, 외횡대에 점무늬가 3개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또 뒷날개에 나타나는 은점은 은점표범나비에서는 있거나 또는 없는 등의 변이가 있지만 이 종에서는 반드시 나타난다. 수컷은 앞날개 윗면 제2맥이 조금 굵어 보이고, 암컷은 날개 끝에 세모꼴의 흰 점이 나타난다.

● 생태학적 특징

햇볕이 잘 드는 풀밭에 사는데, 키가 낮은 풀밭에서 보이나 최근 개체수가 줄어 서식지가 매우 국한되어 있다. 꿀풀, 금방망이, 큰까치수염, 엉겅퀴 등 여러 꽃을 즐겨 찾는다. 수컷은 물가에 잘 앉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암컷을 탐색하러 풀밭을 배회한다. 한여름에 잠을 자고 가을에 다시 활동하는데, 이때 대부분 암컷만 보이며, 먹이식물 둘레의 다른 물체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기도 굴업도를 포함한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한해 국지적으로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경기도 굴업도를 포함한 경기도와 강원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의 초지에 분포한다. 산지의 산림화로 초지가 축소되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한랭성인 이 종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현 범위(10개소 이하)가 좁다. VU A1(a, d)로 평가했다.

● 보존 현황

멸종위기야생동물 Ⅱ급으로 지정 ·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Argynnis nerippe was a common species occurring across the country. However, steady disappearance of grasslands continued the sharp decline of this species. It inhabits an area of vegetation where tall *Eulalie*, *Miscanthus sinensis* (poaceae), and short turfs coexist.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은점표범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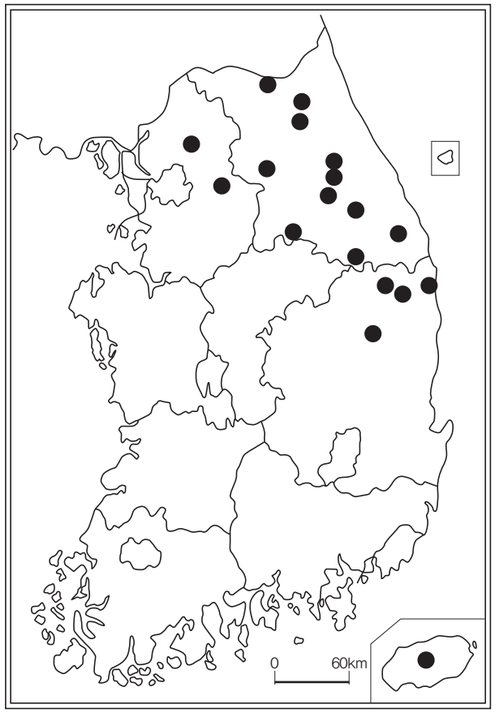
Argynnis niobe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과거에는 전국에 흔한 종이었으나 최근 제주도 한라산과 내륙의 일부 산지에만 분포한다. 서식지가 주변이 확트인 풀밭인데, 최근 초지의 축소 때문에 급격하게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53–60㎜이다. 날개 윗면은 황갈색 바탕에 흑갈색 무늬가, 날개 아랫면은 날개끝 부위와 뒷날개 부분에서 풀색을 머금은 바탕이다. 한라산 고지의 개체는 한반도 내륙산과 비교할 때 크기가 작고, 날개의 흑갈색 점들이 작아지는 등 지역 변이가 있다. 암컷은 흑갈색 바탕이 짙거나 풀색을 머금어 덜 붉게 보인다. 수컷은 앞날개 윗면 제2맥이 굵고 짙어지는 성표가 있다.

● 생태학적 특징

햇볕이 잘 드는 풀밭에 사는 흔한 나비다. 갈퀴덩굴, 곰취, 백리향, 바늘엉겅퀴, 개망초, 마타리, 개쉬땅나무, 큰수리취, 꿀풀 등의 꽃을 즐겨 찾아 꿀을 빤다. 낮은 지대에서는 무더운 여름에 여름잠을 자지만 한라산 고지의 풀밭에서는 계속 활동하는데, 수컷은 낮게 풀 사이를 날면서 암컷을 탐색하러 다니는 경우가 많다. 암컷은 먹이식물인 제비꽃이나 그 주변 마른 가지, 풀 등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의 일부 지역서만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의 일부 지역의 초지에 분포한다. 산지의 산림화로 초지가 축소되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한랭성인 이 종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Argynnis niobe was a common species across the country, but is nowadays confined to Mt. Halla in Jeju-do and some mountain areas of mainland Korea. This species inhabits open grasslands, but is on a decrease due to the disappearance of these grassland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큰은점선표범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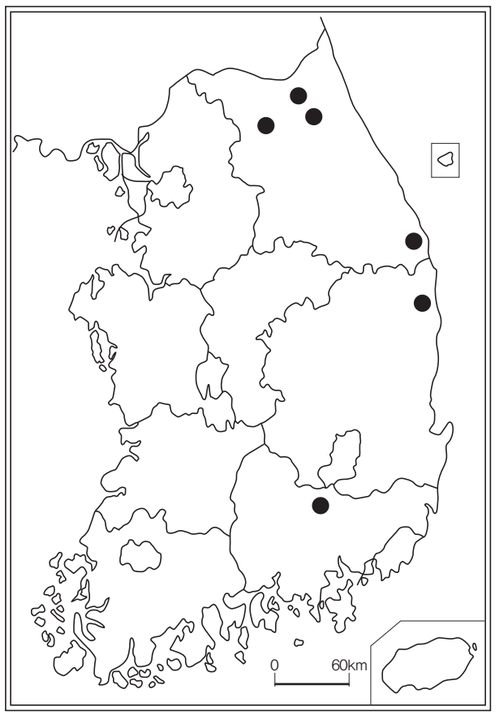
Boloria oscarus (Eversmann, 1844)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지리산 이북의 일부 산지에 분포한다. 서식지는 산 가장자리의 초지로, 최근 나무가 무성해지면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4–37㎜이다. 날개는 적갈색으로 검은 점무늬가 흩어져 있다. 이 점무늬는 날개의 기반부에 쏠려 있으며, 안쪽이 검고, 바깥쪽으로는 무늬가 약해 붉게 보인다. 때로는 개체에 따라 기부 쪽이 아예 검어지기도 한다. 뒷날개 중실 기부 부근에는 검은 점무늬가 뚜렷하며, 뒷날개에서도 이 부분의 점무늬가 작게 나타난다. 뒷날개 아랫면은 바탕이 특히 붉은데, 내횡대의 굵은 노란 띠와 외연부의 연속된 세모꼴 무늬가 특징이다. 수컷은 날개끝이 뾰족해 보이지만 암컷의 외연은 둥글어 차이가 난다.

● 생태학적 특징

산지의 낙엽활엽수림 가장자리에 살며, 능선 주위에서 보는 일이 많다. 보리수나무, 개망초, 엉겅퀴 등의 꽃에 날아오며, 앉을 때 날개를 펴는 일이 많다. 수컷은 능선의 트인 길을 따라 텃세행동을 하나 그다지 강하지 않다. 암컷은 능선의 풀밭에서 먹이식물이나 주위의 물체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상남도 북부, 경상북도 울진, 강원도 일부 산지에서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경상남도 북부, 경상북도 울진, 강원도 일부 산지의 초지에 국한해 분포한다. 산지의 산림화로 초지가 축소되어 서식지의 질적인 저하가 나타나고, 기후변화가 한랭성인 이 종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현 범위(10개소 이하)가 좁다.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Boloria oscarus occurs locally in mountains north of Mt. Jiri in latitude. Its habitat is grassland on the edge of forests, and the growth of forest trees is blamed for the rapid decrease of this specie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작은은점선표범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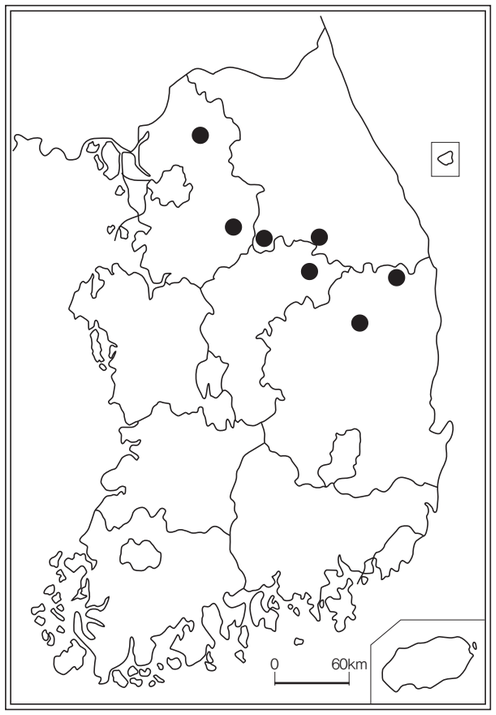
Boloria perryi (Butler, 1882)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지리산 이북의 산지에 분포한다. 서식지는 하천 주위의 풀밭으로,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과 하천 주위의 풀밭이 인위적으로 없어지면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2–34㎜이다. 큰은점선표범나비와 아주 닮았으나 훨씬 작다. 날개 윗면의 기반부가 큰은점선표범나비처럼 심하게 짙지 않다. 날개 아랫면도 훨씬 색이 엷은데, 특히 뒷날개 아랫면에는 은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큰은점선표범나비와 무늬가 닮은 점은 있으나 이 종 쪽에서 각이 더하고, 더 뚜렷해 차이가 난다. 암컷은 수컷보다 크고, 날개 외연이 둥글어 보인다.

● 생태학적 특징

들판이나 산지의 낙엽활엽수림 가장자리에 풀밭에 살며, 특히 습기가 많은 곳을 좋아한다. 개망초, 타래난초, 민들레 등의 꽃에 날아와 꿀을 빤다. 오전 중에는 잎 위에 날개를 펴고 앉아 일광욕을 한다. 수컷은 빠르게 날아다니는데, 암컷을 만나면 배우행동을 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다. 암컷은 천천히 날면서 먹이식물의 새싹이나 주위의 마른 잎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기도와 충청북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경기도와 충청북도, 강원도 일부 지역의 초지에 분포한다. 초지가 축소되어 서식지의 질적인 저하가 나타나고, 기후변화가 한랭성인 이 종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Boloria perryi is distributed in mountains north of Mt. Jiri in latitude. Its habitat is grasslands around small streams. Climate change and the disappearance of grasslands near streams are contributing to the sharp decrease of its population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큰표범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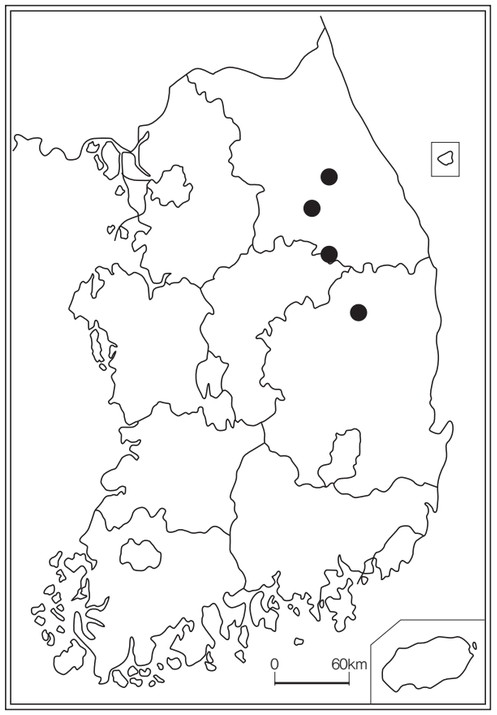
Brenthis daphne (Bergsträsser, 1780)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지리산 이북의 산지에 분포한다. 서식지는 산지의 개울가 옆에 있는 초지로, 최근 나무가 무성해지면서 애벌레의 먹이식물 등이 자라지 못해 이 종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5–47㎜이다. 전제적으로 표범나비류(*Argynnis* spp.)와 닮아 보이나 그보다 작고, 생태적 습성도 다르다. 두 종류의 생김새의 큰 차이는 수컷의 앞날개 윗면의 성표가 없는 점, 날개 아랫면의 은점 무늬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뒷날개 아랫면은 외연부에만 가운데가 흰 점무늬 5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늬가 뚜렷하지 않아 희미해 보인다.

● 생태학적 특징

산길 주위의 묵밭이나 풀밭처럼 물기가 비교적 적은 곳에서 산다. 개체수가 적어 만날 기회가 매우 적으나 엉겅퀴, 조뱅이, 개망초 등의 꽃에서 꿀을 빨 때 관찰 기회가 생긴다. 수컷은 물기 있는 땅바닥에 앉으며, 암컷은 오이풀이 자라는 풀밭을 천천히 날면서 꽃봉오리에 하나씩 알을 낳아 붙인다. 먹이식물은 오이풀이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에서 주로 보이나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강원도와 경상북도 일부 지역의 초지에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산지의 산림화로 초지가 축소되어 서식지의 질적인 저하가 나타나고, 기후변화가 한랭성인 이 종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현 범위가 좁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Brenthis daphne is distributed in mountains north of Mr. Jiri in latitude. This species inhabits grasslands near small streams in mountains. Its food plant is burnet, *Sanguisoba officinalis* (Rosaceae). The decline of this species seems to be attributable to the overgrowth of surrounding trees, which hampers the development of foodplant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시골처녀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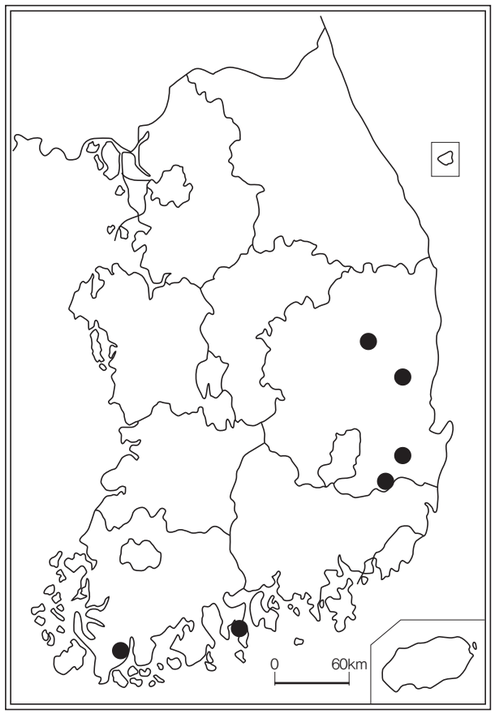
Coenonympha amaryllis (Stoll, 1782)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남해안 일부 산지에 분포한다. 암석이 많은 풀밭에서 사는데, 과거에는 경기도의 일부 산지에도 분포했다. 이들 서식지 대부분이 나무가 무성해지면서 이 나비가 자취를 감추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9–43㎜이다. 날개는 엷은 오렌지색을 머금은 적갈색 바탕이다. 특히 뒷날개 아랫면에는 흑갈색 무늬가 번지듯 나타나 이 부분이 어둡다. 날개 아외연부에 테두리가 노랗고 검은 고리 모양의 뱀눈모양 무늬가 줄 지어 나타나는데, 날개 윗면에서는 희미하지만 아랫면에서는 비교적 뚜렷하고, 앞날개에 3–4개, 뒷날개에 6–7개가 나타난다. 이 뱀눈모양 무늬 안쪽 외연부에 노란 띠무늬가 있다. 암수 차이는 뚜렷하지 않지만 암컷의 날개 아랫면 무늬가 뚜렷해 조금 다르다.

● 생태학적 특징

산기슭이나 해안가의 풀밭에서 산다. 수컷은 산지의 낮은 봉우리에서 날아다니기도 하나 숲이 우거지면서 이런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암수가 기린초, 민들레, 등의 꽃에서 꿀을 빤다. 암컷은 먹이식물의 잎 뒤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상북도와 전라도 해안 지역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을 뿐이다.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경상북도와 전라도 해안 지역에 분포하나 이미 개체군 수가 10개 이하로 줄어들고 있다. 산지의 산림화가 가속화해 초지가 축소되는 경향을 볼 때,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Coenonympha amaryllis is distributed in some low-altitude mountains of the southern coast. This species is a resident of rocky grasslands and was also seen at some localities of Gyeonggi-do, where the overgrowth of trees likely led to its disappearance.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도시처녀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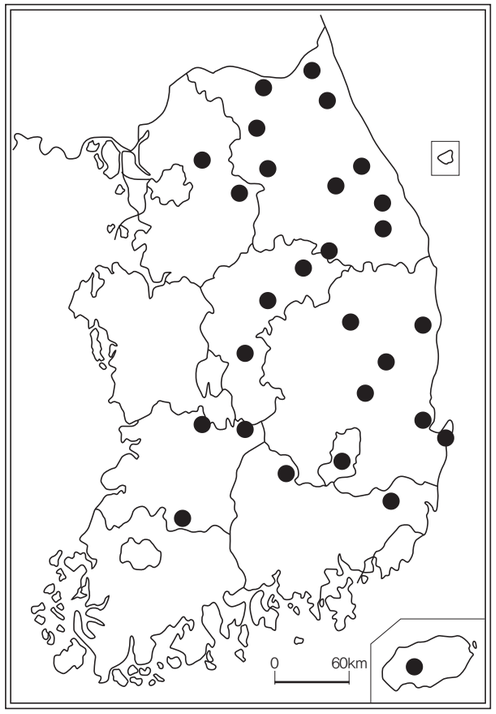
Coenonympha hero (Linnaeus, 1761)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Scarce Heath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나무가 없는 제주도 한라산 1,100m 이상 초지와 전국의 산지에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최근 초지의 축소에 따른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40–45㎜이다. 크기와 날개 모양은 시골처녀나비와 닮았으나 바탕색이 크게 다르다. 즉 이 종은 날개 윗면이 흑갈색, 아랫면에서 짙은 적갈색을 띤다. 날개 아랫면 외횡대에는 밝은 황갈색 띠무늬가 있다. 암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암컷이 조금 크고, 날개 외연이 더 둥글어 보이며, 날개 아랫면 바탕색이 조금 어둡다.

● 생태학적 특징

양지바르고 나무가 적은 풀밭에서 산다. 제주도에서는 한라산 1,100m 이상의 풀밭에 살며 특히 관목림 근처의 풀 위에 잘 앉는다. 풀과 풀 사이를 톡톡 튀듯이 천천히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낮게 날면서 조팝나무 등 여러 꽃에서 꿀을 빤다. 보통은 날개를 접고 풀 위나 바위에 앉아 일광욕을 하는데, 햇빛에 비스듬히 날개를 기울이는 습성이 있다. 암컷은 잎 사이로 들어가 낮은 위치의 잎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한라산 1,100m 이상의 초지와 한반도 내륙 산지에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B1ab(i)

한라산 1,100m 이상의 초지와 한반도 내륙 산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미 개체군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며, 산지의 산림화가 가속화해 초지가 축소되는 경향을 볼 때,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 B1ab(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Coenonympha hero is distributed locally in the mountains of Korea, including Mt. Halla of Jeju-do, which are devoid of trees. Lately, its population is rapidly declining due to the disappearance of grassland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봄처녀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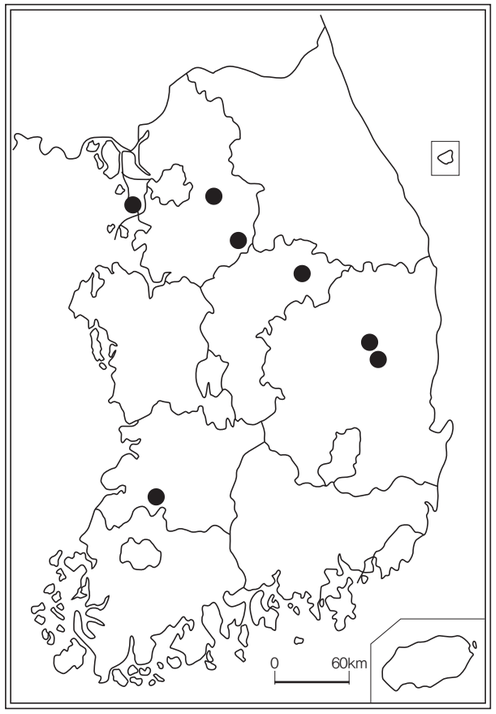
Coenonympha oedippus (Fabricius, 1787)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LR/NT

● 요약

과거에는 도시처녀나비와 거의 같은 생태적 습성과 분포 범위를 가졌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최근에는 도시처녀나비보다 더 급격하게 개체수가 감소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8–43㎜이다. 시골처녀나비, 도시처녀나비와 날개 모양, 크기 등이 비슷하다. 다만 날개 윗면은 짙은 흑갈색으로, 도시처녀나비가 뒷날개에서 날개 아랫면의 뱀눈모양 무늬가 비쳐 보이는 것과 달리 이 종은 고르게 흑갈색을 띠는 점이 다르다. 날개 아랫면은 주황색 바탕이며, 외횡대에 뱀눈모양 무늬 외에 다른 무늬가 없다. 암수 차이가 뚜렷하지 않으나 암컷이 조금 크고 외연이 더 둥글어 보인다.

● 생태학적 특징

양지바르고 나무가 적은 산기슭이나 논밭 주변의 풀밭에서 산다. 풀과 풀 사이를 톡톡 튀듯이 천천히 날며, 낮게 날아다닌다. 보통 날개를 접고 앉는 습성이 있다. 개망초, 엉겅퀴, 토끼풀 등의 꽃에서 꿀을 빤다. 암컷은 먹이식물의 잎 뒤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각 지역마다 개체군이 작다.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등 일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이미 개체군 수가 10개 이하의 지역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산지의 산림화가 가속화해 초지가 축소되는 경향을 볼 때,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Coenonympha oedippus has been almost identical in ecological requirements and distributional range with *Coenonympha hero*. However, this species suffered more dramatic decline than Coenonympha hero for no known reason.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외눈이지옥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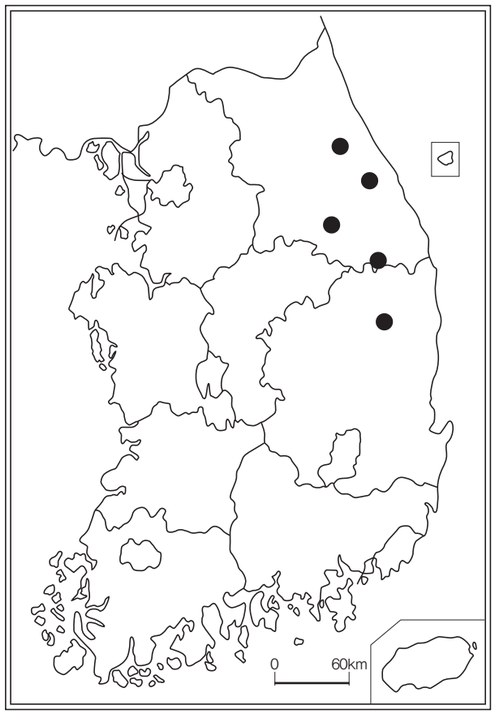
Erebia cyclopius (Eversmann, 1844)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 일부 산지에 분포한다. 서식지는 낙엽수림 가장자리의 짧은 풀밭인데, 최근 나무가 무성해지면서 이 종이 사라지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43–47㎜이다. 날개의 바탕색은 거의 검다. 앞날개 윗면의 날개끝 주위로 테두리가 노랗고 가운데에 푸른빛을 머금은 작은 흰 점 2개가 있는 뱀눈모양 무늬가 있다. 이 무늬는 날개 아랫면에서 더 뚜렷해진다. 뒷날개 아랫면 외횡대에 희미하게 흰 비늘가루가 나타나 띠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개체에 따라 뚜렷해진다.

● 생태학적 특징

강원도 산지의 낙엽활엽수림 가장자리에서 산다. 숲 안팎을 넘나들며 날아드는데, 날개를 'V'자 모양으로 펴고 일광욕을 한다. 수컷은 활발하게 날면서 습기 있는 땅바닥에 잘 앉는다. 암수는 고추나무, 얇은잎고광나무, 붉은병꽃나무 등에서 꽃 꿀을 빤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부의 산지에서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현재 경상북도와 강원도 일부의 산지의 초지에 분포한다. 산지의 산림화로 초지가 축소되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한랭성인 이 종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Erebia cyclopius is distributed locally in mountains of Gangwon-do. Its habitat is on the edges of deciduous forests, which disappear with the growth of the tree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외눈이지옥사촌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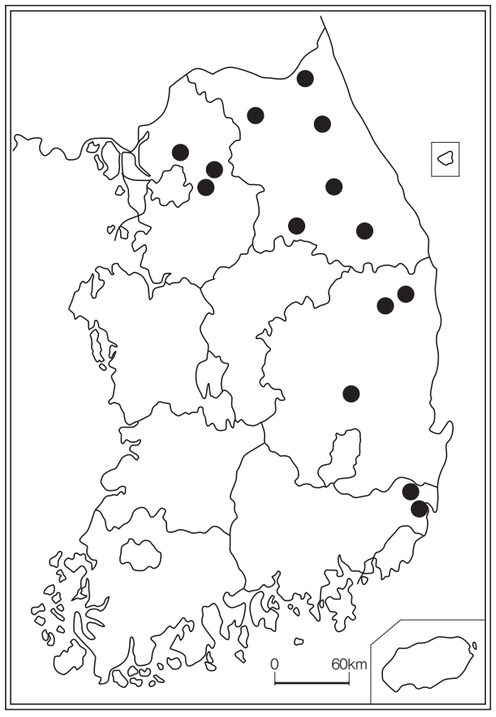
Erebia wanga Bremer, 1864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외눈이지옥나비와 생태적 특징이 거의 같다. 다만 이 종의 분포 범위가 경기도와 강원도의 낮은 산지까지이어서 더 넓다. 이 종도 외눈이지옥나비와 같은 이유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43–47㎜이다. 외눈이지옥나비와 거의 같은 생김새이나 뒷날개 아랫면 외횡대 중앙에 작은 흰 점이 나타나 차이가 있다. 암컷은 수컷보다 조금 크고, 날개 외연이 둥글게 튀어나오는 점이 조금 다를 뿐 수컷과 크게 다르지 않다.

● 생태학적 특징

낙엽활엽수림의 가장자리나 산지의 풀밭에서 산다. 숲 주의의 양지쪽에서 활동하다가 체온이 올라가면 곧바로 그늘로 들어가는데, 하루 중 여러 번 이런 행동을 되풀이 한다. 암수는 조팝나무, 얇은잎고광나무, 고추나무 등의 꽃에서 꿀을 빤다. 암컷은 먹이식물의 잎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외눈이지옥나비보다 분포 범위가 조금 넓어서 경기도와 경상남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현재 경기도, 경상남북도와 강원도 일부의 산지의 초지에 분포한다. 산지의 산림화로 초지가 축소되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한랭성인 이 종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Erebia wanga is almost identical with *Erebia cyclopius* in ecological characteristics, but this species is more widely distributed, covering Gyeonggi-do and low-altitude mountains of Gangwon-do. This species is also on a decline for the same reason as for *Erebia cyclopiu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금빛어리표범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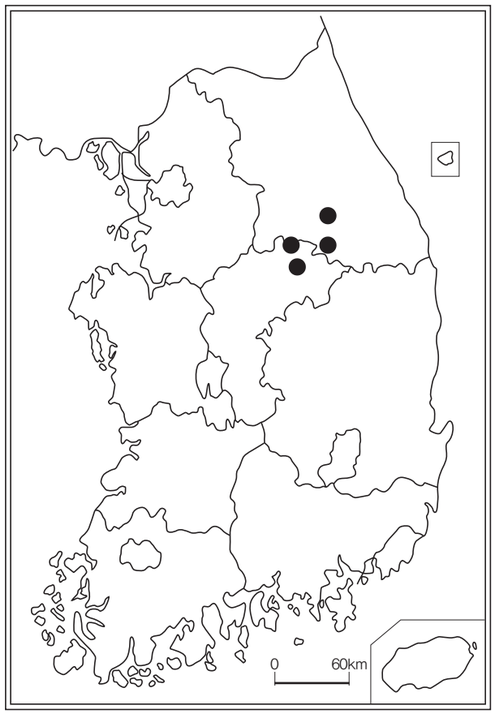
Euphydryas davidi (Oberthür, 1881)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 영월 지역에만 분포한다. 과거에는 경기도 일부 지역에도 분포했으나 최근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서식지는 나무가 별로 없는 관목림 주위의 초지이기 때문에 빠른 산림화에 따라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1–40㎜이다. 날개는 전체적으로 가늘고 길다. 날개는 적갈색 바탕에 검고 가는 무늬가 있으며, 뒷날개 기반부에 이 무늬가 대체로 짙고 넓어 어두워 보인다. 날개 아랫면은 검은 무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적갈색 바탕이다. 뒷날개 외횡대에는 각 방에 작고 검은 점들이 외연과 나란하게 나타나고, 이 무늬는 날개 아랫면에서도 뚜렷하다. 암컷은 수컷보다 날개가 크고, 외연이 둥글다.

● 생태학적 특징

낮은 산지의 구릉지에 사는데, 나무가 적어 먹이식물이 살 수 있는 관목림이 좋은 서식지다. 이런 곳은 남한에서 현재 강원도 영월의 석회암 지대다. 풀밭을 낮게 날면서 엉겅퀴, 조뱅이, 당조팝나무의 꽃에서 꿀을 빤다. 수컷은 빠르게 날면서 암컷을 탐색하는데, 맑은 오후에 200–300m의 산정의 나뭇잎 위에서 텃세행동을 한다. 암컷은 활발하지 않으며, 풀밭에서 낮게 날다가 먹이식물 잎 뒤에 200–300개의 알을 덩어리로 낳아 붙인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 영월과 충청북도 단양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강원도 영월과 충청북도 단양 일부 지역의 초지에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산지의 산림화로 초지가 축소되어 서식지의 질적인 저하가 나타나고, 기후변화가 한랭성인 이 종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출현 범위가 좁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Euphydryas davidi occurs in Yeongwol region in Gangwon-do. This species was previously seen in some localities of Gyeonggi-do, but not any longer. As its habitat is grasslands around shrubby areas lacking tall trees, the rapid growth of trees seems to be blamed for its disappearance.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공작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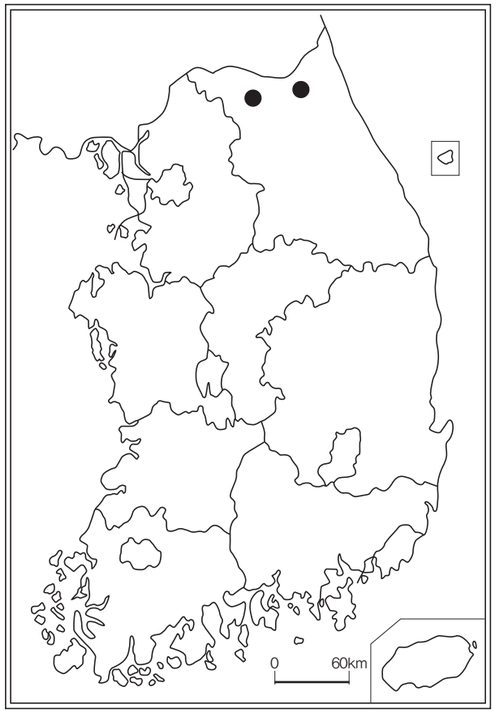
Inachis io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Peacock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 일부 지역에만 분포한다. 서식지는 높은 산지의 낙엽활엽수림 가장자리다. 신선나비의 경우처럼 기후변화 등의 요인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57㎜ 안팎이다. 날개에 큰 눈 모양 무늬가 있어 독특하다. 날개는 붉은색 바탕에 앞날개 윗면 중실 위에 검은 무늬가 나타나는데, 날개끝으로 눈 모양 무늬가 있고, 뒷날개 중실 위 외반부에 눈 모양 무늬가 크게 나타난다. 날개 윗면 기부에는 청색 비늘가루가 있다. 날개 아랫면은 들신선나비와 닮았으나 뒷날개 중횡대에 구불구불한 검은 선 무늬가 나타난다. 암수는 특별한 무늬 차이가 없어 배 끝을 보고 판별해야 한다.

● 생태학적 특징

한랭한 산지의 계곡이나 능선 주위의 풀밭에서 산다. 큰까치수염, 붉은토끼풀, 엉겅퀴류, 루드베키아, 금계국, 체꽃에 날아온다. 수컷은 맑은 날 그늘진 축축한 땅이나 암벽에 앉는 일이 있고, 암컷은 먹이식물 잎 뒤에 무더기로 알을 낳는다고 한다. 남한 지역에서는 관찰 자료가 많지 않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남획이나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e)

한랭성인 이 종이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현 범위가 매우 좁다. 따라서 VU A1(a, d, e)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Inachis io, the peacock is seen locally in some areas of Gangwon-do. Its habitat is on edges of deciduous forests in high altitude mountains. The decline of this species seems to attributable to climate change, like *Nymphalis antiopa*.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제삼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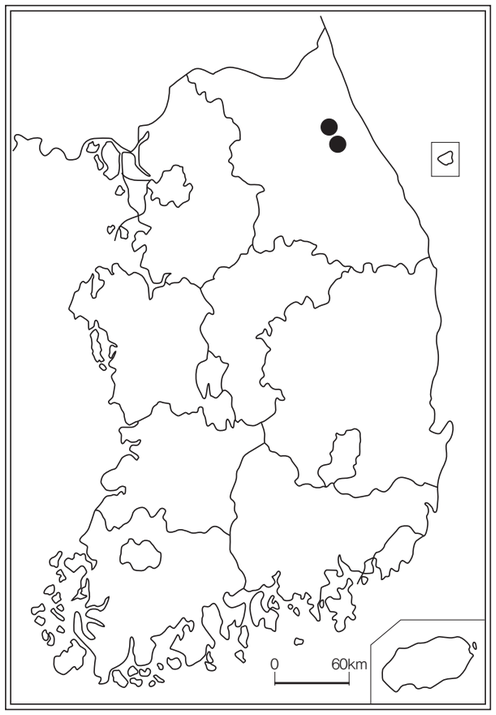
Limenitis homeyeri Tancré, 1881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 높은 산지에 분포한다. 서식지는 낙엽활엽수림 가장자리인데, 최근 뚜렷한 이유 없이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46–50㎜이다. 닮은 종에는 제일줄나비와 제이줄나비가 있다. 이들 3종의 생김새는 매우 닮았으나 앞날개 윗면 중실에 나타나는 흰 띠무늬와 뒷날개 아랫면 기부 근처의 회색 무늬에 나타나는 검은 점무늬가 조금 다르다. 이 종은 특히 앞날개 윗면 중실의 띠무늬가 가장 가늘고 그 외의 흰무늬도 작아 전체가 어두우며, 뒷날개 아랫면의 기부도 닮은 종 가운데 가장 어두워 쉽게 구별된다.

● 생태학적 특징

추운 지역의 숲 가장자리, 계곡, 물가, 빈터에서 이따금 보이나 매우 드물다. 아직 꽃 꿀을 빠는 관찰기록은 없고, 수컷이 축축한 곳이나 새똥에 모여 즙을 빠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암컷은 계곡 주변의 먹이식물을 찾아다니면서 잎 뒤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 일부 산지에서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남획이나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산지의 지속적인 산림화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의 감소는 물론 서식지가 질적으로 저하되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Limenitis homeyeri is seen in high altitude areas of mountains in Gangwon-do, especially on the edges of deciduous forests. This species is on a decline for unknown reason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왕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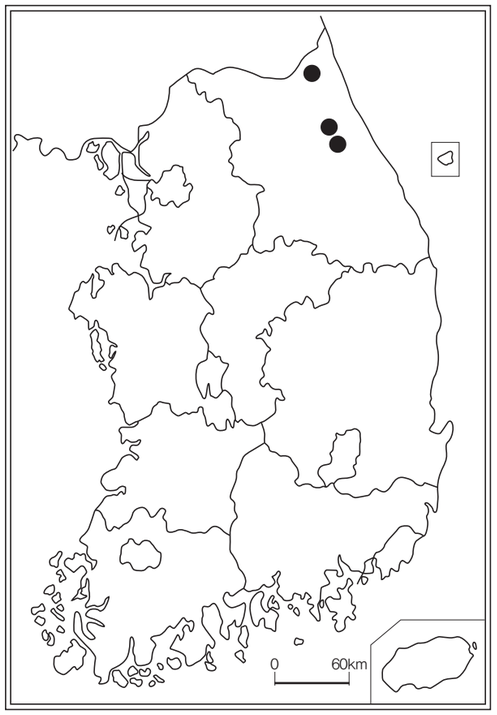
Limenitis populi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Poplar Admiral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 오대산과 계방산 등 높은 산지에 매우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남획과 기후변화 요인 때문에 이 종이 급감한 것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57–68㎜이다. 줄나비류 중에서 가장 큰 종이다. 날개 윗면은 흑갈색 바탕에 흰 무늬가 나타나는데, 아외연부에 붉은 줄무늬가 나타나고, 뒷날개 외연부에 청록색 무늬가 희미하게 나타난다. 이와 달리 날개 아랫면은 전체가 붉은색 바탕으로, 청록색 무늬와 검은색 무늬가 나타난다. 암컷은 수컷보다 대체로 크고, 외연부가 둥글어지고, 특히 날개의 흰 띠의 폭이 더 넓다.

● 생태학적 특징

계방산과 오대산처럼 차가운 기후대인 산지에 산다. 수컷은 물기 있는 땅바닥에 잘 앉으며, 7월에 산 정상의 한 자리를 차지해 텃세행동을 심하게 한다. 암컷은 잘 날지 않으며, 먹이식물 주위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으나 수컷과의 짝짓기를 위해 산정으로 오르는 것으로 보인다. 알 낳는 행동에 대한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자료는 없다. 이 종의 먹이식물은 황철나무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 일부 산지에서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남획이나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산지의 지속적인 산림화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의 감소는 물론 서식지가 질적으로 저하되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현 범위가 매우 좁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Limenitis populi is confined to a few localities of Gangwon-do, such as Mt. Kyebang. Its foodplant is *Populus maximowiczii* (Salicaceae). Overcollecting and climate change may be responsible for its sharp decline.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흰뱀눈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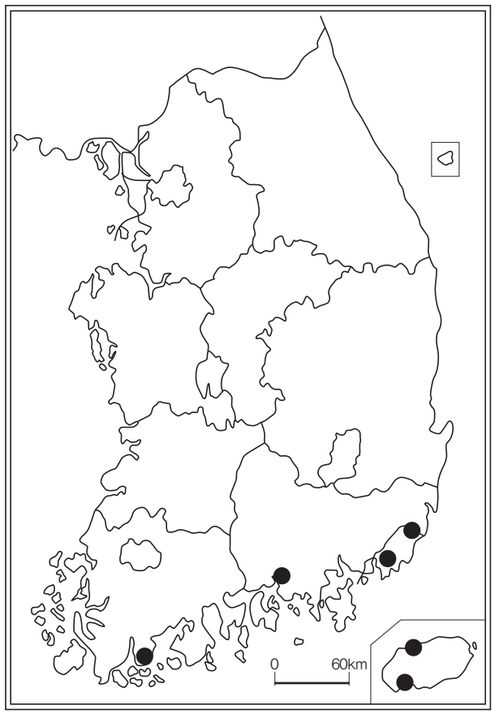
Melanargia halimede (Ménétriès, 1858)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제주도의 낮은 지역과 해안을 낀 남부지방에 분포한다. 최근 초지의 축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53–65㎜이다. 뱀눈나비아과 중에서 드물게 바탕색이 희다. 날개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무늬가 퍼져 있다. 하지만 수컷과 달리 암컷의 날개 아랫면은 황갈색기가 강하다. 특히 뒷날개에는 중실 위쪽으로 검은 띠가 조금 나타나고, 외연부가 폭 넓게 검어지는 외에는 앞날개보다 밝다. 암컷이 수컷보다 조금 큰 외에는 암수의 무늬 차이는 거의 없다.

● 생태학적 특징

낮은 지대의 햇빛이 잘 드는 묘지 주변이나 억새 풀밭 사이에서 사는데 쉴 사이 없이 풀과 풀 사이를 천천히 날아다닌다. 암컷은 수컷에 비해 잘 날지 않으며 풀에 붙어 쉬는 시간이 많다. 암수 모두 엉겅퀴, 돌가시나무, 꿀풀 등 여러 꽃에서 꿀을 빤다. 암컷은 먹이식물에 가까운 주변 물질 또는 고사리 잎 등에 알을 1–6개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제주도의 저지대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안지대에서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현재 제주도의 저지대와 경상남도와 전라남도의 해안지대의 초지에만 분포하고 있는데, 점차 초지가 축소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 적응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원인으로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Melanargia halimede is distributed in Jeju-do and southern coastal areas of the Korean Peninsula. Lately, the decrease of grasslands is likely responsible for the sharp decline of this specie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밤오색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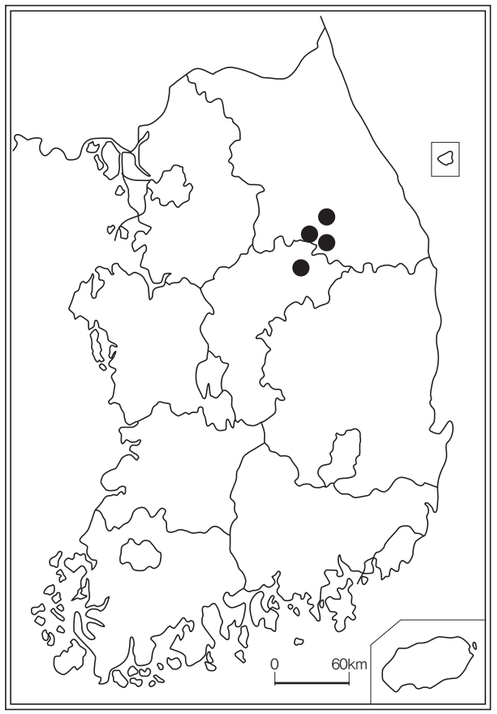
Mimathyma nycteis (Ménétriès, 1859)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 영월과 정선의 일부 지역에만 분포한다. 서식지는 숲이 발달하지 않은 관목림 지대다. 차츰 이런 장소가 나무가 무성해지면서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이 지역에서 이 종도 감소하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64–87㎜이다. 언뜻 보면 생김새가 세줄나비류(*Neptis* spp.)로 보이지만 오색나비류에 가깝다. 날개 윗면은 짙은 흑갈색 바탕에 흰 점과 띠무늬가 나타나고, 아랫면은 벽돌색 바탕에 흰 점과 띠무늬가 나타난다. 앞날개 아랫면에는 중실에 흰 바탕에 검은 점 4개가 있고, 후연부는 검은 바탕이다. 암컷은 수컷보다 날개폭이 넓으며, 외연이 조금 둥글다. 또 날개 아랫면의 바탕색이 조금 엷다.

● 생태학적 특징

강원도 영월 지역은 해발 400m 정도의 산지로 2m 정도의 느릅나무가 있는 곳에서 산다. 수컷은 축축한 개울가나 인가의 벽, 담장, 두엄 더미에 잘 모이며, 낮은 산의 확 트인 정상에서 오후에 텃세행동을 한다. 암컷은 산의 능선에서 배회하며 그다지 활동적이지 않으나 떡갈나무나 느릅나무, 물푸레나무의 나뭇진에 붙어 빨아먹는데, 수컷도 같은 장소에서 볼 수 있다. 암컷은 2m 이내의 낮은 먹이식물의 잎 위에 알을 낳으며, 애벌레끼리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한 나무에 하나만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 영월과 정선 지역에서만 일부 관찰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남획이나 서식지의 산림화, 기후변화 등의 원인 등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한랭성인 이 종이 기후변화와 땔감의 변화 등의 원인으로 관목림이던 서식지가 변화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현 범위가 매우 좁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Mimathyma nycteis is distributed locally in areas of Yeongwol and Jeongseon of Gangwon-do. Its habitat is shrubby areas where trees cannot grow well. However, with the growth of some trees in this area, this species is also on a decline.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중국황세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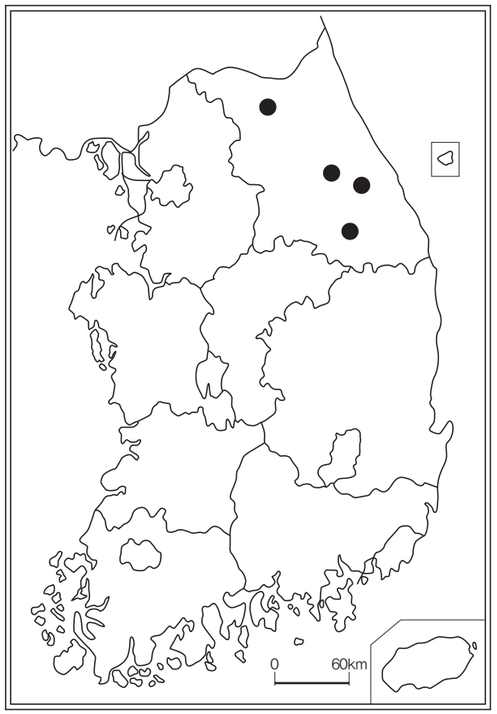
Neptis tshetvericovi Kurentzov, 1936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의 일부 높은 산지에 분포한다. 서식지는 신갈나무림 주변으로, 기후변화 등의 이유로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49–59㎜이다. 생김새는 황세줄나비와 아주 닮았다. 날개는 흑갈색 바탕에 주황색 띠가 가로로 나타난다. 이 띠의 색이 황세줄나비보다 붉은색이 더 강하다. 날개 아랫면은 바탕이 붉은색이 강하고, 가로 띠 무늬도 보라색을 머금은 흰색으로 나타난다. 특히 앞날개 아랫면 중실 위에 흰 보랏빛 점무늬가 뚜렷하고 뒷날개 윗면 중실 위 흰 보랏빛 점들이 황세줄나비와 달리 점들로 나타난다. 암수 차이는 크지 않으며,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크다.

● 생태학적 특징

차가운 기후대의 산지 활엽수림 가장자리에서 산다. 수컷은 물기 있는 땅바닥에 앉는데, 새똥에도 이따금 앉는다. 계방산 운두령과 같은 높은 능선에서 발견되는데, 우거진 숲속 좁은 등산로 바닥에 앉을 때도 있다. 암컷은 먹이식물 주변의 나무 사이를 천천히 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높은 나뭇잎에 앉아 쉬므로 잘 발견되지 않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남획이나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현재 강원도 일부 산간 지역에 분포한다. 이 종이 한랭성인 관계로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의 감소는 물론 서식지가 질적으로 저하되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현 범위가 좁다(10개 지역 이하).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Neptis tshetvericovi is distributed locally in high altitude mountains of Gangwon-do. Its habitat is around *Quercus mongolica* (Fagaceae). Climate change seems to be responsible for the decline of this speice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신선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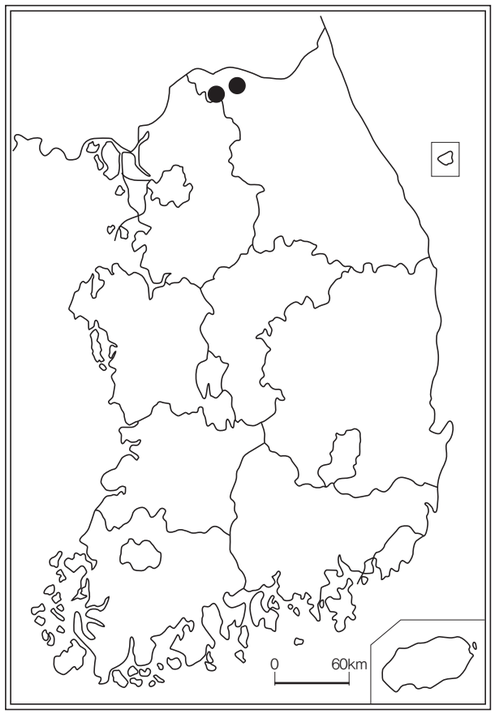
Nymphalis antiopa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Mourning Cloak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 일부 지역에만 분포한다. 갈구리신선나비와 들신선나비처럼 기후변화 등의 요인 때문에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59–68㎜이다. 날개 외연이 폭 넓게 노란 띠가 나타난다. 날개는 윗면과 아랫면의 무늬 차이가 크지 않은데, 다만 윗날개 윗면 전연부에 있는 노란 네모꼴 무늬와 외횡대의 각 방에서 이어지는 청색 점무늬는 아랫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앞날개 제5맥과 뒷날개 제3맥에는 외연 바깥으로 튀어나온다. 암수는 특별한 무늬 차이가 없어 배 끝을 보고 판별해야 한다.

● 생태학적 특징

한랭한 산지의 계곡에서 산다. 버드나무의 진이나 발효된 복숭아 열매에 날아오는데, 남한에서의 관찰기록이 거의 없다. 수컷은 깊은 계곡의 축축한 땅이나 암벽에 앉는 일이 있는데, 날 때에는 활강하듯 천천히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남한 지역에서는 개체수가 많지 않아 관찰 자료가 많지 않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e)

한랭성인 이 종이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현 범위가 매우 좁다. VU A1(a, d, e)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Nymphalis antiopa, the Mourning Cloak is distributed locally in the mountains of Gangwon-do. The cause for its decline seems to be climate change, just like the previous two specie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갈구리신선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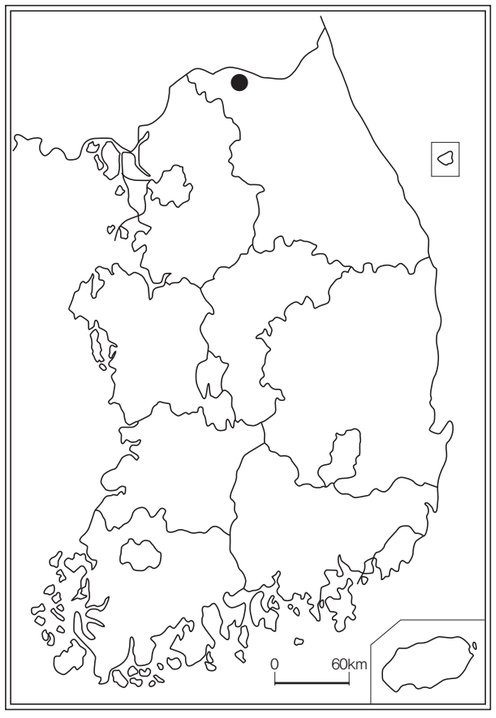
Nymphalis l-album (Esper, 1780)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Comma Tortoiseshell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 산지에 분포한다. 서식지는 높은 산지의 계곡 주변으로, 최근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지만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차츰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62–68㎜이다. 날개의 외연은 뜯긴 모양으로 굴곡이 심하다. 대체로 날개는 적갈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발달한다. 날개 끝과 뒷날개 윗면 중실 바깥에 세로로 짧고 굵은 흰 띠가 있다. 날개 아랫면은 암수가 조금 다른데, 수컷은 기반부가 짙은 흑갈색 띠로 되어 있어 외반부의 밝은 부분과 크게 대비되나 암컷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엷은 황갈색을 띠어 차이가 난다.

● 생태학적 특징

한랭한 산지의 계곡에서 산다. 참나무나 느릅나무, 버드나무의 진에 날아오는데, 이른 봄에 보이는 개체는 드물게 꽃에 찾아오는 것으로 보인다. 수컷은 확 트인 산길의 축축한 땅이나 암벽에 앉는 일이 있으며, 계곡을 가로지르며 재빨리 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남한 지역에서는 개체수가 많지 않아 관찰 자료가 많지 않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남획이나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e)

한랭성인 이 종이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현 범위가 매우 좁다. 따라서 VU A1(a, d, e)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Nymphalis l-album is seen in Gangwon-do, where its habitat is located around valleys of high altitude mountains. This species is on a decline for no concrete reason, but probably due to climate change.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들신선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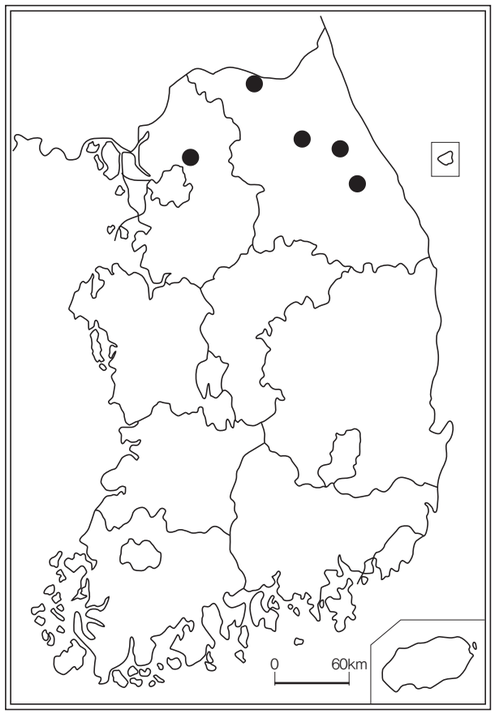
Nymphalis xanthomelas (Esper, 1781)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Mourning Cloak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 산지 이북에 분포한다. 과거에는 전국의 산지에 흔한 종이었다. 최근 급격한 감소하는데, 그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갈구리신선나비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65–73㎜이다. 전체의 생김새는 갈구리신선나비와 닮았으나 조금 크고, 외연의 굴곡이 덜 심하다. 또 날개 윗면의 바탕색이 좀더 붉고 검은 무늬가 적어 전체가 밝고 붉게 보인다. 반면 날개 아랫면은 갈구리신선나비와 다르게 암수 차이가 없으나 기반부가 검고, 외반부가 조금 밝은데, 아외연부에 검은 띠가 나타난다. 암수는 특별한 무늬 차이가 없어 배 끝을 보고 판별해야 한다.

● 생태학적 특징

과거에는 낮은 산지에서도 흔히 보였으나 요즈음 한랭한 산지의 계곡이나 능선에서 산다. 버드나무 진에 날아오나 흔하지 않으며, 봄에 갯버들 꽃에 날아온 일도 가끔 있다. 이른 봄에 양지바른 길에서 날개를 편 채로 일광욕을 한다. 수컷은 확 트인 계곡의 축축한 땅이나 암벽에 날개를 편 채로 앉아 텃세행동을 한다. 암컷은 먹이식물의 잎에 알을 덩어리로 낳는데, 특별한 모양을 이루지 않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남획이나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e)

한랭성인 이 종이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의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현 범위가 매우 좁다(10개 지역 이하). 따라서 VU A1(a, d, e)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Nymphalis xanthomelas is distributed in mountains north of Gangwon-do in latitude. This species was a common one across the country. It has undergone sharp decline lately, which may be attributable to climate change, as in *Nymphalis l-album*.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참산뱀눈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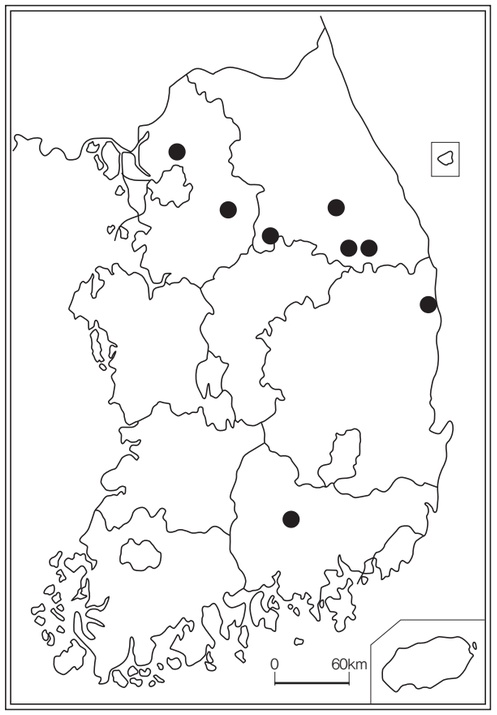
Oeneis mongolica (Oberthür, 1876)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함경산뱀눈나비와 거의 같은 생태적 습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한반도 내륙의 낮은 산지의 일부 지역만 분포하므로 두 종간에는 지리적으로 격리 분포한다. 이 종도 초지의 축소 때문에 급격하게 개체수가 줄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40–55㎜이다. 함경산뱀눈나비와 아주 닮았으나 대체로 작고, 날개의 바탕색이 조금 짙은 편이다. 함경산뱀눈나비와 다른 점은 앞날개 윗면 외횡대의 뱀눈모양 무늬가 2개 뚜렷하고, 뒷날개 아랫면 외횡대에 '〈'자 무늬가 뚜렷하게 보이는 점이 조금 다르다. 암수 구별은 함경산뱀눈나비의 경우와 거의 같다.

● 생태학적 특징

함경산뱀눈나비와 사는 장소가 거의 같다. 맑은 날 김의털 사이에서 비스듬히 앉아 일광욕을 한다. 수컷은 갑자기 날아올랐다가 앉기를 되풀이하면서 암컷의 행방을 찾는다. 암수는 조팝나무, 국수나무 등의 꽃에 날아와 꿀을 빠는데, 그리 흔하게 볼 수 없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만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현재 강원도와 경기도, 경상도 일부 지역의 초지에만 분포한다. 산지의 산림화로 초지가 축소되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한랭성인 이 종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Oeneis mongolica is almost identical with *Oeneis urda* in ecological requirements. However, they are geographically disjunct, as *Oeneis mongolica* occurs only in some areas of low-altitude mountains. This species is also decreasing rapidly because of diminishing grassland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함경산뱀눈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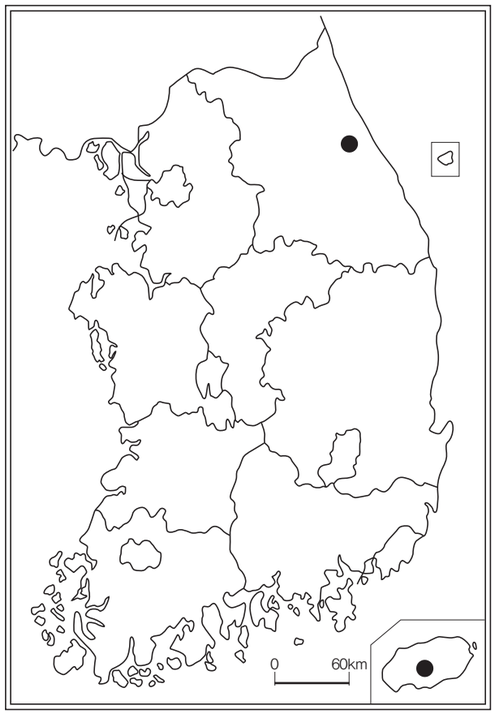
Oeneis urda (Eversmann, 1847)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 양양과 제주도 한라산의 고지에 분포한다. 서식지는 나무가 없는 키 작은 풀밭인데, 최근 풀밭의 감소함에 따라 이 종이 급격하고 감소하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8–52㎜이다. 날개는 엷은 갈색, 황갈색 또는 흑갈색, 두 색이 합쳐진 바탕에 외횡대에 뱀눈 모양 무늬가 나타난다. 암수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암컷 쪽의 바탕색이 조금 더 짙고, 더 크며, 배가 두드러지게 굵은 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

● 생태학적 특징

주변이 확 트인 풀밭이나 임도의 벼랑과 같이 김의털이 잘 자라는 밝은 곳에서 산다. 한라산에서는 1,700m에 있는 윗세오름 주변 풀밭에 많다. 맑은 날 김의털 사이에서 비스듬히 앉아 쉬다가 인기척이 나면 5–6m 날아가 앉는다. 이때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여러 꽃에 날아와 꿀을 빤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제주도 한라산 1,300m 부근의 초지와 강원도 양양 지역에서만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남한에서는 제주도 한라산 1,300m 부근의 초지와 강원도 양양 지역의 초지에만 분포하는데, 산지의 산림화로 초지가 축소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원인으로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Oeneis urda occurs in Yangyang of Gangwon-do and high altitude areas of Mt. Halla in Jeju-do. This species is a resident of short-turf grasslands without trees, but is declining rapidly with the disappearance of grassland habitat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붉은점모시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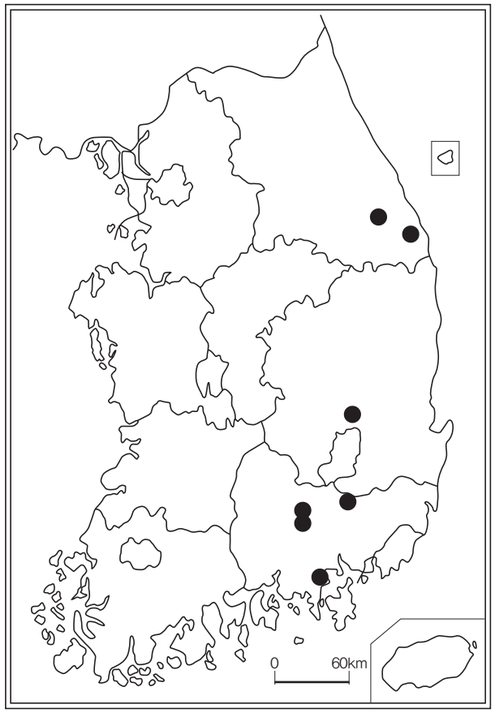
Parnassius bremeri Bremer, 1864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호랑나비과 (Papilionidae)

영명: –
지정현황: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Ⅱ급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와 경상남도 극히 일부 지역에만 국지적으로 확인된다. 서식지는 바위가 많은 풀밭지대인데, 최근 나무가 무성해지면서 서식지의 범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II급이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65–75㎜이다. 더듬이는 호랑나비과 중에서 짧은 편이고 검다. 날개 윗면은 흰색 바탕이지만 막 우화한 개체는 노란색을 머금고 있다. 앞날개 중실과 뒷날개 제5실과 7실에 검은 원 무늬가 있는데, 앞날개에서는 검은색이고, 뒷날개에서는 테두리만 검고 속은 붉은색을 채워진다. 이밖에 뒷날개 기부에도 붉은 무늬가 나타난다. 중횡대와 외횡대에는 검은 띠가 희미하게 있다. 날개 윗면보다 아랫면에서 붉은 점이 더 짙다. 또 암컷이 수컷보다 바탕색이 짙으며, 붉은 점이 더 짙다.

● 생태학적 특징

산지나 평지의 나무가 별로 없는 장소에서 산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양지 바른 곳에서 오전에 활발하게 낮게 날아다닌다. 수컷은 이따금 산 정상까지 날아오르지만 특별한 나비길을 만들지 않는다. 암수 모두 엉겅퀴와 기린초 등에서 꽃 꿀을 빤다. 모시나비처럼 짝짓기를 할 때, 수컷은 암컷의 배 끝에 짝짓기주머니를 만들어 붙인다. 암컷은 먹이식물 부근을 잘 떠나지 않으며, 그 주위의 마른 잎이나 줄기, 돌 등에 알을 하나씩 낳아 붙인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삼척)과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 분포한다(김 · 박, 2001; 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근 나무가 무성해지면서 서식지인 풀밭의 범위가 급격히 감소한 것이 최대 위협 요인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이 나비의 관상 가치가 높아 이를 수집하기 위해 남획의 대상이 된 것도 이 종의 위협 요인이었다고 본다.

● 평가 결과: VU A1(a, d)

경남 일부 지역과 강원도 삼척에만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산지의 산림화가 가속화해 초지가 축소되는 경향을 볼 때,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보존 현황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으로 지정 ·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Parnassius bremeri is a rare species in South Korea. Its habitat is rocky grassland, which is rapidly dwindling due to the overgrowth of surrounding tree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꼬리명주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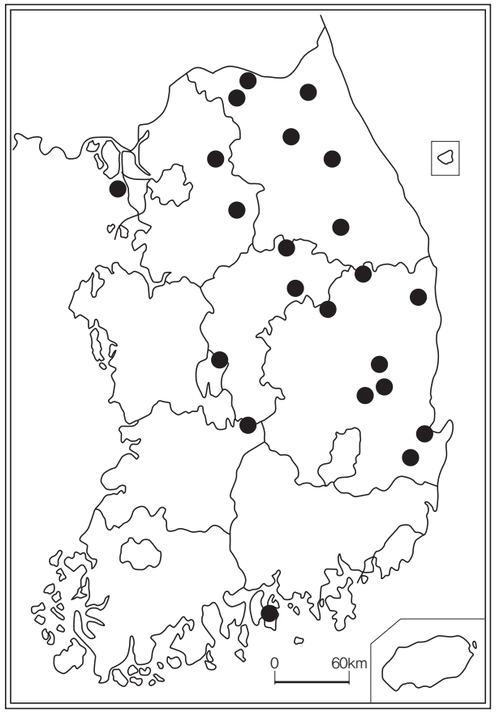
Sericinus montela Gray, 1852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호랑나비과 (Papilion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과거에 한반도 내륙 경작지 주변 풀밭 어디에나 흔했으나 최근 급격히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농촌의 경작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흔하던 먹이식물이 급격히 감소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45–58㎜이다. 날개의 바탕색은 암수가 뚜렷하게 다른데, 수컷이 엷은 황갈색, 암컷이 적갈색 바탕에 수컷에서 갈색, 암컷에서 황갈색 무늬가 나타난다. 앞날개 중실 바깥의 외횡대와 뒷날개 외횡선이 붉은색으로 이어지는데, 이 색이 뒷날개에서는 이어지지 않는다. 암수 모두 뒷날개의 꼬리모양돌기가 있으며, 매우 길다.

● 생태학적 특징

야산과 가까운 경작지 주변이나 개천 주위의 습기가 많은 풀밭에서 산다. 맑은 날 오전부터 오후 늦게까지 느릿느릿 날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날 때에는 홰를 치듯이 날개를 움직이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날 때에는 미끄러지듯 활주한다. 오전에 일광욕을 하기 위해서 날개를 펴고 앉는 일이 있으나 온도가 올라가면 날개를 접는다. 짝짓기는 풀의 줄기와 잎 또는 낮은 위치의 나뭇잎 위에서 암컷이 위에서 수컷이 아래에 매달리는 자세로 이루어진다. 암컷은 오전 중에 먹이식물 줄기나 새순에 5–95개의 알을 한꺼번에 낳는다. 짝짓기를 할 때 암컷 배 끝에는 짝짓기주머니가 만들어지는데,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와 경기도, 경상남북도의 일부 하천 주위와 산지에서 확인되고 있고(김 · 서, 2012), 충북 청원군 낭성면, 제천군 수산면에서도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식지의 파괴가 개체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주로 경작지 주변 풀밭에 흔했는데,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경작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먹이식물인 쥐방울덩굴이 없어지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B1ab(i)

이 종의 주요 서식지인 경작지가 정리되고 농약의 살포가 지속되고 이루어져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 B1ab(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Sericinus montela was quite common in the Korean peninsula in grasslands around arable land, but is rapidly declining in numbers because of the disappearance of its foodplant in the course of re-shaping farmlands since the 1990'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멧노랑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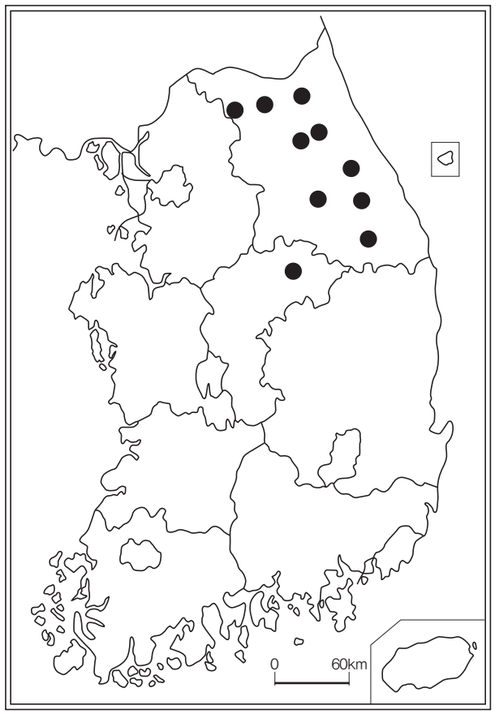
Gonepteryx maxima Butler, 1885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흰나비과 (Pier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과거에 한반도 내륙 산지에서 볼 수 있었으나 최근 강원도 산지의 숲 가장자리에서만 볼 수 있다. 이는 기후온난화에 따른 영향 때문으로 보이며, 남한에서의 이 종의 서식지 축소가 가속화하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57–64㎜이다. 날개는 수컷이 노란색, 암컷이 연두색 바탕이다. 날개끝은 뾰족해 갈고리 모양이다. 앞뒤날개의 중실에는 붉은 점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뒷날개의 점이 더 크다. 날개 외연에는 연분홍색 무늬가 맥 위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날개 아랫면은 윗면보다 색이 엷고, 제7맥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 생태학적 특징

산지의 풀밭에 살며, 7월 말 이후 개망초, 엉겅퀴, 쥐손이풀 등 여러 꽃에서 발견된다. 한여름에 잠을 잔 후 9월경에 잠시 활동하면서 에너지를 축적하고 겨울을 난다. 나는 모습은 각시멧노랑나비와 차이가 없어서 잡아서 확인하는 것이 확실하다. 이 나비와 각시멧노랑나비는 생김새나 습성이 닮았지만 각시멧노랑나비가 더 이른 봄에 활동하고, 월동 개체가 날개에 갈색 무늬가 뚜렷한 점에서 다르다. 수컷은 축축한 물가에 잘 내려앉는다. 암컷은 5월 중순 이후 먹이식물의 잎 위나 줄기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충북과 강원도 산지에서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식지의 파괴가 개체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나비의 먹이식물은 관목인 갈매나무인데, 산림화가 진행되면서 먹이식물의 분포 범위가 줄어듦과 동시에 이 나비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추운 기후대에 적응한 이 나비가 기온변화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VU A1(a, d); D2

산지의 지속적인 산림화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의 감소는 물론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어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 D2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Gonepteryx maxima was previously seen in mountainous regions of Korean Peninsula, but nowadays its occurrence is reduced to forest edges in Gangwon-do. The decline seems to be affected by global warming and the deterioration of its habitat being thus escalated.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기생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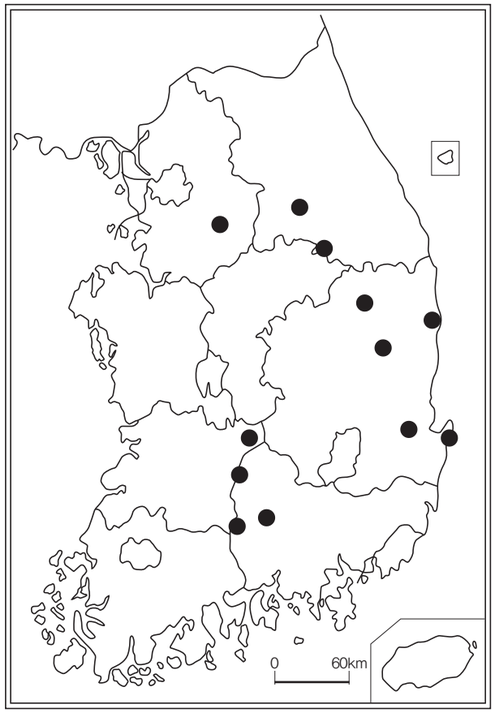
Leptidea amurensis (Ménétriès, 1859)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흰나비과 (Pier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가나 하천 주위의 풀밭에서 살며, 먹이식물인 갈퀴나물 주위에서 천천히 나는 습성이 있다. 강이나 하천 주변에 사람의 편의시설이나 인공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 나비의 서식지가 점차 파괴되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40–50㎜이다. 날개는 가늘고 긴 형태로, 날개끝이 뾰족하게 튀어나온다. 날개는 흰색 바탕에 검은 무늬가 나타나는데, 계절에 따른 차이가 난다. 봄형은 앞날개 윗면에 빗살처럼 검은 무늬가 나타나고, 여름형은 짙게 검은 무늬가 나타난다. 하지만 암컷 여름형에서는 봄형처럼 검은 무늬가 희미한 경우가 많다. 날개 아랫면의 바탕은 봄형에서만 엷은 노란색이 나타난다.

● 생태학적 특징

낮은 산지나 농경지 주변에 사는데, 석회암 지대의 밝은 풀밭에서도 볼 수 있다. 최근 농경지와 택지가 많이 개발되면서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다. 꿀풀과 타래난초 등 여러 꽃에서 꿀을 빠는데, 보라색 계열의 꽃을 좋아한다. 수컷은 물가에 오거나 꽃 꿀을 빨 때 외에는 거의 쉬지 않고 천천히 날아다닌다. 암컷은 오후에 먹이식물의 새싹에 알을 하나씩 낳아 붙인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지리산 이북의 산지에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강원도 높은 산지는 닮은 종인 북방기생나비가 주로 분포하며, 이 종은 분포하지 않는다.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식지의 파괴가 개체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강가나 하천 주위의 풀밭에서 사는데, 특히 먹이식물인 갈퀴나물이 군락을 이뤄야 한다. 최근 강 주변에 체육시설, 자전거도로 등 사람의 편의시설이 들어서면서 이 나비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 평가 결과: VU A1(a, d)

이 종의 주요 서식지인 하천이나 강 주변의 초지 환경이 하천 정비사업 등으로 변화가 클 것으로 보여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VU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Leptidea amurensis inhabits grasslands nearby rivers or streams, and slowly flies around its foodplant, *Vicia amoena* (Leguminosae).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riparian areas for human facilities, its habitat is gradually being destroyed.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큰주홍부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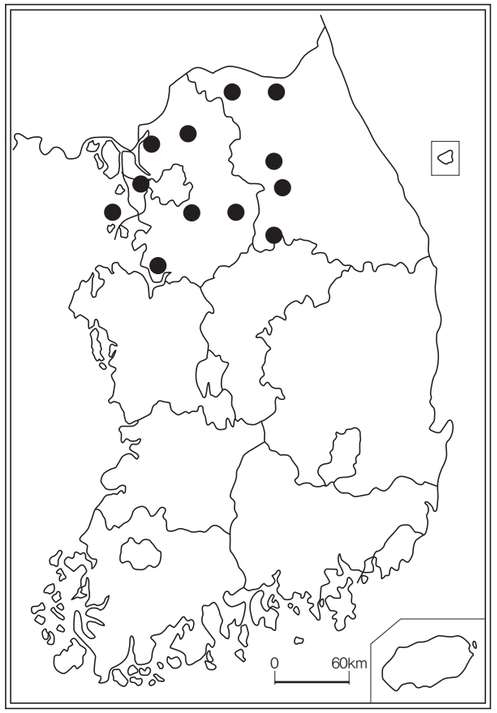
Lycaena dispar (Haworth, 1803)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부전나비과 (Lycaenidae)

영명: Large Copper
지정현황: –
IUCN 범주: LR/NT

● 요약

IUCN 범주(category)에서 LR/NT로 규정된 종으로, 우리나라 중부의 강이나 하천 주위의 풀밭에 산다. 다만 IUCN 범주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분포역이 늘고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강 주변을 정리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28–34㎜이다. 날개의 무늬는 암수가 뚜렷하게 다르다. 큰 차이점은 날개 윗면이 수컷에서는 외연만 가늘게 검은 띠가 나타나는 외에는 광택이 나고, 붉은색이 강한 주황색인데 비해 암컷에서는 앞날개 외연의 검은 띠가 더 굵고 외횡대에 각 방에서 검은 점무늬가 이어지고, 중실에 검은 점이 2개가 나타난다. 또 날개 아랫면은 아외연부의 주황색 무늬 외에는 흑갈색을 띠어 꽤 다르다. 날개 아랫면은 암수의 차이가 없다.

● 생태학적 특징

습한 풀밭이 많은 강이나 하천, 논 주변에 산다. 요즈음 한강 유역의 풀밭에 많다. 이것은 한강 유역의 풀밭을 인위적으로 정비하면서 먹이식물인 소리쟁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컷은 재빨리 날며, 점유행동을 강하게 한다. 개망초, 여뀌, 민들레 등 여러 꽃에서 꿀을 빤다. 암컷은 먹이식물의 잎 위나 아래에 하나씩 낳는데, 한 암컷이 여러 번 낳거나 여러 암컷이 한 잎에 낳아 수십여 개가 보일 때도 있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기도와 강원도의 하천, 강 주위에서 확인된다.

● 위협 요인

무분별한 하천 개수공사, 농약의 살포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되고 있다.

● 평가 결과: NT B1ab(i)

일시적인 하천 정비 사업으로 개체수가 늘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보호종이이며, 관심대상종이다. NT B1ab(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Lycaena dispar is classified into LR/NT in IUCN categories, and is distributed in the grasslands near rivers or streams of thr central sec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contrary to the IUCN category, this species is continuing to expand its distribution range in Korea, as a result of temporary increases after reconfiguration of river banks. This species should be continually monitored for future trend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배양섭(인천대학교)

큰점박이푸른부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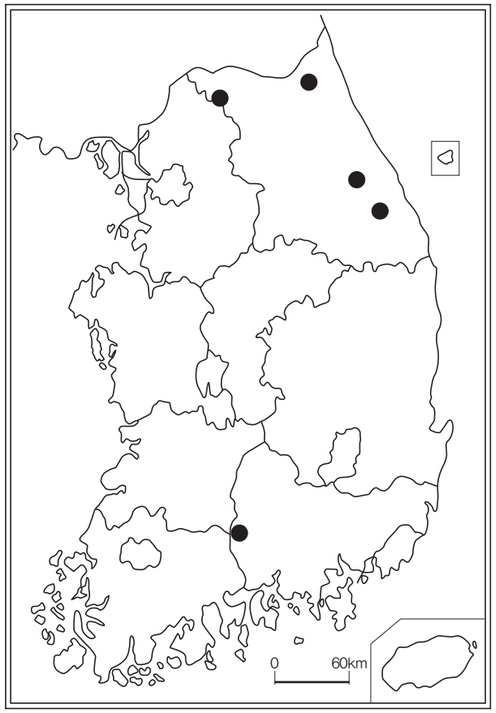
Maculinea arionides (Staudinger, 1887)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부전나비과 (Lycaenidae)

영명: Large Bluer
지정현황: –
IUCN 범주: LR/NT

● 요약

지리산 이북의 일부 산지에만 분포한다. 애벌레는 개미와 공생관계에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개미의 분포 범위가 줄어듦에 따라 이 종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3–37㎜이다. 우리나라 부전나비과 중에서 가장 크다. 날개 윗면은 청색 바탕에 외연에 검은 띠무늬가 있고, 중실에 하나의 검은 점과 외횡대 각 방에 한 개의 검은 점이 외연과 나란하게 있다. 날개 아랫면은 밝은 청회색 바탕에 날개 윗면과 같은 부위에 점무늬가 있는데, 뒷날개의 외연부와 아외연부에 검은 점무늬가 더 나타난다. 암컷은 대체로 날개 윗면이 수컷보다 검어지는 경향이 강한데, 날개 윗면 전체가 검어지기도 한다.

● 생태학적 특징

낙엽활엽수림의 숲 가장자리에서 산다. 수컷은 활발하나 암컷은 계곡 주변에서 천천히 날아다닌다. 암수가 오리방풀, 방아풀, 냉초 등의 꽃에서 꿀을 빤다. 암컷은 계곡에 자라는 먹이식물의 꽃봉오리에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지리산 이북의 산지에 국지적으로 분포한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무분별한 표적 채집으로 인한 남획과 서식지의 환경 변화 때문에 개미와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NT A1(a, d)

무분별한 채집과 초지의 축소 때문에 서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현재 확인된 개체군 수는 불과 10개 정도이다. 따라서 NT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Maculinea arionides is distributed locally in mountains north of Mt. Jiri in latitude. Its larva maintains a relationship of obligate myrmecophily with specific ant species. The dwindling distribution range of ant species following climate change may be blamed for the decrease of this specie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김용기(생물자원환경연구소)

담흑부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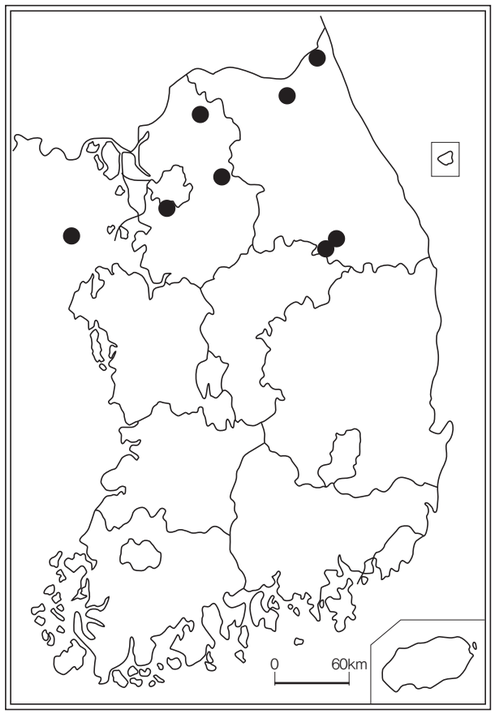
Niphanda fusca (Bremer et Grey, 1853)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부전나비과 (Lycaen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전국의 관목림 주변의 빈 터에서 산다. 애벌레는 일본왕개미와 공생관계에 있다. 최근 나무가 무성해지면서 이 나비의 서식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최근 이 종의 분포 지역은 경기도 도서지방과 강원도 일부 산지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33–42㎜이다. 수컷은 날개 윗면이 보라색 광택이 나지만 암컷은 흑갈색 바탕이어서 다르다. 이따금 암컷에서 중실 부위의 색이 엷어지는 개체도 있다. 날개 아랫면은 회갈색 바탕에 흑갈색 점무늬가 나타나는데, 일부 암컷 개체들 중에는 바탕색이 밝아지기도 한다. 이밖에도 수컷의 날개끝은 뾰족하지만 암컷은 날개 외연이 둥글게 보여 차이가 난다.

● 생태학적 특징

상수리나무와 소나무가 드문드문 자라는 곳에 산다. 개망초와 바늘엉겅퀴 등의 꽃에 모여 꿀을 빤다. 수컷은 서식지 주변 양지바르고 탁 트인 장소에 있는 나무 위에서 점유행동을 강하게 한다. 암컷은 일본왕개미의 집 근처에 한번에 5–12개의 알을 차례로 낳으며, 조밀하지 않지만 알 뭉치처럼 보인다. 알을 낳는 과정에서 암컷이 숙주개미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한다. 이 경우 한 번의 산란수가 1–7개로 줄어든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일부 경기도 섬 지역을 포함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국지적으로 확인된다.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식지의 산림화에 따른 환경 변화와 개미와의 공생관계를 유지하지 못해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NT A1(a, d)

서식지인 초지가 급속하게 산림화가 이루어지면서 사라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미와의 공생관계 때문에 생태환경 변화를 따르지 못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장소는 약 10지역에 불과하다. NT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Niphanda fusca is resident of clearings around the shrub by bushes of Korea. This species maintains a mutualism with the ant, *Camponotus japonicus*. Lately, with the overgrowth of trees, its habitat is disappearing rapidly. Its latest confirmed distribution range is confined to areas such as the mountains of Gangwon-do.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김용기(생물자원환경연구소)

조흰뱀눈나비

Melanargia epimede Staudinger, 1887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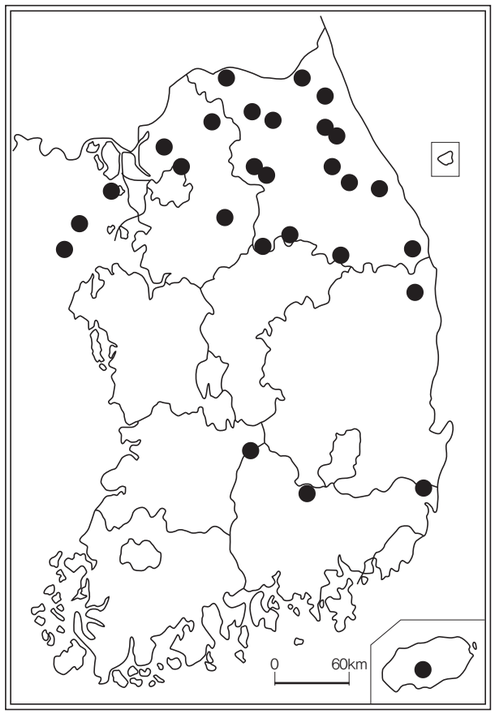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흰뱀눈나비와 거의 같은 생태적 특징을 가졌다. 다만 이 종 이 분포 면에서 볼 때 추운 지역에 치우쳐 두 종은 지리적으로 격리된다. 이 종도 흰뱀눈나비과 같이 초지의 축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52–65㎜이다. 흰뱀눈나비와 생김새가 거의 닮아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바탕색이 조금 어둡고, 크기가 조금 작은데, 한라산 고지의 개체들은 크기가 더 작으며, 경기도 서해 도서산은 날개 전체가 어두워지는 개체도 많이 나타나는 등의 지역에 따른 변이가 있다. 이 종과 흰뱀눈나비와의 차이는 뒷날개 아랫면 중횡대의 검은 줄무늬에 있는데, 이 종에서는 이 무늬가 뚜렷하지 않다.



● 생태학적 특징

산지의 풀밭에서 살며, 제주도 한라산에서는 1,100m부터 백록담까지의 건조한 풀밭에 산다. 큰까치수염, 개망초, 엉겅퀴, 백리향, 꿀풀, 곰취 등 여러 꽃에서 꿀을 빠는데,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경우가 많다. 수컷은 풀 사이를 쉼 없이 날아다니며 암컷을 탐색한다. 암컷이 국화과 율무쑥에 알을 낳은 경우를 발견한 적이 있었으나 이 식물은 먹이식물이 아니며 다만 먹이식물 주변에 알을 낳는 습성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한라산 고지대 초지와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이북의 산지에서 확인되고 있다(김 · 서, 2012).

● 위협 요인

서식지의 급속한 산림화에 따른 초지 감소 때문에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NT A1(a, d)

현재 한라산 고지대 초지와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이북의 산지의 초지에 분포하고 있는데, 산지의 산림화로 초지가 축소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원인으로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NT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Melanargia epimede shares almost identical ecological characteristics with *Melanargia halimede*. However, these two species constitute discrete colonies through geographical separation. The species is also on a rapid decline due to disappearing grassland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김용기(생물자원환경연구소)

개마별박이세줄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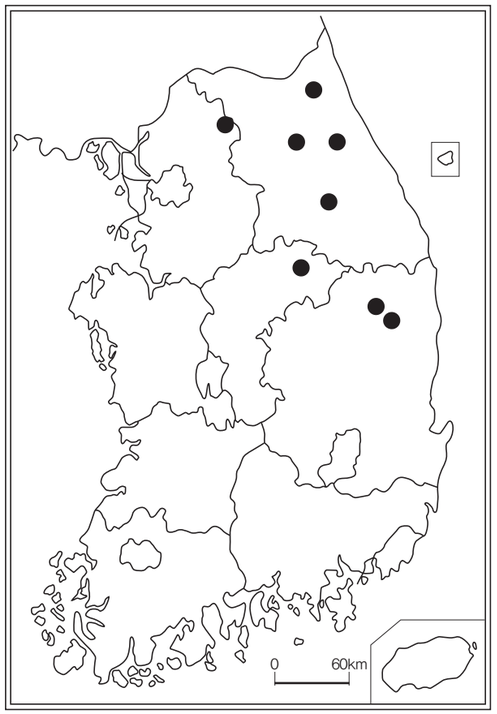
Neptis andetria Fruhstorfer, 1912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네발나비과 (Nymphal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경상북도 이북의 산지에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서식지는 조팝나무가 많은 관목림이며, 최근 산지의 풀밭의 범위가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감소하는 경향이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43–47㎜이다. 닮은 종인 별박이세줄나비와 생김새가 거의 같다. 날개 윗면은 별박이세줄나비보다 날개의 흰 띠무늬가 좁고, 그 중에서도 중실의 흰 띠무늬들이 희미하게 이어지는 점이 조금 다르다. 특히 날개 전연부 중앙에 흰 점무늬가 이 종에서만 나타난다. 날개 아랫면도 짙은 적갈색 무늬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기부의 검은 점들이 굵어서 전체가 어둡다. 뒷날개 외연부에 별박이세줄나비는 흰 띠가, 이 종은 초콜릿색 띠가 있어 조금 다르다.

● 생태학적 특징

조팝나무가 자라고 주변이 확 트인 산지의 길가, 개울가 등 숲 가장자리의 밝은 장소에서 볼 수 있으며, 별박이세줄나비에 비해 개체수가 많지 않다. 활강하듯 길가를 천천히 날아다니다가 어수리 등 흰 꽃에 날아오는 것을 가끔 볼 수 있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강원도의 개체군이 가장 많다.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NT A1(a, d, e)

현재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일부 지역의 초지에 분포한다. 산지의 지속적인 산림화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서식지의 감소는 물론 서식지가 질적으로 저하되어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현 범위가 매우 좁다. NT A1(a, d, e)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Neptis andetria is distributed in the mountains north of Gyeongsangbuk-do in latitude. This species inhabits shrubby areas where *Spiraea prunifolia* (Rosaceae) is abundant. With the disappearance of grasslands in the mountains, this species is also showing a declining trend in population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김용기(생물자원환경연구소)

각시멧노랑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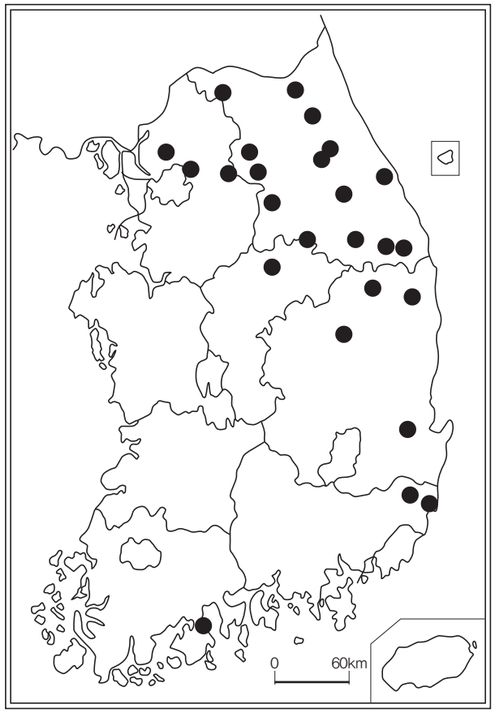
Gonepteryx aspasia (Ménétriès, 1858)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흰나비과 (Pier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한반도 내륙의 산지의 낙엽활엽수림 가장자리에 산다. 최근 숲이 극상림이 되는 곳이 많아지면서 관목류인 먹이식물의 생육이 나빠져 서식지 범위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55–62㎜이다. 멧노랑나비와 생김새가 거의 같다. 다만 이 종이 중실에 있는 붉은 점이 조금 작고, 날개 외연의 연분홍색 무늬가 뚜렷하지 않으며, 뒷날개 제실이 덜 튀어나온 점으로 구별할 수 있다.

● 생태학적 특징

관목림이나 나무가 듬성듬성한 큰키나무 지대의 밝은 환경을 좋아한다. 맑은 날 수수꽃다리, 진달래, 복숭아나무, 나무딸기, 개망초, 동자꽃, 이질풀, 쉬땅나무 등에서 꿀을 빤다. 이른 봄 추우면 낙엽 위에 앉아 일광욕을 하는데, 아마 이런 습성으로 보호색을 띠려고 날개에 갈색 점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겨울을 난 암컷은 4월부터 5월 사이에 먹이식물의 새순이나 그 주변 가지에 똑바로 세워서 알을 하나씩 낳는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다.

● 위협 요인

멧노랑나비와 거의 같은 이유로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 분포 면에서도 멧노랑나비보다 남쪽에 분포하기 때문에 멧노랑나비보다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 아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후변화가 이 종의 분포를 북쪽으로 치우치게 할 것으로 보인다.

● 평가 결과: NT A1(a, d)

산지의 지속적인 산림화와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비록 멧노랑나비보다 개체수가 풍부하지만 서식지의 감소는 물론 개체수가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어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NT A1(a, d)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Gonepteryx aspasia inhabits forest edges of deciduous broad-leaved trees in the Korean Peninsula. Lately, its habitat is rapidly being reduced because of deterioration in the growth of its shrubby foodplant, as growing numbers of forests are reaching their peak in their successional stage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김용기(생물자원환경연구소)

풀흰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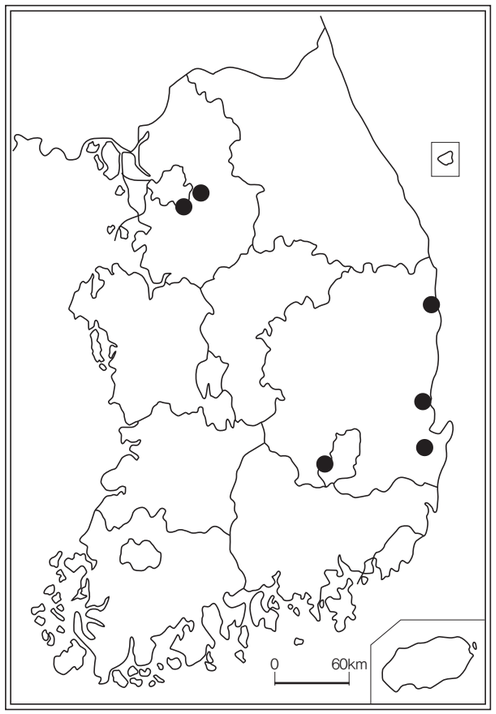
Pontia daplidice (Linnaeus, 1758)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흰나비과 (Pieridae)

영명: Bath White
지정현황: –
IUCN 범주: LC

● 요약

강가의 풀밭에 사는데, 서식지가 변하면 이동한다. 흰나비과 중에서 이동성이 강하다. 최근 강가의 콘크리트 시설 때문에 감소하고 있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45–50㎜이다. 날개 윗면은 흰색 바탕에 흑갈색 무늬가 있는데, 앞날개 중실의 횡맥과 날개 끝에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만 뒷날개는 아랫면의 짙은 무늬가 윗면에 비쳐 검어 보인다. 날개 아랫면은 흰색 바탕에 녹두색 무늬가 전체에 퍼져 있다. 암컷은 수컷보다 날개 전체가 어두우며, 특히 날개 기부의 색이 짙다.

● 생태학적 특징

확 트인 풀밭을 좋아하는데, 하천 주위의 습한 곳에서 산다. 개망초와 구절초, 냉이 등 여러 꽃에서 꿀을 빤다. 1m 정도의 높이로 빠르게 직선적으로 나는데, 그 모습이 노랑나비와 닮았다. 인기척에 민감해 꽃 꿀을 빨 때에도 접근하기가 곤란하다. 수컷은 자기들끼리는 물론 주변의 배추흰나비나 노랑나비의 뒤를 쫓을 때가 많다. 암컷은 오후에 낮게 날아다니다가 먹이식물의 꽃이나 열매에 알을 하나씩 낳아 붙인다(김 · 서, 2012).

● 개체군 분포 현황

서울 중랑천 일부 지역과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만 관찰되고 있을 뿐이다.

● 위협 요인

지금까지 정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식지의 파괴가 개체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나비의 서식지가 대부분 대도시 주변의 하천 주위로, 하천정비와 같은 개발압으로 인한 서식지의 훼손이 개체수가 감소한 첫 번째 원인으로 손꼽힌다.

● 평가 결과: NT B1ab(i)

이 종의 서식지인 하천정비, 골재 채취, 자전거 도로 등으로 하천의 자연성이 점차 파괴되어 있어 현재의 개체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NT B1ab(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2002. 원색 한국나비도감. 교학사. 서울. 305pp.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Pontia daplidice is a mobile species among butterflies of Pieridae. It occurs in riparian grasslands along rivers, but moves when its habitat is altered. This species is on the decline due to the construction of concrete-covered facilities along river banks.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김용기(생물자원환경연구소)

부엉이산누에나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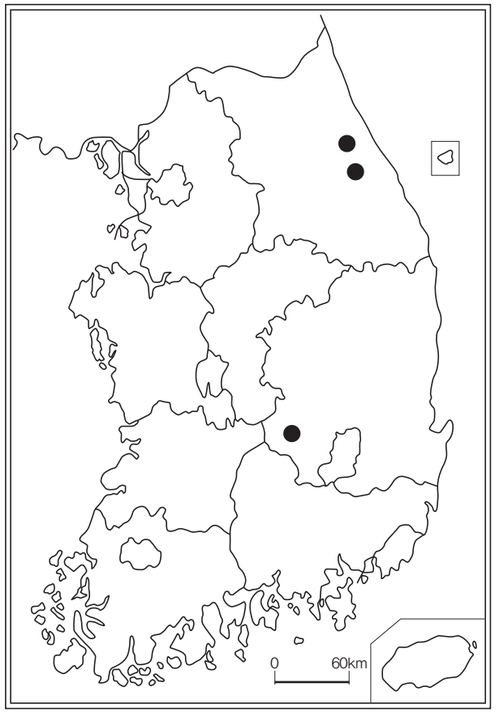
Eriogyna pyretorum (Westwood, [1847])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산누에나방과 (Saturni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강원도 오대산에서 최초 기록된 후에 강원도 일대와 지리산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된다. 크기가 크고 화려해 채집압력이 높은 편이다. 출현정보가 희박해 생활사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 형태

날개 편 길이는 100㎜이다. 앞뒤날개의 중실에는 태극무늬가 뚜렷하고 특징적이며, 날개 기부에는 흑갈색 털로 덮여 있다. 외형선은 톱날무늬 모양을 이루며 아외행선은 백색 띠를 이룬다. 외형상 작은산누에나방과 비슷하나 회갈색 바탕에 외연 내측을 따라 흰색 무늬가 잘 발달되어 있고, 중횡선의 물결무늬가 심한 굴곡을 이루는 것으로 구별된다.

● 생태학적 특징

고도가 높은 산지에서 관찰되며, 불빛에 유인된다. 성충이 10월 말 경에 채집되었을 뿐 다른 기록은 없다.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 일대 산림과 지리산 일대에서 소수의 개체가 확인된다.

● 위협 요인

크고 화려한 날개무늬로 인해 채집압력이 높은 종으로 출현정보가 많지 않다.

● 평가 결과: NT B1b(i)

강원도 일대의 산림과 지리산 일대의 고도가 높은 산림에서 적은 개체가 확인되지만, 출현범위는 비교적 넓은 편이다. 따라서, NT B1b(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박규택, 원갑재, 1988. 한국미기록 나방류에 관해(I)-밤나방과 7종, 솔나방과 2종 및 산누에나방과 1종. Korean J. Syst. Zool. 4(1): 15-20.

Park, K.T., S.S. Kim, Yu. A. Tshistjakov and Y.D. Kwon, 1999. Illustrated Catalogue of Moths in Korea (I). In Park, K.T.(eds): Insects of Korea [4], pp. 387.

Park, K.T., L. Ronkay, L. Przybylowicz, A. Kun, and L. Peregovits, 2001. Moths of North Korea. In Park, K.T.(eds): Insects of Korea [Series 7]. pp. 443.

Eriogyna pyretorum (Westwood, [1847]) was locally distributed in South Korea and was observed rarely at high mountainous region in Gangwon-do and Mt. Jiri. This species was collected at the late of October in Korea.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김용기(생물자원환경연구소)

멋쟁이박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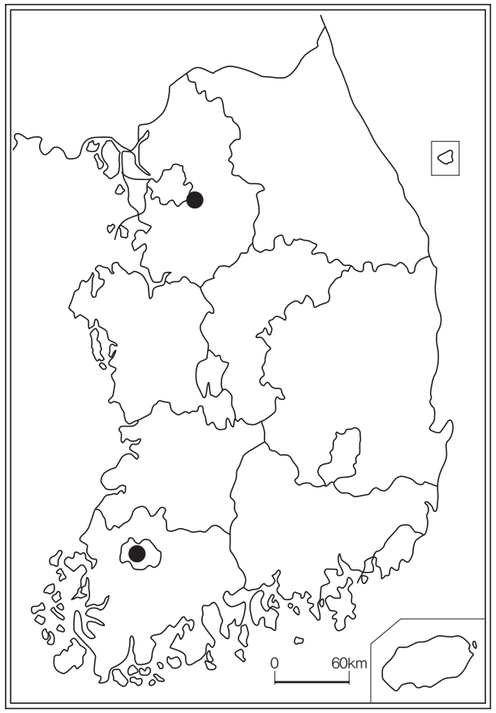
Hyles gallii (Rottemburg)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박각시과 (Sphing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박각시과에 속한다. 이 종은 경기도와 전라남도에서 채집된 기록이 있으며, 박각시중에서는 날개무늬가 화려하다. 출현정보가 희박해 생활사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 형태

날개 편 길이 70–80㎜. 앞뒤날개 모두 굵은 황갈색 띠가 있다. 제2배마디와 제 3배마디의 측면에는 큰 검은색 띠가 있다. 각 배마디 옆면에는 백색 털이 있으며, 앞날개 끝에서 후연각 부근까지는 굵은 담황갈색 띠가 있으며, 뒷면은 앞면과 같은 색깔이다.

● 생태학적 특징

남한에서는 경기도 수원과 전남 광주에서 기록이 있고 북한에서는 경성에서 기록이 있지만, 채집기록은 적다. 국외에는 일본,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동북부, 인도 북부, 유럽, 아메리카 북부, 아프리카 등에 분포한다. 성충은 7–8월에 채집되며 개체수는 적다.

● 개체군 분포 현황

경기도와 전라남도에서 소수의 개체가 확인된다.

● 위협 요인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개체수가 매우 적은 것이 특징이나, 위협요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화려한 날개무늬로 인해 채집압력이 높은 종으로 추측된다.

● 평가 결과: NT B1b(i)

국지적으로 적은 개체가 확인되지만, 출현범위는 비교적 넓은 편이다. 따라서, NT B1b(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신유항. 2001. 원색한국나방도감. 아카데미서적. 1-551pp.

Park, K.T., S.S. Kim, Yu. A. Tshistjakov and Y.D. Kwon, 1999. Illustrated Catalogue of Moths in Korea (I). In Park, K.T.(eds): Insects of Korea [4], pp. 387.

Hyles gallii (Rottemburg) was locally distributed in Gyeonggido and Jeollanamdo , South Korea. This species appears in August.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김용기(생물자원환경연구소)

털보꼬리박각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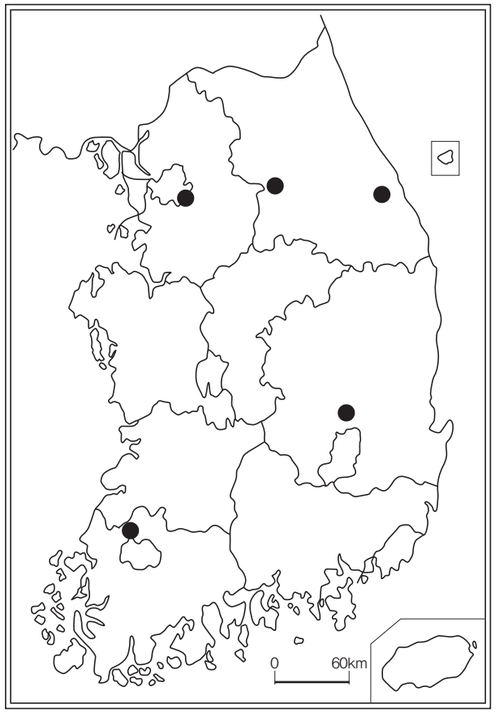
Sphecodima caudata (Bremer et Grey)

분류학적 위치
나비목 (Lepidoptera) 박각시과 (Sphingidae)

영명: –
지정현황: –
IUCN 범주: –

● 요약

박각시과에 속한다. 이 종은 강원도,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에서 채집기록이 있으며, 국지적으로 분포하고 개체수가 매우 적다. 출현정보가 희박해 생활사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 형태

몸과 날개는 흑갈색이고, 더듬이는 등황색인데 기부는 약간 암색이다. 가슴에는 긴 털이 밀생했다. 배에는 담색의 가락지 모양 무늬가 있으나, 불분명하다. 꼬리술은 등황색이고 좌우로 구분되어 있다. 앞날개는 약간 자색을 띤 흑갈색이고, 톱니 모양의 종횡선이 2줄 있으며, 이의 안쪽에는 굵은 가로줄이 뚜렷하게 보인다. 굵고 뚜렷한 2줄의 아기선이 있으나, 후연까지 달하지 못하고 소실된다. 앞날개 끝은 넓게 담색이며, 후연각은 예리하게 돌출했, 돌출부에는 농색 줄무늬가 2줄 있다.

● 생태학적 특징

날개 편 길이는 61-67㎜. 남한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전북 등에서 국지적으로 채집되고 있으나 기록은 많지 않다. 부속도서에서의 기록은 없다. 국외에는 시베리아 동부와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북부에 분포한다. 성충은 5월에서 7월에 걸쳐 나타난다. 신(2001)은 경기도 광릉에서 바나나를 먹이로 한 행깅트랩(hanging trap)을 저녁에 설치했다가 아침에 트랩에 들어있는 성충을 채집했고, 야간에 수액이나 과실즙을 빠는 것으로 생각된다(신, 2001).

● 개체군 분포 현황

강원도,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에서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 위협 요인

개체의 크기가 크고 화려한 날개무늬로 인해 채집압력이 높은 종으로 출현정보가 많지 않다.

● 평가 결과: NT B1b(i)

산림일대에서 적은 개체가 확인되며, 출현범위는 비교적 넓은 편이다. 따라서, NT B1b(i)로 평가했다.

● 참고문헌

신유항. 2001. 원색한국나방도감. 아카데미서적. 1-551pp.

Park, K.T., S.S. Kim, Yu. A. Tshistjakov and Y.D. Kwon, 1999. Illustrated Catalogue of Moths in Korea (I). In Park, K.T.(eds): Insects of Korea [4], pp. 387.

김창환, 남상호, 이승모. 1982. 한국동식물도감 동물편 곤충류(VIII). 문교부. pp.919.

Sphecodima caudata (Bremer et Grey) was locally distributed in South Korea and was observed rarely at high mountainous region in Gangwon-do, Gyeonggi-do, Jeollanam-do, and Gyeongsangbuk-do. This species was collected from June to July in Korea.

집필자: 김성수(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김용기(생물자원환경연구소)

5. 연구진

5.1. 참여 연구진

성명	소속	참여 업무
배양섭	인천대학교	총괄
김성수	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연구원
김용기	인천대학교 생물자원환경연구소	연구원
주영돈	인천대학교	연구보조원

5.2. 자문진

국가생물적색목록위원회 자문위원

성명	소속	참여 업무
김승태	서울대학교	자문위원
김용식	영남대학교	자문위원
김 원	서울대학교	자문위원
김종범	아태양서파충류연구소	자문위원
민미숙	서울대학교	자문위원
박호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자문위원
서영배	서울대학교	자문위원
오홍식	제주대학교	자문위원
이남숙	이화여자대학교	자문위원
이준상	강원대학교	자문위원
조영복	한남대학교	자문위원
최용근	영월동굴생태관(동굴생물연구소)	자문위원

과제자체 자문위원

성명	소속	참여 업무
류동표	상지대학교	자문위원
류재원	경희대학교	자문위원
민기식	인하대학교	자문위원
방인철	순천향대학교	자문위원
손정달	한국나비학회	자문위원
이영준	한국나비학회	자문위원
주흥재	한국나비학회	자문위원
한경덕	고려대학교	자문위원
현진오	동북아식물연구소	자문위원

5.3. 집필진

배양섭 BYS 인천대학교

(우)406-7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인천대학교 생명과학기술대학 생명과학부
Division of Life Sciences, College of Life Sciences and Bioengineering, University of Incheon, Incheon 406-772, Republic of Korea

김성수 KSS 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우) 134-852 서울 강동구 암사3동 293-27 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
Institute for East Asian Environment and Biology, 293-27 Amsa-3dong, Gangdong-gu, Seoul, 134-852, Republic of Korea

김용기 KYK 인천대학교

(우)406-7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송도동) 인천대학교 생물자원환경연구소
Bio-Resource and Environmental Center, University of Incheon, Incheon 406-772, Republic of Korea

6. 적색목록 분류체계

학명	국명	범주	집필자
Order Lepidoptera 나비목			
Family Hesperidae 팔랑나비과			
Burara striata (Hewitson)	큰수리팔랑나비	CR	KSS BYS
Carterocephalus dieckmanni Graeser	참알락팔랑나비	EN	KSS BYS
Hesperia florinda (Butler)	꽃팔랑나비	VU	KSS BYS
Heteropterus morpheus (Pallas)	돈무늬팔랑나비	VU	KSS BYS
Leptalina unicolor (Bremer et Grey)	은줄팔랑나비	EN	KSS BYS
Ochlodes similis (Leech)	산수풀떠들썩팔랑나비	VU	KSS BYS
Ochlodes venatus (Bremer et Grey)	수풀떠들썩팔랑나비	VU	KSS BYS
Pyrgus maculatus (Bremer et Grey)	흰점팔랑나비	VU	KSS BYS
Pyrgus malvae (Linnaeus)	꼬마흰점팔랑나비	VU	KSS BYS
Family Lycaenidae 부전나비과			
Arhopala bazalus (Hewitson)	남방남색꼬리부전나비	EN	KSS BYS
Arhopala japonica (Murray)	남방남색부전나비	EN	KSS BYS
Favonius koreanus Kim	우리녹색부전나비	EN	KSS BYS
Lycaena dispar (Haworth)	큰주홍부전나비	NT	KSS BYS
Maculinea arionides (Staudinger)	큰점박이푸른부전나비	NT	KSS KYK
Maculinea kurentzovi Sibatani Saigusa et Hirowatari	북방점박이푸른부전나비	CR	KSS BYS
Maculinea teleius (Bergsträsser)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	VU	KSS BYS
Neozephyrus japonicus (Murray)	작은녹색부전나비	VU	KSS BYS
Niphanda fusca (Bremer et Grey)	담흑부전나비	NT	KSS KYK
Plebejus argus (Linnaeus)	산꼬마부전나비	EN	KSS BYS
Plebejus subsolanus (Eversmann)	산부전나비	CR	KSS BYS
Protantigius superans (Oberthür)	깊은산부전나비	VU	KSS KYK
Satyrium latior (Fixsen)	북방까마귀부전나비	EN	KSS BYS
Satyrium w-album (Knoch)	까마귀부전나비	VU	KSS BYS
Shijimaeoides divina (Fixsen)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CR	KSS BYS
Shirozua jonasi (Janson)	민무늬귤빛부전나비	EN	KSS BYS
Spindasis takanonis (Matsumura)	쌍꼬리부전나비	VU	KSS BYS
Thecla betulae (Linnaeus)	암고운부전나비	VU	KSS BYS
Family Nymphalidae 네발나비과			
Aglais urticae (Linnaeus)	쐐기풀나비	VU	KSS BYS
Apatura ilia (Denis et Schiffermüller)	오색나비	VU	KSS BYS
Aphantopus hyperantus (Linnaeus)	가락지나비	VU	KSS BYS
Argynnis aglaja (Linnaeus)	풀표범나비	EN	KSS BYS
Argynnis nerippe C. et R. Felder	왕은점표범나비	VU	KSS BYS
Argynnis niobe (Linnaeus)	은점표범나비	VU	KSS BYS
Boloria oscarus (Eversmann)	큰은점선표범나비	VU	KSS BYS
Boloria perryi (Butler)	작은은점선표범나비	VU	KSS BYS
Boloria thore (Hübner)	산꼬마표범나비	EN	KSS BYS
Brenthis daphne (Bergsträsser)	큰표범나비	VU	KSS BYS
Coenonympha amaryllis (Stoll)	시골처녀나비	VU	KSS BYS
Coenonympha hero (Linnaeus)	도시처녀나비	VU	KSS BYS
Coenonympha oedippus (Fabricius)	봄처녀나비	VU	KSS BYS
Erebia cyclopius (Eversmann)	외눈이지옥나비	VU	KSS BYS
Erebia wanga Bremer	외눈이지옥사촌나비	VU	KSS BYS
Euphydryas davidi (Oberthür)	금빛어리표범나비	VU	KSS BYS
Hipparchia autonoe (Esper)	산굴뚝나비	EN	KSS BYS
Inachis io (Linnaeus)	공작나비	VU	KSS BYS
Limenitis homeyeri Tancré	제삼줄나비	VU	KSS BYS
Limenitis populi (Linnaeus)	왕줄나비	VU	KSS BYS
Melanargia epimede (Staudinger)	조흰뱀눈나비	NT	KSS KYK
Melanargia halimede (Ménétriès)	흰뱀눈나비	VU	KSS BYS
Melitaea ambigua Ménétriès	여름어리표범나비	EN	KSS BYS
Melitaea britomartis Assmann	봄어리표범나비	CR	KSS BYS
Melitaea protomedia Ménétriès	담색어리표범나비	EN	KSS BYS
Melitaea scotosia Butler	암어리표범나비	EN	KSS BYS
Mimathyma nycteis (Ménétriès)	밤오색나비	VU	KSS BYS
Neptis andetria Fruhstorfer	개마별박이세줄나비	NT	KSS KYK
Neptis tshetvericovi Kurentzov	중국황세줄나비	VU	KSS BYS
Nymphalis antiopa (Linnaeus)	신선나비	VU	KSS BYS
Nymphalis l-album (Esper)	갈구리신선나비	VU	KSS BYS

Nymphalis xanthomelas (Esper)	들신선나비	VU	KSS BYS
Oeneis mongolica (Oberthür)	참산뱀눈나비	VU	KSS BYS
Oeneis urda (Eversmann)	함경산뱀눈나비	VU	KSS BYS
Seokia pratti (Leech)	홍줄나비	EN	KSS BYS
Family Papilionidae 호랑나비과			
Parnassius bremeri (Felder)	붉은점모시나비	VU	KSS BYS
Sericinus montela Gray	꼬리명주나비	VU	KSS BYS
Family Pieridae 흰나비과			
Aporia crataegi (Linnaeus)	상제나비	CR	KSS BYS
Gonepteryx aspasia (Ménétriès)	각시멧노랑나비	NT	KSS KYK
Gonepteryx maxima Butler	멧노랑나비	VU	KSS BYS
Leptidea amurensis (Ménétriès)	기생나비	VU	KSS BYS
Pontia daplidice (Linnaeus)	풀흰나비	NT	KSS KYK
Family Saturniidae 산누에나방과			
Eriogyna pyretorum (Westwood, [1847])	부엉이산누에나방	NT	KSS KYK
Family Sphingidae 박각시과			
Hyles gallii (Rottemburg)	멋쟁이박각시	NT	KSS KYK
Sphecodima caudata (Bremer et Grey)	털보꼬리박각시	NT	KSS KYK
총합계	72종		

7. 참고문헌

7.1 적색목록집 집필 참고문헌

Choi, S.W. and S.S. Kim. 2011. The past and current status of endangered butterflies in Korea. Entomological Science 1–12.

IUCN. 2003. Guidelines for Application of IUCN Red List Criteria at Regional Levels: Version 3.0. IUCN Species Survival Commission. IUCN, Gland, Switzerland and Cambridge, UK. ii + 26 pp.

Jeon, J.B. S.H. Lee, and S.H. Lee. 1999. Notes on Praying Mantids (Mantodea) on Korea. Ins. Koreana. 16(2): 225–229.

Kim, C.W. 1976. Distribution atlas insects of Korea. (Series 1, Rhopalocera, Lepidoptera). Korea Univ. Press. Seoul. 200pp.

Moon, T.Y and C.H. Kim. 1985. A review of the Far-East Palaearctic genus *Challis* Burr, including a new species Challis kyusani sp. Nov. (Challinae, Dermaptera. Korean J. Entomol., 15(1): 55–60.

Moon, T.Y. 1993. Gonolabis distincta (Nishikawa) new to Korea (Anisolabididae, Dermaptera). Korean J. Entomol., 23(4): 273–276.

Park, K.T., L. Ronkay, L. Przybylowicz, A. Kun, and L. Peregovits, 2001. Moths of North Korea. In Park, K.T.(eds): Insects of Korea [Series 7]. pp. 443.

Park, K.T., S.S. Kim, Yu. A. Tshistjakov and Y.D. Kwon, 1999. Illustrated Catalogue of Moths in Korea (I). In Park, K.T.(eds): Insects of Korea [4], pp. 387.

Van Swaay, C., Cuttelod, A., Collins, S., Maes, D., Lopez Munguira, M., Š.aš.ić., M., Settele, J., Verovnik, R., Verstrael, T., Warren, M., Wiemers, M. and Wynhof, I. 2010. European Red List of Butterfies. Luxembourg: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김성수 등. 2012. 한국나비분포도감. 국립산림과학원. 서울. 474pp.

김성수 · 서영호. 2012. 한국나비생태도감. 사계절출판사. 고양. 539pp.

김용식, 홍승표. 1990. 보호대상 한국산 주요 나비에 대한 고찰. 한국인시류동호인회지, 3: 9–16.

김용식. 2002. (원색)한국나비도감: 한국 나비의 분포 · 생태 · 변이. 교학사. 1–305pp.

박규택, 원갑재, 1988. 한국미기록 나방류에 관하여(I)–밤나방과 7종, 솔나방과 2종 및 산누에나방과 1종. Korean J. Syst. Zool. 4(1): 15–20.

박규택 · 김성수. 1997. 한국의 나비. 생명공학연구소 · 한국곤충분류연구회. 서울. 381pp.

백문기, 황정미, 정광수, 김태우, 김명철, 이영준, 조영복, 박상욱, 이홍식, 구덕서, 정종철, 김기경, 최득수, 신이현, 황정훈, 이준석, 김성수, 배양섭. 2010. 한국 곤충 총 목록. 자연과 생태. 1–598pp.

석주명. 1970. 韓國産蝶類分布圖. 보진재. 서울. 517pp.

신유항. 1990. 자연보존연구보고서 제 10집(1990.12)–곤충류. 한국자연보존협회.145–169pp

신유항. 2001. 원색한국나방도감. 아카데미서적. 1–551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1.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1–29pp.

한국자연보존협회. 1989. 한국의 희귀 및 위기동식물 도감. 1–165pp.

환경부. 2001. 한국의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 동 · 식물 국 · 영문 종 정보 기록 연구. The endangered and

protected species in Korea. IUCN 한국위원회. 1–437pp.
환경부. 2011.생태환경 이용 및 관리기술–한반도 내륙산 멸종위기 및 희귀 무척추동물의 정밀 실태조사와 보전 지위 평가기술개발(최종보고서). 수행기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pp. 473.
환경부. 2012. IUCN 적색 목록 범주와 기준 사용 지침서. IUCN 종보전위원회. 1–116pp.

7.2 적색목록 선정 참고문헌

Arita, Y., Y.S. Bae, C.M. Lee, and M. Ikeda. 2004. Sesiidae (Lepidoptera) of Korea. Trans. Lepid. Soc. Japan 55(1): 1–12.
Bae, Y.S. 1997. Systematic study of the genus *Epinotia* Hubner (Lepidoptera, Tortricidae) from Korea. Ins. Koreana. 14: 1–28.
Bae, Y.S. 2000. The Occurrence of Mictocommosis nigromaculata (Lepidoptera, Tortricidae, Chlidanotinae) in Korea. Ins. Koreana. 17(1/2): 71–78.
Bae, Y.S. 2001. Family Pyraloidea: Pyraustinae & Pyralinae. Economic Insects of Korea 9. Ins. Koreana Suppl. 16. 252pp.
Bae, Y.S. 2004. Superfamily Pyraloidea II (Phycitinae & Crambinae etc). Economic Insects of Korea 22. Ins. Koreana Suppl. 29. 207pp.
Bae, Y.S. 2011. Insect Fauna of Korea Vol. 16 No.1 (Arthropoda: Insecta: Lepidoptera: Tortiricidae: Olethreutinae) Leafroller I.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167pp.
Bae, Y.S., B.K. Byun and M.K. Paek. 2008. Pyralid Moths of Korea (Lepidoptera, Pyraloidea). Korea National Arboretum. Samsungad.com, Seoul. 426pp.
Byun, B.K. and D.Y. Chae and N.H. Ahn. 2012. Insect Fauna of Korea Vol. 16 No.3 (Arthropoda: Insecta: Lepidoptera: Tortiricidae: Olethreutinae) Leafroller II.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143pp.
Byun, B.K. and Y.S. Bae. 2003. Systematic Review of the Genus *Yponomeuta* Latreille (Lepidoptera : Yponomeutidae). Ins. Koreana. 20(2). pp. 227–237.
Byun, B.K, Y.S. Bae and K.T. Park. 1998. Illustrated Catalogue of Tortricidae in Korea (Lepidoptera). In Park. K.T.(eds.). Insects of Korea [2]. 317pp.
Byun, B.K. 1999. Eight newly recorded species of tribe Eucosmini (Lepidoptera; Tortricidae) from Korea. J. Aisa–Pacific Entomol. 2(1) : 19–25.
Byun, B.K. 2003. Four Species of the Family Tortricidae (Lepidoptera) New to Korea. J. Asia–Pacific Entomol., 6(1): 3–6.
Byun, B.K. and Y.S. Bae. 2000. Three Species of the Tribe Tortricini (Lepidoptera, Tortricidae) New to Korea. Ins. Koreana. 17(3): 175–180.
Byun, B.K., A. Kun, B.W. Lee, and Y.S. Bae. 2007. Six species of Tortricinae (Lepidoptera, Tortricidae) new to North Korea. Entomological Research, 37(3): 197–202.
Byun. B.K., C.S. Kim, and J.K., Kim. 1998. Eupithecia abietaria debrunneata Staudinger (Lepidoptera, Geometridae) feeding on the cone of the Korean white pine new to Korea. Korean J. Entomol. 28(4): 341–343.
Cho, S.W. and K.T. Park. 1990. The systematics of Korean Carposinidae (Lepidoptera). Ins. Koreana, 7: 87–103.
Choi, S.W. 2002. Two new Larentiinae species (Lepidoptera, Geometridae) from Korea. Korean J. Entomol., 32(1): 57–60.
Choi, S.W. 2002a. Taxonomy review of the Korean Xanthorhoini (Geometridae: Lepidoptera). Ins. Koreana. 19(3,4): 213–231.
Choi, S.W. 2002b. Taxonomy of the Cidariini (Lepidoptera: Geometridae) in Korea (I). Korean J. Entomol. 32(4): 205–222.
Choi, S.W. 2003. A new record of Pterotocera ussurica Djakonov (Lepidoptera: Geometridae) from Korea. Korean J. Entomol. 33(2): 85–87.
Choi, S.W. 2004b. Taxonomic note on Tridrepana crocea (Leech) (Lepidoptera, Drepanidae) in Korea. Entomological Research, 34(2): 101–103.
Choi, S.W. 2004c. Taxonomy of the Cidariini (Lepidoptera, Geometridae) in Korea (II). Entomological Research, 34(1): 21–35.
Choi, S.W. 2005. A New Record of Thyridid Moth (Lepidoptera, Thyrididae)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Zoology Vol. 21, No. 2. pp. 227–231.
Choi, S.W. 2006. Two New Records of Nolidae (Lepidoptera) from Korea. Korean J. Syst. Zool. Vol. 22, No. 2. pp. 185–188.
Choi, S.W. 2007. First record of a thyatirine species, Achlya kuramana (Matsumura) (Lepidoptera: Drepanidae; Thyatirinae), from Korea. Entomological Research, 37(2): 111–113.
Choi, S.W. 2007. Taxonomic review of the genus *Acasis* Duponchel (Lepidoptera: Geometridae) from Korea. Entomological Research, 37(3): 203–207.
Choi, S.W. 2007. Taxonomic study of the genus *Trichopteryx* Hübner (Lepidoptera, Geometridae) i Korea. Entomological Research, 37: 46–53.
Choi, S.W. 2008. Ericeia inangulata (Guenée) (Lepidoptera, Noctuidae), new to Korea. Korean J. Syst. Zool. 24(1): 135–137.
Choi, S.W. 2008. Taxonomic review of Gymnoscelis Mabille (Lepidoptera: Geometridae) from Korea. Entomological Research, 38(1): 69–72.
Choi, S.W. and J.C. Sohn. 2003. The occurrence of a Winter Geometrid Moth, Sebastosema bubonaria Warren, in Korea (Lepidoptera: Geometridae). Korean J. Entomol. 33(4): 273–275.
Choi, S.W. and S.S. Kim. 2005. A new record of Larerannis miracula (Prout) from Korea (Lepidoptera, Geometridae). Entomological Research, 35(1): 17–19.
Choi, S.W. and S.S. Kim. 2005. A new record of Larerannis miracula (Prout) from Korea (Lepidoptera, Geometridae). Entomological Research, 35(1): 17–19.
Choi, S.W., S.S. Kim, and Y.H. Shin. 1998. Systematics of the tribe Abraxini (Lepidoptera, Geometridae, Ennominae) in South Korea. Ins. Koreana. 15: 41–76.

Dermaptera cafe. 2008. http://cafe.naver.com/dermaptera/61/ (accessed on 22 Oct. 2012).

Ent. Soc. Kor. 1994. Checklist of Insects from Korea. Konkuk Univ. Press. p744

Groenen, F. and B.K. Byun. 2008. Discovery of Rhopobota toshimai Kawabe. 1978 (Lepidoptera, Tortricidae) in Korea. J. Aisa-Pacific Entomol. 11(2) : 97-98.

Han, H.L., C.D. Li, and B.K. Byun. 2007. New record of Trisuloides rotundipennis Sugi (Lepidoptera, Noctuidae, Pantheinae) from Korea. Entomological Research, 37: 36-38.

Inoue, H. 1992. A new subspecies of Scopula Schrank from North Korea (Lepidoptera, Geometridae, Sterrhinae). Korea. Ins. Koreana, 9: 105-107.

Jeon, J.B. S.H. Lee, and S.H. Lee. 1999. Notes on Praying Mantids (Mantodea) on Korea. Ins. Koreana. 16(2): 225-229.

Jeon, J.B., T.W. Kim, P. Tripotin, and J.I. Kim. 2002. Notes on a Cicada Parasitic moth in Korea (Lepidoptera: Epipyropidae). Korean J. Entomol. 32(4): 239-241.

Kim, C.W. and T.Y. Moon. 1985. A Taxonomic Revision of Korean Dermaptera. ENT. RES. Bullet.in. 11. pp. 37-59.

Kim, M.Y., H.K. Lee, L. Ronkay and K.T. Park. 2006. A Review of the Korean Thyatiridae (Lepidoptera), including the Mt. Changbai-shan. J. Asia-Pacific Entomol. 9(3). pp. 203-221.

Kim, S. 2004. Systematic study of the Family Tineidae (Insecta, Lepidoptera) from Korea.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Department of Biology,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Incheon. 179 pp.

Kim, S. and Y.S. Bae. 2007. A New Species of Psychoides Bruand (Lepidoptera, Tineidae, Teichobiinae) from Korea, with Some Biological Information. J. Asia-Pacific Entomol. 10(1): 21-26.

Kim, S.R., B.K. Byun, K.T. Park and S.H. Lee. 2010. Taxonomic study of the tribe Oidaematophorini (Lepidoptera: Pterophoridae) from Korea, with descriptions of the two new species. Journal of Natural History. Vol. 44, Nos. 23-24,. pp. 1377-1399.

Kim, S.R. 2008. Systematic Study on the Family Pterophoridae (Lepidoptera) in the Korean Peninsula.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Department of Applied Biology,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143 pp.

Kim, S.S. 1999. Moths collected from Is. Ullung-do, Korea. J. Lepid. Soc. Korea. 11: 19-28.

Kim, S.S. 1999. Notes on a species of winter geometrid moth (Lepidoptera, Geometridae) new to Korea. J. Lepid. Soc. Korea. 11: 53-54.

Kim, S.S. and J.C. Sohn. 2003. A new record of the family Hyblaeidae (Lepidoptera) from Korea. Korean J. Entomol. 33(2): 127-131.

Kim, S.S. and S.J. Kim. 2000. Six unrecorded species of Geometridae (Lepidoptera) from Korea. J. Lepid. Soc. Korea. 13: 9-11.

Kim, S.S. and Y.H. Shin. 1996. Notes on eleven unrecorded and nineteen little known geometrid moths from Korea. J. Lepid. Soc. Korea, 9: 15-25.

Kim, S.S., E.A. Beljaev, and S.H. Oh. 2001. Illustrated Catalogue of Geometridae in Korea (Lepidoptera: Geometridae, Ennominae). In Park. K.T.(eds.). Insects of Korea [8]. 279pp.

Kim, S.S., J.C. Shon, and S.W. Cho. 2004. A Taxonomic Revision of Illiberis Walker (Lepidoptera: Zygaenidae: Procridinea) in Korea. Entomological Research, 34(3): 235-251.

Kim, Y.K., M.K. Paek, and Y.S. Bae. 2002. The genus *Pyrausta* Schrank (Lepidoptera, Crambidae, Pyraustinae) from Korea, with description of a new species. Ins. Koreana. 19(2): 167-180.

Kononenko, V.S. S.B. Ahn, and L. Ronkay. 1998. Illustrated Catalogue of Noctuidae in Korea (Lepidoptera). In Park. K.T.(eds.). Insects of Korea [3]. 509pp.

Kumata, T. and H. Kuroko, 박규택. 1983. 한국산 가는나방 아과에 관하여 (나비목, 가는나방과). Korean J. Plant Prot. 22(3): 213-227.

Kun, A., 2002. Taxonomic Notes on the Korean Ethmia (Lepidoptera : Oecophoridae ; Ethmiinae). Ins. Koreana. 19(2). pp. 131-136.

Lee, B.W. and B.K. Byun. 2007. Three Unrecorded Species of Family Nepticulidae (Lepidoptera) from South Korea. J. Asia-Pacific Entomol. 10(2): 109-111.

Lee, B.W., B.K. Byun, and Y.S. Bae. 2007. Two Species of the Family Incurvariidae (Lepidoptera) New to Korea. J. Asia-Pacific Entomol. 10(2): 113-115.

Lee, C.M. 2003. Systematic study of the family Sesiidae (Insecta, Lepidoptera) from Korea. Master Thesis. Univ Incheon Kor. 141pp.

Lee, S.G., Y.D. Kwon, B.K. Kim, B.K. Byun, Y.G. Oh and B.Y. Lee. 1997. Occurrence of Mahasena aurea (Butler) (Lepidoptera: Psychidae) Attacking Ginkgo biloba L. and Its Life Cycle in Korea. Korean J. Appl. Entomol. 36(3). pp. 243-248.

Moon, T.Y. 1993. Gonolabis distincta (Nishikawa) new to Korea (Anisolabididae, Dermaptera). Korean J. Entomol. 23(4): 273-276.

Moon, T.Y. and I.B. Yoon 1997. List of Blattaria, Mantodea and Phasmida. Entomological Research Bulletin (KED). pp. 55-57.

Nam, S.H. and C.H. Kim. 1981. A Synonymic List of Tussock Moths (Orgyid.ae: Lep.) in Korea. ENT. RES. Bulletin, 8. pp. 73-100.

Nasu, Y. and Y.S. Bae. 2000. Korean Species of the Genus *Hendecaneura* Walsingham(Lepidoptera, Tortricidae). Ins. Koreana. 17(4): 245-249.

NIBR. 2011. Endemic species of Korea. NIBR. 451pp.

NIBR. 2012.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 목록집. NIBR. 485pp.

Oh, K.S. 1998. Systematic study of the family Lasiocampidae (Lepidoptera) from Korea. Master Thesis. Univ Incheon Kor.

Paek, M.K. 2000. Systematic study of the subfamily Phycitinae (Lepipdoptera, Pyralidae) from Korea.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Inchon, Thesi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397pp.

Paek, M.K. and Y.S. Bae. 2001. One new species of Phycitinae moths with one new record (Lepidoptera, Pyralidae) on Korea. Korean J. Syst. Zool. 17(1): 115-120.

Park, K. T. and M. G. Ponomarenko. 2006. New faunistic data for the family Gelechiida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NE China (Lepidoptera). SHILAP Revta lipid., 34: 275-288.

Park,K.T. 1981. A Revision of the Genus *Promalactis* of Korea (Lep., Oecophoridae). 한국식물보호학회지 제 20권 제1호 (Korean J. pl. prot. 20(1) : 43-50(1981). pp. 43-50.

Park, K.T. 1981. TAXONOMIC STUDIES ON MICRO-LEPIDOPTERA OF KOREA (I) The family Oecophoridae with thirteen unrecorded species from Korea. Korean J. Plant Prot. 20(2). pp. 87-97.

Park, K.T. 1983. Microlepidoptera of Korea. Ins. Koreana ser., 3: 1-195.

Park, K.T. 1983. Microlepidoptera of Korea. Insecta Koreana Series 3. 195 pp.

Park, K.T. 1984. Description of Two New Species of Blastobasidae (Lepidoptera) from Korea. 한국식물보호학회지 제 23권 제1호. Korean J. Plant Prot 23 (1): 56-60 (1984). pp. 56-60.

Park, K.T. 1993. A review of the genus *Hypatima* and its related Genera (Lepidoptera, Gelechiidae) in Korea. Korea. Ins. Koreana. 10: 25-49.

Park, K.T. 1993. Pyralidae and Thyrididae (Lepidoptera) from North Korea. Korean J. Appl. Entomol. 32(2). pp. 151-167.

Park, K.T. 2000. Family Arctiidea. Economic Insects of Korea 1. Ins. Koreana Suppl. 8. 276pp.

Park, K.T. 2004. Families Gelechiidae and Lecithoceridae. Economic Insects of Korea 21. Ins. Koreana Suppl. 28. 152pp.

Park, K.T. and B.K. Byun. 1990. Korean species of Thyrididae (Lepidoptera). Ins. Koreana, 7: 67-86.

Park, K.T. and B.K. Byun. 1995. Microlepidoptera from Chejudo (Lepidoptera). Ins. Koreana Suppl. 5: 137-147.

Park, K.T. and G. Baldizzone. 1992. Systematics of Coleophoridae (Lepidoptera) in Korea. Korean J . Appl. Entomol. 31(4). pp. 516-535.

Park, K.T. and K. Chung. 1998. Two unrecorded species of Gelecchoidea (Lepidoptera) from Korea. Korean J. Entomol. 28(1): 55-58.

Park, K.T. and M.G. Ponomarenko. 2007. Gelechiida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Adjacent Territories (Lepidoptera). In Park, K.T.(eds.). Insects of Korea [12] . 312pp.

Park, K.T. and S.S. Han. 1986. A systematic study on the genus *Caloptilia* Hubner in Korea (Lepidoptera, Gracillariidae). Korean J. Syst. Zool. 2(1): 25-36.

Park, K.T. and S.S. Han. 1986. Seven Species of Gracillariidae and Lyonetiidae (Lepidoptera) New to Korea and a List of the Known Host Plants for the Families. Korean J. Plant Prot. 25(2). pp. 121-128.

Park, K.T. and Y.D. Kwon. 2011. Insect Fauna of Korea Vol. 16 No.2 (Arthropoda: Insecta: Lepidoptera: Notodontidae) Prominents.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46pp.

Park, K.T. and Y.H. Shin. 1985. Notes on two Little Known Species of Microlepidoptera. Ins. Koreana Series 5. pp. 138-142.

Park. K.T. and Y.M. Park. 1998. Genus *Promalactis* Meyrick (Lepidoptera: Oecophoridae) from Korea. With description of six new species. J. Aisa-Pacific Entomol. 1(1) : 51-70.

Park, K.T. and S.Y. Sim. 2000. New Records of Blastobasidae (Lepidoptera) from Korea, with Description of a New Species. Korean J Bioi Sci 4. pp. 245-250.

Park, K.T., L. Ronkay, L. Przybylowicz, A. Kun, and L. Peregovits. 2001. Moths of North Korea. In Park, K.T.(eds): Insects of Korea [Series 7]. pp. 443.

Park, K.T., S.S. Kim, Y.A. Tshistjakov and Y.D. Kwon. 1999. Illustrated Catalogue of Moths in Korea(I). In Park, K.T(eds.). Insects of Korea [4]. 387pp.

Park, K.T., T.M. Kang, M.Y. Min, M.Y. Chae, E.M. Ji, and Y.S. Bae. 2006. Discovery of the Ten species of Subtropical-moths in Is. Daecheong Korea. Korean J. Appl. Entomol. 45(3): 261-268.

Park, Y.M, Fujisawa K., K. T. Park. 1997. Eight Newly Recorded Species of Depressarriidae(Lepidoptera) from Korea, with Five New Synonyms. Korean J. Appl. Entomol. pp. 290-298.

Ponomarenko, M.G. and K.T. Park. 1996. 극동러시아 및 한국산 Dichomeris 속 3신종 기재. Korean J. Appl. Entomol., 35(2): 114-118.

Przybylowicz, L. and K.T. Park. 2001. Two new records and three rare species of Korean Arctiidae (Lepidoptera). Ins. Koreana. 18(3): 211-217.

Ree, H.I. 1999. Medical Entomology(third editon). Komunsa. 132pp.

Sinev, S. Yu and K. T. Park. 1994. A Preliminary List of Stathmopodidae, Batrachedridae, Blastodacnidae and Cosmopterigidae (Lepdioptera:Gelechiidae)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n J. Appl. Entomol. 33(3). pp. 194-200.

Sinev, S. Yu, and 박규택. 1994. 한국산 감꼭지나방과, Batrachedridae, Blastodacnidae, 창날개뿔나방과 (나비목)의 분류학적 정리. Korean J. Appl. Entomol., 33(3): 194-200.

Sohn, J.C. 2007. Faunistic contribution to the Korean Microlepidoptrea and Pyralids (1)-40 species new to Korea. Tinea. 20(1): 12-27.

Sohn, J.C. and L. Ronkay. 2001. New records of Korean Noctuidae (Lepidoptera) with description of a new species. Ins. Koreana. 18(3): 219-227.

Sohn, J.C., L. Ronkay, and V.S. Kononenko. 2004. Three newly recorded and four little known species of Korean Noctuidae (Lepidoptera). Entomological Research, 34(2): 65-72.

Sohn, J.C., L. Ronkay, S.S. Kim, and S.W. Cho. 2005. A Taxonomic report of six Noctuidae species (Lepidoptera) new to Korea. Entomological Research, 35(4): 219-226.

Sohn, J.C., Y.E. Han, E.J. Im, and S.W. Cho. 2005. A faunistic study of Lepidoptera (Insecta) in Is. Jin-do, Korea. Korean J. Syst. Zool. Special Issue 5: 81-104.

Ulziijargal, B. 2011. Systematic study of the family Arctiidae (Lepidoptera, Noctuoidea) in Korea. Master Thesis. Univ Incheon Kor. 158pp.

Vojnitis, A., K.T. Park, Y.H. Shin. 1994. New Faunistic Data on the Family Geometridae (Lepidoptera)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n J. Appl. Entomol., 33(1): 16-18.

Vojnits, A., K.T. Park and Y.H. Shin. 1994. New Faunistic Data on the Family Geometridae (Lepidoptera) of the Korean Peninsula. Korean J. Appl. Entomol. 33(1). pp. 16-18.

Weon, S. H., G. J. Weon, K. T. Park. 1999. Notes on four unrecorded species of Lymantriiclae(Lepidoptera) in Korea. J. Agr. Sci. Vol. 10. pp. 24-28.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http://www.nature.go.kr/ (accessed on 22 Oct. 2012).

농업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곤충표본관. http://insect.naas.go.kr/ (accessed on 22 Oct. 2012).

두산백과. http://www.doopedia.co.kr/ (accessed on 22 Oct. 2012).

박규택, 김재민. 1986. 휴전선일대(休戰線一帶)(강원도접경(江原道接境))의 나방류(類) 조사. Korean J. Plant Prot. 25(2): 77-83.

박규택, 신유항. 1987. 자나방과(科)의 한국(韓國) 미기록(未記錄) 5종(種). Korean J. Plant Prot. 26(4): 189–193.
박규택. 1989. 한국산 밑두리뿔나방과의 분류학적 정리. Korean J. Appl. Entomol. 28(2): 76–81.
박규택. 1994. 한국산 속먹이뿔나방과 창날개뿔나방과. Korean J. Appl. Entomol., 33(1): 12–15.
배연재. 1998. 한국 곤충 생태 도감 I(내시류, 외시류 일부 및 수서곤충류).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곤충연구소. 260 pp.
백문기. 2012. 한국 밤 곤충 도감. 자연과생태. p. 35.
변봉규, 원갑재, 이상길, 이범영. 1996. 한국산 주머니나방과(나비목)의 1 미기록종 보고. Korean J. Appl. Entomol., 35(1): 15–17.
신유항. 2001. 원색한국나방도감. 아카데미서적.
안성복, V.S. Kononenko, 원갑재. 1996. 한국산 밤나방과의 미기록종을 포함한 몇몇 종들에 대한 보고. Korean J. Appl. Entomol., 35(4): 287–296.
오성환. 1995. 제주도의 자나방류 (나비목, 자나방과). Ins. Koreana Suppl. 5: 195–210.
오승환. 1993. 한국산 애기물결자나방속의 분류학적 정리(II). Korean J. Appl. Entomol., 32(4): 440–449.
이종욱. 1998. 한국 곤충 생태 도감 Ⅳ(벌, 파리, 밑들이, 풀잠자리, 집게벌레목). 고려대학교 부설 한국곤충연구소. 246 pp.
최용문, 김동순, 이중섭, 전흥용, 한경숙, 조명래, 이봉춘, 최국선, 김현란, 김창효, 양성일, 변봉규. 1999. 병해충방제도감. 학술편수관. pp.1050
한국식물보호학회. 1986. 한국식물병해충잡초명감. 한국식물보호학회. 200–239p., 633pp.
한반도 생물자원 포털. 2010. Http://ner.me.go.kr/ (accessed on 22 Oct. 2012)
한휘림, V.S. Kononenko, 박규택. 2005. 한국산 밤나방과(나비목) 3 미기록종에 관한 보고. Korean J. Appl. Entomol., 44(3): 165–168.
한휘림, 손재천, 원갑재. 2006. 한국산 밤나방과 미기록 4종의 보고. Korean J. Appl. Entomol., 45(2): 101–105.

8. 찾아보기

8.1. 국명 찾아보기

가락지나비 90
각시멧노랑나비 154
갈구리신선나비 128
개마별박이세줄나비 152
고운점박이푸른부전나비 74
공작나비 114
금빛어리표범나비 112
기생나비 142
깊은산부전나비 78
까마귀부전나비 80
꼬리명주나비 138
꼬마흰점팔랑나비 72
꽃팔랑나비 62
남방남색꼬리부전나비 36
남방남색부전나비 38
담색어리표범나비 56
담흑부전나비 148
도시처녀나비 104
돈무늬팔랑나비 64
들신선나비 130
멋쟁이박각시 160
멧노랑나비 140
민무늬귤빛부전나비 46
밤오색나비 122
봄어리표범나비 28
봄처녀나비 106
부엉이산누에나방 158
북방까마귀부전나비 44
북방점박이푸른부전나비 22
붉은점모시나비 136
산굴뚝나비 52
산꼬마부전나비 42
산꼬마표범나비 50
산부전나비 24
산수풀떠들썩팔랑나비 66
상제나비 30
수풀떠들썩팔랑나비 68
시골처녀나비 102
신선나비 126
쌍꼬리부전나비 82
쐐기풀나비 86
암고운부전나비 84
암어리표범나비 58
여름어리표범나비 54
오색나비 88
왕은점표범나비 92
왕줄나비 118
외눈이지옥나비 108
외눈이지옥사촌나비 110
우리녹색부전나비 40
은점표범나비 94
은줄팔랑나비 34
작은녹색부전나비 76
작은은점선표범나비 98
제삼줄나비 116
조흰뱀눈나비 150
중국황세줄나비 124
참산뱀눈나비 132
참알락팔랑나비 32
큰수리팔랑나비 20
큰은점선표범나비 96
큰점박이푸른부전나비 146
큰주홍부전나비 144
큰표범나비 100
큰홍띠점박이푸른부전나비 26
털보꼬리박각시 162
풀표범나비 48
풀흰나비 156
함경산뱀눈나비 134
홍줄나비 60
흰뱀눈나비 120
흰점팔랑나비 70

8.2. 학명 찾아보기

Aglais urticae 86
Apatura ilia 88
Aphantopus hyperantus 90
Aporia crataegi 30
Argynnis aglaja 48
Argynnis nerippe 92
Argynnis niobe 94
Arhopala bazalus 36
Arhopala japonica 38
Boloria oscarus 96
Boloria perryi 98
Boloria thore 50
Brenthis daphne 100
Burara striata 20
Carterocephalus dieckmanni 32
Coenonympha amaryllis 102
Coenonympha hero 104
Coenonympha oedippus 106
Erebia cyclopius 108
Erebia wanga 110
Eriogyna pyretorum 158
Euphydryas davidi 112
Favonius koreanus 40
Gonepteryx aspasia 154
Gonepteryx maxima 140
Hesperia florinda 62
Heteropterus morpheus 64
Hipparchia autonoe 52
Hyles gallii 160
Inachis io 114
Leptalina unicolor 34
Leptidea amurensis 142
Limenitis homeyeri 116
Limenitis populi 118
Lycaena dispar 144
Maculinea arionides 146
Maculinea kurentzovi 22
Maculinea teleius 74
Melanargia epimede 150
Melanargia halimede 120
Melitaea ambigua 54
Melitaea britomartis 28
Melitaea protomedia 56
Melitaea scotosia 58
Mimathyma nycteis 122
Neozephyrus japonicus 76
Neptis andetria 152
Neptis tshetvericovi 124
Niphanda fusca 148
Nymphalis antiopa 126
Nymphalis l-album 128
Nymphalis xanthomelas 130
Ochlodes similis 66
Ochlodes venatus 68
Oeneis mongolica 132
Oeneis urda 134
Parnassius bremeri 136
Plebejus argus 42
Plebejus subsolanus 24
Pontia daplidice 156
Protantigius superans 78
Pyrgus maculatus 70
Pyrgus malvae 72
Satyrium latior 44
Satyrium w-album 80
Seokia pratti 60
Sericinus montela 138
Shijimaeoides divina 26
Shirozua jonasi 46
Sphecodima caudata 162
Spindasis takanonis 82
Thecla betulae 84

Red Data Book 7

한국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적색자료집

곤충 I

Red Data Book of
Endangered Insects in Korea I

발행일 | 2012년 12월 10일
발행인 | 국립생물자원관장 이상팔
발행처 | 국립생물자원관

주소 | 404-708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로 42(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전화 | 032)590-7118
팩스 | 032)590-7040
편집·제작 | 자연과생태

ⓒ국립생물자원관 2012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480592-000408-01

ISBN 978-89-94555-68-3 94470(세트)
978-89-68110-00-9 94470

Red Data Book of Endangered Insects in Korea I

정부간행물 발간등록번호 11-1480592-000408-01

ISBN 978-89-94555-68-3 94470(세트)
978-89-68110-00-9 94470